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이용행태와 결정요인

The Behavior of Users and Their Decision Factors
for Picnic Spots in Yeoeuido Hangang Park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정 섭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이용행태와 결정요인

지도교수 조 경 진

이 논문을 조경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정 섭

이정섭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孫錦勳



(인)

부 위 원 장

Wybe Kuiper

Wybe Kuiper

위 원

조 경진



(인)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이용행태와 결정요인

The Behavior of Users and Their Decision Factors
for Picnic Spots in Yeoeuido Hangang Park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정 섭

국문초록

도시공원은 예로부터 도시에 부족한 야외 녹지공간을 도시민들에게 공급해왔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도시공원의 여가 기능이 더 중요해졌는데, 가까운 도시공원으로 피크닉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각광받는 피크닉 장소는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이후, 다양한 시설과 넓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피크닉 장소로써 적합한 환경이 되었고, 최근 캠핑 붐과 함께 텐트를 구비한 시민들이 많아져 장시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많이 찾게 되었다.

피크닉이 한강공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여가 행태인데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많은 피크닉 이용자들로 인해 한강공원 운영·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 피크닉이라는 이용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용객들의 피크닉 장소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강공원 내 피크닉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을 사용하고자 한다. 주중과 주말에 걸쳐 대상지의 이용자 행태, 발생 빈도수, 참여 그룹수, 발생 장소 등을 관찰한다. 또한 피크닉 이용자들의 특성, 피크닉 동기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 분석과정은 춘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피크닉 행태를 파악한다.

행태지도작성을 하기 위해 먼저 대상지를 공간적 특성 별로 진입공간, 놀이터, 중심녹지, 수변시설 인접공간, 한강변, 무대 인접공간 등 총 6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발견되는 피크닉 행태는 놀이, 대화, 읽기, 먹기, 경관 감상, 휴식으로 크게 6가지로 나뉘었고, 그들의 유무와 이용자들의 피크닉 용품 유무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피크닉 이용자와 피크닉 장소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춘절기 주중의 피크닉 행태로는 점심 시간대의 여의도 근처 직장인들의 1시간 이내의 가벼운 점심식사가 많았고, 낮보다 저녁과 밤에 많은 사람들이 대상지를 이용하였다. 춘절기 주말에는 오전부터 수변시설 인접공간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주말 저녁과 밤 시간대에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장시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발견되었다.

하절기 주중에는 오후 4시 이전까지 햇빛이 더 강하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춘절기보다 사람이 적었다. 하절기 주말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밀집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특징적인 행태였다. 춘절기에 비해 텐트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마포대교 밑 피아노 물길 근처에도 우선적으로 이용자들이 자리를 선점하였다.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그들이 있는 자리를 선호하였고 저녁 이후에는 한강과 가까운 지점을 더 선호하였다.

춘절기에는 연령, 거주지, 피크닉 동반자와 이용시간이 피크닉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하절기에는 거주지, 피크닉 동반자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춘절기와 하절기 모두 피크닉 동기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춘절기에는 자연성, 문화향유성의 동기가, 하절기에는 자연성, 놀이성, 문화향유성 이상 세 가지 동기요인이 피크닉 장소 선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춘절기에 피크닉 장소에 따라서 피크닉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강과 가까운 곳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피크닉 장소로서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피크닉 이용자들이 어떻게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결정과 다른 요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여의도 한강공원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고, 향후 피크닉 장소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 있어 계획·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주요어 : 이용자 행태, 오픈스페이스, 공간 특성, 여가 동기, 여가 만족도
- 학 번 : 2012-22077

목 차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3
1. 공간적 범위	3
2. 내용적 범위	4
3절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 진행과정	6
제2장 이론적 고찰	7
1절 이용 측면에서의 여의도 한강공원	7
1. 한강개발 사업에 의한 한강의 변화	7
2. 한강공원 이용행태	10
2절 피크닉의 일반적 개념	12
1. 피크닉의 정의	12
2. 피크닉 활동과 동기	14
3. 피크닉 장소의 공간 특성	19
3절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21
1. 도시공원의 여가 기능 강화	21
2. 여가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만족도 요인	21
4절 이용자 행태분석에 대한 고찰	23
1. 이용자 행태의 정의	23
2. 행태분석의 필요성 및 관찰방법	25

3. 이용자 행태분석 관련 연구	26
제3장 분석의 틀	29
1절 연구의 개념 및 가설 설정	29
1. 연구의 개념	29
2. 연구 가설 설정	29
2절 연구방법	30
1. 행태지도 작성법	30
2. 조사 설계	32
3절 조사 대상지 일반적 특성	36
4절 조사 대상지의 공간 분류	39
1. 진입공간	40
2. 놀이터 공간	41
3. 중심녹지공간	42
4. 수변시설 공간	43
5. 한강변 공간	44
6. 수변무대 공간	45
제4장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행태 및 결정요인 분석	46
1절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46
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46
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76
3.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행태지도 종합 분석	112
2절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기초통계 분석	118
1. 설문조사 진행	118
2.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 구성	119
3절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25
4절 가설 검증 결과	128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의 차이 검정	128
2.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연구 가설 검정	131
3.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동기 관련 연구 가설 검정	135
4.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만족도 관련 연구 가설 검정	139
 제5장 결론	 142
1절 연구 요약	142
2절 연구의 의의	145
3절 연구의 한계	147
 [참고문헌]	 149
 [부록]	 155
 [Abstract]	 158

표 목 차

<표 2-1> 행태를 나타내는 행동 분류	24
<표 2-2> 도시공원 이용행태 관련 연구	26
<표 3-1> 이용자 행태 관찰 요소	30
<표 3-2> 춘절기 행태 조사 날짜와 시간대	31
<표 3-3> 하절기 행태 조사 날짜와 시간대	32
<표 3-4>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33
<표 3-5> 설문지 구성	34
<표 3-6> 통계검정 방식	35
<표 3-7> 여의도 한강공원의 현황 및 특성	36
<표 3-8> 진입공간의 공간구성	40
<표 3-9> 놀이터 공간의 공간구성	41
<표 3-10> 중심녹지공간의 공간구성	42
<표 3-11> 수변시설 인접 공간의 공간구성	43
<표 3-12> 한강변 공간의 공간구성	44
<표 3-13> 무대 인접 공간의 공간구성	45
<표 4-1> 춘절기 주중 오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46
<표 4-2> 춘절기 주중 점심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49
<표 4-3> 춘절기 주중 오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52
<표 4-4> 춘절기 주중 저녁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55
<표 4-5> 춘절기 주중 밤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58
<표 4-6> 춘절기 주말 오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61
<표 4-7> 춘절기 주말 점심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64
<표 4-8> 춘절기 주말 오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67
<표 4-9> 춘절기 주말 저녁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70
<표 4-10> 춘절기 주말 밤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73
<표 4-11> 하절기 주중 오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76
<표 4-12> 하절기 주중 점심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79
<표 4-13>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	82
<표 4-14>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85
.....	85
<표 4-15> 하절기 주중 저녁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88
<표 4-16> 하절기 주중 밤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91
<표 4-17> 하절기 주말 오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93
<표 4-18> 하절기 주말 점심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97
<표 4-19> 하절기 주말 오후-Ⅰ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100
<표 4-20> 하절기 주말 오후-Ⅱ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103
<표 4-21> 하절기 주말 저녁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106
<표 4-22> 하절기 주말 밤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109
<표 4-2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이용자 구성	121
<표 4-2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이용자 구성	122
<표 4-2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이용자 행태	124
<표 4-2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이용자 행태	125
<표 4-2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이용자 방문동기 요인분석	127
<표 4-2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이용자 방문동기 요인분석	128
<표 4-29> 춘절기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130
<표 4-30> 하절기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131
<표 4-31> 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133
<표 4-32> 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135
<표 4-33>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춘절기 피크닉 동기 요인 차이 분석	136
.....	136
<표 4-34>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하절기 피크닉 동기 요인 차이 분석	139
.....	139
<표 4-35>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춘절기 피크닉 만족도 차이 분석	140
<표 4-36>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하절기 피크닉 만족도 차이 분석	141

그림 목 차

<그림 1-1> 여의도 한강공원 위치도	4
<그림 1-2>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일제강점기 한강변에서 배 만드는 풍경	7
<그림 2-2> 1950년대 여의도 항구의 모습	7
<그림 2-3> 1950년대 한강에서 강수욕과 썰매,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8
<그림 2-4> 1968년 제방 완공 직후의 여의도	9
<그림 2-5> The Picnic“, Thomas Cole, 1860	14
<그림 2-6> 1950년대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피크닉 사진	14
<그림 2-7> 피크닉 활동	15
<그림 2-8> 피크닉의 동기	18
<그림 3-1> 여의도 한강공원 - 친수형 테라스, 물빛광장	37
<그림 3-2> 여의도 한강공원 공간 분류	39
<그림 4-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47
<그림 4-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47
<그림 4-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48
<그림 4-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48
<그림 4-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50
<그림 4-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50
<그림 4-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51
<그림 4-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51

<그림 4-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53
<그림 4-1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53
<그림 4-1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54
<그림 4-1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54
<그림 4-1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56
<그림 4-1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56
<그림 4-1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57
<그림 4-1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57
<그림 4-1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59
<그림 4-1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59
<그림 4-1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60
<그림 4-2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60
<그림 4-2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62
<그림 4-2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62
<그림 4-2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63

<그림 4-2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63
<그림 4-2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65
<그림 4-2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65
<그림 4-2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66
<그림 4-2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66
<그림 4-2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68
<그림 4-3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68
<그림 4-3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69
<그림 4-3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69
<그림 4-3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71
<그림 4-3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71
<그림 4-3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72
<그림 4-3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72
<그림 4-3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74
<그림 4-3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74

<그림 4-3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75
<그림 4-4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75
<그림 4-4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77
<그림 4-4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77
<그림 4-4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78
<그림 4-4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78
<그림 4-4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80
<그림 4-4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80
<그림 4-4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81
<그림 4-4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81
<그림 4-4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83
<그림 4-5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83
<그림 4-5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84
<그림 4-5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84
<그림 4-5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86

<그림 4-5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86
<그림 4-5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87
<그림 4-5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87
<그림 4-5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89
<그림 4-5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89
<그림 4-5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90
<그림 4-6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90
<그림 4-6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92
<그림 4-6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92
<그림 4-6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93
<그림 4-6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93
<그림 4-6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95
<그림 4-6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95
<그림 4-6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96
<그림 4-6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96

<그림 4-6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98
<그림 4-7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98
<그림 4-7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99
<그림 4-7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99
<그림 4-7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101
<그림 4-7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101
<그림 4-7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102
<그림 4-7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102
<그림 4-7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104
<그림 4-7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104
<그림 4-7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105
<그림 4-8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I)	105
<그림 4-8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	107
<그림 4-8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 II)	107
<그림 4-8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I)	108

<그림 4-8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108
<그림 4-8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Ⅰ)	110
<그림 4-8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서강대교~마포대교 구간Ⅱ)	110
<그림 4-8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Ⅰ)	111
<그림 4-8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Ⅱ)	111
<그림 4-8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112
<그림 4-9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112
<그림 4-9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113
<그림 4-9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113
<그림 4-9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별 이용자의 그늘 선호도	114
<그림 4-9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별 이용자의 그늘 선호도	114
<그림 4-95> 진입공간의 그늘 밑에 자리 잡은 피크닉 이용자들	114
<그림 4-96> 한강변 인접 공간의 그늘막 밑의 피크닉 이용자들	114
<그림 4-9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별 이용자의 이용행태	115
<그림 4-9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별 이용자의 이용행태	115
<그림 4-99> 캐스케이드 주변에 밀집한 텐트 이용자들	116
<그림 4-100> 마포대교 밑의 공간에 밀집한 텐트 이용자들	116
<그림 4-10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간대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116
<그림 4-10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간대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116
<그림 4-10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간대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117
<그림 4-10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간대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117
<그림 4-10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간대별 이용자의 그늘 선호도	117
<그림 4-10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간대별 이용자의 그늘 선호도	117
<그림 4-10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간대별 피크닉 이용행태	118
<그림 4-10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간대별 피크닉 이용행태	118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얀 겔(Jan Gehl)은 도시의 옥외공간에서 어딘가에 ‘앉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행위라고 말한다. 학교나 직장에 가는 일처럼 필수적인 활동이 아닌 선택적 활동의 하나인데, 이는 사람들이 원하고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에서만 앉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 이런 활동은 날씨나 장소가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외부조건에서 발생한다.¹⁾

날씨와 함께 옥외공간의 질적 수준이 높으면 그 곳에서의 활동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 장소와 상황이 사람들이 멈추어 서게 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가까운 여가활동 중 하나는 피크닉(picnic)이다.

피크닉은 옛날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화된 여가활동이다. 날씨 좋은 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싸온 음식을 먹거나 가벼운 놀이를 하는 대중적인 여가문화이다. 우리나라에는 피크닉이 그리 대중적으로 유행하던 놀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산이나 하천 인근으로 피크닉 이용객이 조금씩 증가하다가²⁾ 최근 들어 주변 공원에 가서 가볍게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공원이 단순한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여가 목적형 공원으로서 피크닉 및 데이트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우리나라에도 사설 캠핑장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이 많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외로 캠핑을 가곤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캠핑장이 아닌 공공장소

1) Jan Gehl, *Life between Buildings*,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 (공역),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 (서울: 푸른솔, 2006), pp. 19-20

2) 임승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2007, p. 353

3) 편집부, 『공원에 가기』, (서울: 호박, 2012), p. 12

의 공간을 피크닉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소가 한강공원이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이후, 리모델링된 한강공원에 피크닉 수요가 늘어났다. 강변도로로 인해 강변과 시민들이 단절되었던 과거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천편일률적인 콘크리트 호안이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면서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특화시설 도입으로 한강변에서도 다양한 공연·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사업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넓은 녹지공간이 많이 생겨나 한강변을 걷다보면 한강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캠핑 이용객들로 인해 국내 캠핑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고 캠핑 시장 규모가 6000억 원에 달하는 등 캠핑 도구를 보유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 공원과 한강 변에서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피크닉 스타일의 캠핑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⁴⁾에 따르면, 예년보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장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조금 줄어들었고, 각종 여가공간이 사유화, 기업화됨에 따라 여가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먼 캠핑장으로 가는 오토캠핑이나 장거리 여행보다 가까운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국내 여행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국내관광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픈스페이스를 피크닉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성 이후 피크닉 시설만 있고 이용이 저조한 곳도 있고, 경치 좋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는 피크닉 및 캠핑 장소도 있다.⁵⁾

또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 피크닉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한강공원 녹지나 강가에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⁶⁾. 이에 따라 한강공원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있어

4)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2006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11314호)로 지정받아 2008년까지는 매년 조사되어 오다가, 2008년부터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5) 이환규, “금강시민공원 ‘캠핑족 마음을 흠쳐라’”, 『군산신문』, (2013년 6월 12일)

피크닉 이용자의 피크닉 장소를 결정하는 요인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피크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오픈스페이스를 피크닉장으로 조성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피크닉 이용객들이 어떤 장소를 선호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며 피크닉을 즐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한 뒤, 피크닉 장소 활성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강공원과 수변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나 자전거 이용 자같은 동적 행태를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피크닉은 한강공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행태인데 비해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크닉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의 한강공원 내 이용행태와 피크닉 장소로서의 선정 요인의 중요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계속해서 증가하는 피크닉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이용자들을 제외한, 한 지점에서 자리를 잡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이용행태, 각 지점을 선정한 요인 파악과 피크닉 장소로서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공원 특화사업이 시행된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 이상 4개 권역의 한강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이뤄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정한다. 특히 한강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잔디밭이 있어 피크닉 장소로써 많은 이용이 되고 있기에 연구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6) 이정현, “한강공원 쓰레기로 '몸살'... 두달새 892t 수거”, 『연합뉴스』, (2013년 8월 15일)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3.5km, 면적은 약 785,000㎡(여의도 셋강 제외)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과 연결되어 있으나, 생태공원은 피크닉 행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공간적 성격이 달라 셋강 지역은 제외시켰다.



<그림 1-1> 여의도 한강공원 위치도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피크닉의 개념과 그 이용특성을 기존 문헌과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피크닉활동과 피크닉환경과의 관계 및 공원 내 피크닉 장소(spot)의 선택에 관하여 연구한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시간, 피크닉을 할 때에 행하는 활동, 피크닉 장소 선택 요인 및 선호되는 피크닉장소의 환경적 특성, 피크닉을 하는 사람과 피크닉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을 내용적 범위로 삼는다.

3절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 연구방법

제1장 서론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피크닉 이용자들의 행태와 피크닉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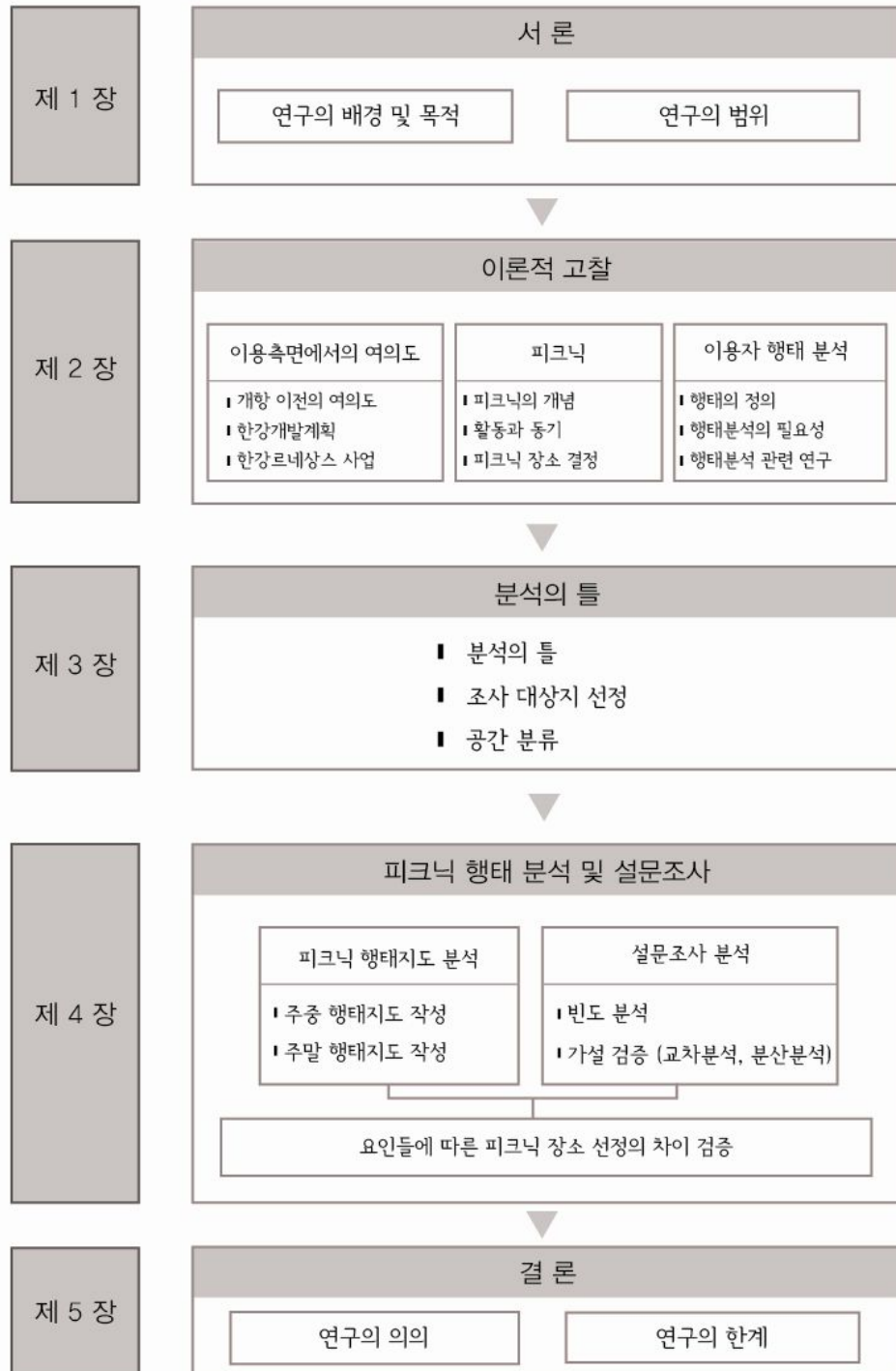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살펴본 후, 피크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피크닉 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피크닉 장소 및 환경에 대한 선호 요인을 찾기 위해 유사 연구사례를 살펴본다. 피크닉 선호장소 파악 및 실증적인 여의도 한강공원 내 피크닉 행태분석을 위하여 이용자 행태분석에 대한 고찰을 한다.

제3장 분석의 틀에서는 연구 방법을 선택한 뒤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선행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장소로 이용되는 지점을 파악해서 유형화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설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척도를 도출한다. 이후, 도출된 변수를 반영하여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들의 피크닉 장소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 조사 결과에서는 행태지도 분석을 통하여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시간대별 및 공간 별 피크닉 행태 분석을 하고, 설문을 통한 기초통계 분석과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또한 봄(춘절기)과 여름(하절기), 두 기간에 걸쳐 조사를 함으로써 계절별 피크닉 행태의 차이를 알아본다. 이를 종합하여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피크닉 장소와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론 고찰 부분과 요약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연구의 과정



<그림 1-2>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이용 측면에서의 여의도 한강공원

1. 한강개발 사업에 의한 변화

(1) 한강개발 이전의 여의도

고려, 조선시대에는 여의도가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장⁷⁾이었고, 개항이전에는 여의도가 면적은 넓었으나 사람들의 거주지는 밤섬에 집중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여의도와 밤섬은 조선시대 한강이 담당했던 물류의 중심지였다. 이런 입지 때문에 밤섬 거주지의 생업의 현장으로 한강변을 이용했다. 뱃사공, 배목수, 어업, 기타 선원들을 위한 서비스업, 기호식품을 제공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터였다. 실제 한강 배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졌고, 밤섬 폭파로 거주민들이 모두 이전하기 전까지 이곳에 배 목수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한편,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같은 수해를 피하고자 그나마 있는 주거지역은 한강변에 있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산 중턱에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었다.



<그림 2-1> (左)일제강점기 한강변에서 배 만드는 풍경

자료: 안창모,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여의도의 소외와 개발, 2010

<그림 2-2> (右)1950년대 여의도 항구의 모습

자료: 신재은, “깨벗은 아이들과 샤워하는 여인, 왜 여기에서?”, 『오마이뉴스』, (2010년 4월 7일)

수해의 위험이 있었으나, 시민들은 한강변에 접근하기 용이하여, 이수공간의 역

7) 1530년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따르면, 여의도에 대해 ‘서강 남쪽에 있는 목축장으로 사육서, 전생서의 관원 한 사람씩을 보내 목축을 감독한다’ 라고 적고 있어, 조선 초부터 이곳의 땅이 넓고 편평하여 양과 염소를 기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목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할 뿐 아니라 강수욕을 즐기거나 겨울에 썰매를 타는 등 여가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어 경마대회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림 2-3> 1950년대 한강에서 강수욕과 썰매,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자료: 신재은, 2010

(2) 제1차 한강연안개발계획

1963년에 서울의 시역이 한강이 포함된 강남 일대로 확장하면서, 한강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한강에 접한 시가지 권역 대부분이 빈번하게 홍수로 인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강을 포함한 강남 일대를 시역으로 포함시킨 서울시는 한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였다.

서울 시역이 확장되었으나 한강이남에서 영등포를 제외하면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 없었다. 그러나 1969년 한강연안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강남과 여의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한강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한강변 공유수면 매립을 계획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주택용 택지를 확보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이었다.⁸⁾

건축가 김수근이 주도한 ‘여의도 및 한강연안개발계획’은, 비행장 65만평, 밭 30만평, 모래톱 100만평 등 영등포에서 밤섬, 한강철교에서 양화대교에 이르던 200만평에 달했던 모래벌판을 87만평의 현 여의도로 정리하는 계획으로, 한강변에는 강변1로에서 강변5로에 이르는 강변도로가 개설되었다. 홍수를 방지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방을 설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강의 섬들의 토석을

8) 안창모,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여의도의 소외와 개발, 2010

이용함으로써 한강의 섬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은 한강변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시민들이 계획 이전처럼 한강변에서 친수활동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치수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나, 시민들과 한강은 단절되어 친수공간으로의 기능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림 2-4> 1968년 제방 완공 직후의 여의도

자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3)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개발정책이 한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1980년대부터는 치수, 미관, 오염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저수로 정비, 올림픽대로 건설, 분류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건설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휴식, 여가공간을 확보하였고 한강의 수질이 다소 향상되었으며,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끝난 뒤 수년이 지나자 교통량 폭주로 인한 교통체증, 쓰레기, 하수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한강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4) 한강공원 특화사업

이전 한강의 사업들이 도시성장 측면에서 효과를 보았으나, 한강과 시민들을 단절시켰고, 강북과 강남을 단절하는 요인으로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그런 비판

에 대한 반성에서 2007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발굴하여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의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상실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한강이 가진 가능성과 가치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⁹⁾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8대 실현과제 중 하나로 전체 사업의 예산의 51.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12개 권역의 한강공원을 각각 다른 테마가 있는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했고, 12개 권역 중 먼저 여의도, 독섬, 난지, 반포 권역을 대상으로 1단계 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4개 권역의 특화사업은 한강의 문화기반 조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주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사업 이전에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한강공원 권역 별 특화라는 방향을 정하고,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한강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국제 업무지구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축제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거주민과 더불어 직장인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한강공원 12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이용자가 찾고 있다.

2. 한강공원 이용행태

한강은 항상 여러 측면에서 서울의 주요한 자산이었지만, 잠재된 가치에 비해서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한 편이다. 1970년대에 근대화를 겪으며 오염이 되었고, 1980년대 시행된 한강개발사업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접근성이 미흡하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 이런 한강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예전보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1990년대의 한강공원 이용자들에 비하여 한강공원에 대한 중요도 평균과 성취도 평균의 차이가 2000년대의 한강공원 이용자들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정우, 2008).

9)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2007

한편, 한강르네상스 사업 이후, 늘어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의 증가와 정비덕분에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한강공원을 찾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산책하는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레저 갈등이 생기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김지혜, 2010, 전미리, 2011).

한강르네상스 사업 대상지인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 권역의 공원들에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을 하는데, 잔디밭이나 산책로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적인 공간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이후 접근성이 개선되어 한강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강이라는 특징적인 요소 때문인지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스트레스 해소 등 회복환경으로서 한강공원을 찾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보아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한강공원이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애 외, 2013, 김현지, 2013).

한강공원은 근처에 주로 거주지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에, 생활권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편인데, 한강르네상스 사업 대상지 중 여의도 권역처럼 멀리 거주하는 사람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곳도 있다. 이는 권역 별로 생활권, 근린공원의 역할을 하는 공간도 있고, 여의도 권역처럼 여가활동의 목적지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송지연 외, 2013, 정다현, 2013).

2절 피크닉의 일반적 개념

1. 피크닉의 정의

피크닉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사용어의 개념정리를 통하여 피크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유사용어의 개념정리

■ 소풍(逍風)¹⁰⁾ : 학생들에게 운동 및 자연 관찰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야외로 나가 하루를 보내는 교육활동. 원래는 바람을 쏘인다는 뜻이나, 교육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산이나 들·공원·역사적 유적지 등을 찾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소풍이라고 한다. 흔히 피크닉과 소풍을 같은 뜻으로 쓰곤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심신의 단련이라고 하는 성격보다도, 학교교육의 특별교육활동으로 정착되어 현장학습이라는 기능이 강화되었다.¹¹⁾

■ 가든파티(Garden party)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초대된 손님 위주의 가벼운 식사와 음료를 내고 환담, 음악, 댄스파티 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 바비큐 파티(Barbecues Party)는 미국에서 시작된 후 널리 퍼진 행위인데, 야외에서 간편하게 만든 화로나 바비큐 세트를 이용해 각종 수조육류, 어패류, 감자, 옥수수 등 채소류를 구워 함께 먹는 것이다. 연료는 장작이나 숯이 좋고, 벽돌이나 돌로 즉석에서 화덕 사용한다.

■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는 서양에서 즐겨 여는 파티 형태의 하나로 참가자들이 각자 하나씩의 요리를 들고 와서 먹는 것이다.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은 장소를 제공하며 그릇과 수저 등만 내놓으면 되고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요리를 가져오면 된다. 한 사람에게 시간과 비용부담이 적은 면에서 실용적인 이점이 있다.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소풍”.

11) 박미애, 초등학교 소풍장소의 확대방향에 관한 연구: 한강시민공원 소풍장소 활성화 방안을 사례로, 1995, p. 30

■ 캠핑(Camping)¹²⁾ :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으로 야영 또는 노영이라고도 한다. 캠핑의 본래 의미는 ‘동지끼리 협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인격에 접촉하는 소박한 협동생활을 함으로써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또 등산·수영·낚시 기타 야외 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신체를 단련하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피크닉(Picnic)은 당일 유람여행으로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이다. 보통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공원이나 호숫가 혹은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공공 이벤트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¹³⁾ 즉, 일이나 생활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 야외에서의 여가를 겸한 자유로운 활동을 말하며 우리나라 말로는 『들놀이』라고 할 수 있다.

피크닉의 어원은 1692년 프랑스에서 pique-nique라는 단어로 처음 등장하였고, 피크닉(picnic)이라는 영어단어는 1748년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당시부터 피크닉은 야외에 나가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카드 게임이나 대화를 하는 개념으로 현재 피크닉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때부터 피크닉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화가들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즐겨왔던 봄철의 꽃놀이·화전놀이, 여름철의 물놀이·천렵(川獵)·낚시, 가을의 단풍놀이 등도 일종의 피크닉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은 레저 붐을 타고 가족단위로 당일치기의 야외활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총칭이다. 하이킹·등산·캠핑 등의 스포츠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으나, 오락적인 요소는 포함한다. 일정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지내는 것이 피크닉의 특징이다.

12) 두산백과, 두산백과, “캠핑”.

13) Wikipedia 온라인 백과사전, <http://www.wikipedia.org>



<그림 2-5(左)> “The Picnic”, Thomas Cole, 1860

<그림 2-6(右)> 1950년대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피크닉 사진

자료: Wikipedia 백과사전, <http://http://en.wikipedia.org/wiki/Picnic>

2. 피크닉 활동과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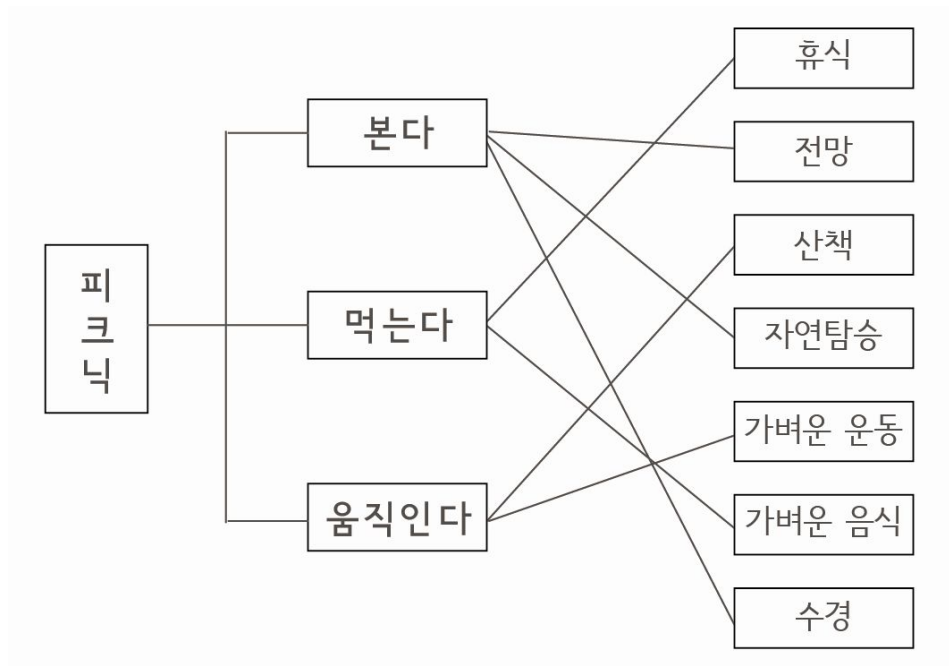
(1) 피크닉 활동

피크닉 활동은 ‘본다.’, ‘먹는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3가지 활동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보는 활동에는 전망, 자연탐승, 수경, 보존 등이 있고 먹는 활동에서는 휴식과 가벼운 음식이 있으며 움직이는 활동에는 산책, 가벼운 운동이 있다.¹⁴⁾

피크닉은 일시적으로 야외에서 먹거나 마시는 활동으로 단순히 야외에서 먹는 즐거움 외에 보트타기, 수영, 하이킹, 관광 등과 같은 야외 행락활동을 같이 하기도 한다. 피크닉 활동은 인공물이나 자연물이 있는 도시환경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진다. 피크닉의 대중성은 행위의 단순함과 그것이 주된 존재의 이유인 음식의 보편성인 애호에서 비롯된다. 활동적인 측면에서 피크닉을 보면,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무 활동적이라면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방해가 될 것이며, 너무 활동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¹⁵⁾

14) 우낙기, 관광시설계획·경영론, 한국관광지역발전연구소, 1975. p. 27

15) 이양주 외, 피크닉장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 27-8



<그림 2-7> 피크닉 활동

자료: 우낙기, 관광시설계획·경영론, 한국관광지역발전연구소, 1975, p. 27

(2) 피크닉의 동기

인간이 많은 다른 여가활동보다 피크닉에 참여하는 동기는 크게 생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생리적 동기는 유기체의 물리적 욕구에 근원하며 이 욕구의 충족은 개인이나 그 종족의 존속 및 물리적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회적 동기는 물리적 동기의 충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동기들이다. 피크닉 활동을 행하는 주된 동기중의 하나인, 야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생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회화, 휴식과 같은 동기들은 사회적 동기에 해당된다.

1)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Maslow에 의하면 인간은 우선순위 체계가 있는 단계적 욕구를 갖는다고 한다. 가장 큰 욕구가 만족되면 위계상의 다음 욕구가 출현한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배고픔, 목마름과 같은 생리적 욕구인데, 일단 이들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출현하며, 차례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애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피크닉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이며, 참여율은 대체로 안정이 되어 있다.¹⁶⁾

2) 사회화 (socialization)

피크닉 동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기능이다. 야외에서 친구, 친척, 회사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된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회활동으로 개인보다 단체 피크닉이 훨씬 많이 이용하며, 가족 피크닉 또한 야외식사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가족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3) 휴식 (relaxation)

행락활동의 동기와 관련되는 몇 가지 전통적인 이론이 있다. 휴식이론은 행락활동에 가능한 동기를 제시해주며,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활동에 몰두한 후에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쉬거나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기간을 필요로 한다. 도시의 일상생활과 고도기술사회의 복잡하고 긴장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피로를 쌓이게 하며, 이런 상황 아래서 사람들은 휴식하기를 원하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노변탐자와 같은 도시환경 속에서 피크닉을 하는 동기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도심공원이나 주변의 벤치에서 회사원들이 식사하는 행위도 이 휴식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4) 지원기능 (sustenance function)

피크닉은 다른 야외활동을 도와주는 지원기능을 한다. 야외수영을 하거나 해변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피크닉에 의해 가능하다. 드라이브와 관광여행도 음식을 가지고 가서 노천에서 피크닉을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피크닉은 다른 야외활동을 도와주므로 지원기능도 피크닉 동기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6) 양병이, 레크리에이션장소의 분석을 위한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피크닉을 중심으로-, 1984, 관광학연구 8권, pp. 5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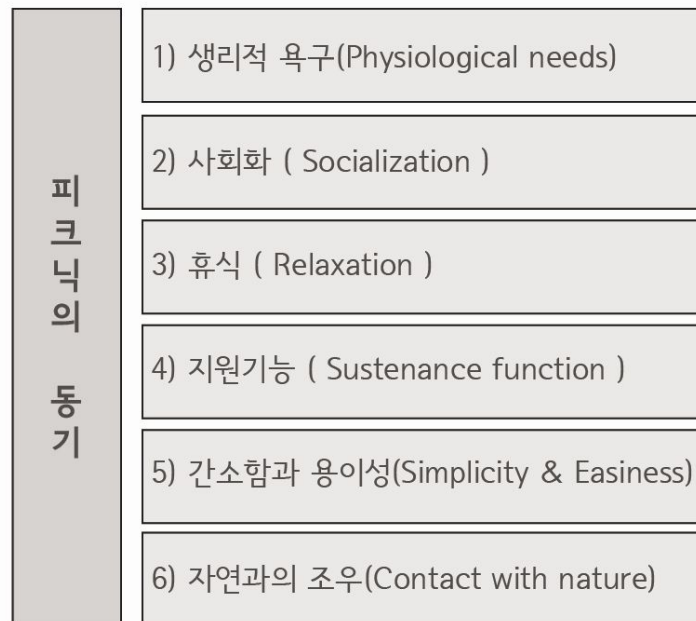
5) 간소함과 용이성 (simplicity and easiness)

피크닉은 경비, 육체적인 활동이나 기술, 시간, 장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행락활동 중의 하나이다. 피크닉 그 자체로는 육체적인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나 피크닉을 할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게임이나 하이킹, 혹은 다소 격렬한 다른 활동들을 즐긴다. 그러나 피크닉으로서는 단지 피크닉 장소로 음식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육체적 활동만을 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아주 적은 육체적 활동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 점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피크닉을 좋아하도록 만든다.

피크닉을 하는 데에는 단지 반나절 혹은 기껏해야 하루가 소요된다. 피크닉 장소로 갈 때 도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약간의 비용만 들게 된다. 경비 외의 다른 부수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 피크닉 장소는 도시공원이나 동물원에서부터 시설물이 전혀 없는 초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이와 같은 장소의 다양성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피크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피크닉의 간소함과 용이성은 사람들에게 피크닉을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6) 자연과의 조우 (contact with nature)

피크닉을 하는 또 다른 동기는 자연접촉에 있다.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식당이나 가게가 없는 장소를 찾아가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면서 녹색 자연 속에서 심신의 긴장을 풀고, 자연과 식물을 관찰하고 즐긴다. 자연환경 속에서의 야외식사는 자연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며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8> 피크닉의 동기

자료: 이양주 외, 피크닉장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2007

(3) 관련된 행락활동

피크닉은 정적인 야외활동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습관적으로 다소 정적인 행락활동과 함께 즐긴다. Dean R. Yoesting은 행락활동군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행락활동군에는 게임, 스포츠, 사냥, 낚시 자연감상, 자동차활동과 도보여행 등의 유형이 있다. 행락군은 행락시설의 개발과 보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행락군 안의 활동에 참여자는 만약 원하는 활동이 없고 다른 것이 이용 가능할 때, 같은 군 안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리라고 예상된다. 이것은 또한 관리자나 계획가는 특정한 행락군에서 다수의 활동을 제공하기보다 각 행락군에서 하나 혹은 최소한의 활동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락활동군의 분류에 따르면, 피크닉은 게임과 스포츠군, 자연감상군과 자동차 활동군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사냥과 낚시군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피크닉 장소의 공간특성

한강공원 내 피크닉 이용자들의 행태 분석 및 선호하는 피크닉 환경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이에 관련된 내용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행태 분석과 설문 조사를 위한 연구 척도를 도출해낸다.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크닉 장소를 다룬 연구를 다뤄야 하겠지만, 국내에 피크닉에 대한 특성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먼저 피크닉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한강공원이 피크닉 장소로써 많이 이용되는 만큼, 한강공원같은 수변공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피크닉 이용자에게 고려될 만한 요소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 후, 수변공간과 도시공원 관련된 이용자 만족도 연구를 고찰하여 공원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설문 조사를 위한 척도를 구성하도록 한다.¹⁷⁾

(1) 피크닉 장소의 결정

선택은 본질적으로 선호에 바탕을 둔 행위이다. 만약 좋아하는 환경이 발견된다면, 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크닉 선택을 알아보기 위해 피크닉 장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양병이(1984)는 피크닉 장소의 결정에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차이점을 보인다고 했다. 또한 피크닉 시설물이 없을 때는 더욱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혔다. 피크닉 장소의 결정과 그 공간적 특성 사이에는 의미 있는 체계가 있고, 피크닉 장소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과정은 공간특성에 좌우된다고 했다. 행락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세 개의 하위구조인,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 행락체계에 대한 개인의 공간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인식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 대하여 많은 정확한 정보를 가진 관광객은 그 지역에 대한 방문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행락자의 의사결정과정은 다음 여섯 단계를 포함한다고 한다. (1) 문제인식, (2) 목표상술, (3) 과정선택, (4) 정보수집, (5) 평가와 선택, (6) 실현이다.

17) 양병이, 앞 논문, pp. 60-63

캠핑장이나 피크닉장소의 방문객은 물과 가까이 있거나 수면이 보이는 장소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개방적이고 풀이 덮여있는 피크닉장소나 수영장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커다란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 숲속의 피크닉장소나 수영할 수 있는 자연개울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으로부터 40마일(약 64km) 이상 되는 거리는 운전하러 하지 않으며, 25마일(약 40km) 정도 떨어진 장소를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주차지역에서부터 400피트(약 122m) 이상으로는 짐을 나르러 하지 않으며, 가장 바람직한 거리는 250피트(약 75m)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 피크닉 가족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35~50피트(약 10~15m)이다.

캠핑장에 대한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피크닉지역에 대한 이용객의 선호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 (1) 화장실의 위치의 거리, (2) 캐노피 커버의 양, (3) 식수와의 접근성, (4) 하목의 양, (5) 시설물의 배치, (6) 지역의 경사도, (7) 지역의 방위이다.

심상덕(1985)은 서울시민의 피크닉 행태와 피크닉 환경의 선호도에 관해 연구를 하였는데, 피크닉 장소 선정 시 고려하는 요소를 조사했다. 시냇물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어서 그들의 유무, 잔디밭, 약간의 운동이 가능한 곳,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중요시했고 탁자나 의자의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크닉 장소는 대부분 나무 밑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 시냇물가와 잔디밭 순으로 많았다.

이양주, 박나영, 서정영(2007)은 경기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피크닉장의 조성모형을 제안하였다. 집에서 너무 멀지 않고, 접근성이 좋아야하며, 먹고 대화하는 공간 이외에도 피크닉 구성원들과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놀거리 장소가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볼만한 자연경관이 있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고, 피크닉장 근처의 지역특산물을 식사 재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크닉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3절.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1. 도시공원의 여가 기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볼 수 있듯, 근린공원이 여가활동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원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가 각각 신설되는 등, 시 차원에서도 공원을 여가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시는 공원을 기존 시설관리 중심에서 시민생활권공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원여가과 신설로 공원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원 역할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¹⁸⁾

공원이 더 많은 물리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이유는 크게 (1) 일상탈출, (2) 관계 강화, (3) 개인적 숙련, (4) 성취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운동같은 동적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숙련이나 성취감의 이유로 시도하는 행위이며, 피크닉처럼 정적인 여가행태는 일상탈출과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강화가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John E. Dillard, 2011).

자연과 접함으로써 얻는 생리적인 이점은 건강을 얻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물리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로 공원과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 활동과 생리적 건강의 이점이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Delene Weber, 2011). 이런 이유로 공원은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장소로 꾸준히 이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여가공간으로서 도시공원 만족도 요인

피크닉은 언제 어디서든 날씨만 좋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제외하고 피크닉을 즐긴다. 피크닉은 대부분 먼 거리보다 가까운 도시공원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이용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 연구를 토대로, 도시공원이 여가 장소로서 가지는 요인

18) 나창호,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 신설”, 『라펜트』, (2014년 2월 21일)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Delene Weber & Dorothy Anderson(2011)은 활동과 환경 선호도에 의해 방문자들의 여가 경험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조사했다. 공원에서 나타난 선호도에 있어 상대적 중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자연을 즐기기, 실외 기후를 즐기기, 개인적·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비슷한 사람들, 가족과의 시간, 물리적 운동, 물리적 휴식, 배움, 사회보장 등이 중요하다고 밝혀졌다.

Xi Y.Leung et al.(2011)는 AHP 기법을 사용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4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의 질, 환경의 질, 상호작용, 결과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시설의 적절성, 활동의 다양성, 환경 호환성, 다른 활동과의 호환이 있고, 환경의 하부요소는 선호되는 환경, 안전성, 편의성, 편안함이 있다. 상호작용에는 서비스 태도, 전문가, 비용이 있고, 결과의 요소에는 경험, 만족도가 있다.

최열, 박현정, 임하경(2011)은 여가행태 및 여가공간에 관한 선호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는 여가활동의 빈도, 접근성, 이용자의 소득정도, 직업이 있다고 했다.

4절. 이용자 행태분석에 대한 고찰

1. 이용자 행태의 정의

인간의 심리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행태’는 무엇이라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행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행태’란 단어와 유사하게 사용되거나 중복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본다.

우선 비슷한 단어 중 ‘Action’은 물리적 움직임을 뜻하는데 행태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행태와 비슷한 의미의 ‘행동’이라 해석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근육) 움직임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동작’의 의미가 강하다.

‘Activity’는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함’ 혹은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운동함’의 뜻인 활동으로 번역되고 있고, 또한 특정행동을 선악 또는 시비의 판단 대상으로 본다는 뜻을 내포함으로 행위라는 단순한 명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Behavior’는 일반적인 행동 자체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행동의 연속적 반응과 패턴을 강조하는 경우 ‘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¹⁹⁾

행태란 위에서 살펴본 단어들의 의미가 시사하듯, 단순히 관찰되는 인간의 행위(Activity)로 반응을 보이며, 그 반응의 내용은 인간의 본능과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환경은 인간에게 대상(Object)에 대한 정보를 자극이라는 감각적 형태를 빌어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인간은 본능과 태도, 가치체계에 의해 행동이라는 반응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연속작용 속에서 유발되는 현상을 환경 현상(Environmental phenomena)이라 한다. 즉 환경현상은 자극과 반응의 연속 현상에 대하여 인간이 취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행태(Behavior)는 단순한 동작이나 행위 자체가 아닌, 일정한 경향을 띠는 현상이다.²⁰⁾

행태를 나타내는 행동들은 <표 2-1>과 같이 정리된다. 사용자 행태를 동적행태(Dynamic Behavior)와 정적행태(Resting Behavior), 행동의 기본유형인 소통행태(Communication Behavior), 에너지원행태(Energy source Behavior)로 분류하여 총

19) 임승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2007, pp. 26-27

20) 양호일, 환경심리·인간행태 디자인 사고에 관한 연구, 1988, p. 17

4가지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표 2-1> 행태를 나타내는 행동 분류

행태		행동	설명
동적행태		놀다 뛰다 걷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구경거리가 되는 다수의 놀이 고정되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움직임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
정적행태		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멈추는 행태는 대개 기능적 본위의 성격을 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공간 및 식재의 장치물 지원 경계에 면한 곳이나 에지(edge)에 분포
		앉다 눕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다양한 활동 공적 환경 속에 앉는 것을 선호-경계면, 편한 좌석
기본 행동 유형	소통 행태	보다 이야기하다 듣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어야함 소리는 몸과 마음의 쾌적성에 있어서 큰 가치가 있음 지인과의 만남은 대화가 발생함 공간의 실제 이용자 요구와 심리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에너지 지원 행태	먹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음식을 섭취 음식(음료)은 인간의 1차적인 욕망 인간의 기분을 조절

자료;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1999, p.157-98

기본적으로 <표 2-1>에서 나타내는 행태들 중에서 피크닉 이용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주로 정적행태와 소통행태 그리고 에너지원 행태이다. 물론, 가족단위의 피크닉 이용자들과 젊은 연령층의 피크닉 이용자들은 가벼운 공놀이나 게임을 함으로써 동적행태를 보이긴 하나 본인들의 피크닉 장소에서 반경 5m 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적행태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어렵다. 주로 앉거나 눕는 정적행태와 대화를 하거나 집에서 만들어오거나 사온 음식을 먹는 행태가 피크닉 행태로 구별될 수 있다.

2. 행태 분석의 필요성 및 관찰 방법²¹⁾

행태 분석의 필요성은 환경과 행태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서 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하는데 있으며 이는 이용자 지향적인 측면에서 파악된 이용자 행태에 대한 정보가 계획이나 설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과 설계가 행태 연구자들 사이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계획과 설계가 기준 지향적이고 종합적이며 일을 실행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했으나, 행태 연구자들은 과정을 중시하면서 분석적이며 지식 취득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들이 인간 행태와 환경의 상호관련성 연구를 방해해온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행태 연구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실제적 환경 속에서의 행태 연구가 주장되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행태의 관찰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일정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며, 이용자 상호간에 어떠한 공간적 사회적 관계성을 지니며 동시에 물리적 환경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관찰한다(Zeisel, 1981).

연구자는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행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다 절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느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행태의 해석이 용이하다. 그러나 행태의 해석이 연구자의 주관에만 너무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보통의 상식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행위자의 행태를 직접 관찰할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동적인 행태를 관찰하는 것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행태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관찰자는 행위자들이 관찰자 자신을 어느 정도 인식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장외에서 눈치 채지 않도록 관찰할 것인가, 자신이 관찰자임을 드러내 놓고 관찰할 것인가, 혹은 현장에 출현하되 관찰자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행동), 혹은 연구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할 것인가(식당 종업원, 행사의 참여 등) 등

21) 김효경, 서울숲의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정적·동적 행태분석, 2010, pp. 26-27

을 연구대상이 되는 행태의 특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임승빈, 2007).

따라서 이상적인 도시공원 설계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이용자의 행태 분석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델은 도시공원이나 이용자들의 행태를 조정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행태를 조사하는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을 통한 직접조사 방법이 효과적이다(김범중, 2004).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은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지역에서 이용객들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수의 넓은 조사대상을 관찰하는데 유리하고, 행위를 비교적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용자 행태 분석 관련 연구

이용자 행태에 관련된 연구는 본 연구 대상지와 같은 도시공원 이용행태를 다룬 선행연구들 위주로 고찰하였다. 최근의 경향을 보고자 5년 이내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크게 설문을 통한 설문조사로 공원 이용자의 행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그리고 설문조사와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표 2-2> 도시공원 이용행태 관련 연구

연도	연구자	제목
2009	김현장	수변형 공원녹지에 대한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조사
2009	유지선	안산시 호수공원 이용특성 및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2010	김효경	서울숲의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정적, 동적 행태분석
2010	강나연	도시 하천공원의 시설물과 공간 구성별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2011	김용운	도시민의 공원이용행태가 공원만족도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3	백준욱	하천생태공원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른 공원시설물 이용패턴과 추적에 관한 연구
2013	정유선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
2014	송지연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 및 만족도 분석
2014	유석연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도시공원 이용행태 관련 연구는 <표 2-2>와 같으며 김현장(2009)과 김용운(2011)의 연구는 설문조사만을 사용한 연구이다. 김현장(2009)은 대구 수변형 공원의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김용운(2011)은 기존 문헌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근린공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거주구 공원의 실태 및 행태를 분석하여 도시민의 공원이용이 여가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유지선(2009)의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한 연구이다. 유지선(2009)은 예비조사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경향 및 문제점을 도출한 뒤 실제 공원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용특성과 시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였다. 경향 및 문제점은 예비조사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고 이용특성은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강나연(2010)은 부산에 조성된 도시하천 공원 중 3년 이상 경과한 인지도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와 공무원 인터뷰, 시민의 설문, 실제 이용자의 행태 관찰을 통하여 선호도를 분석한 뒤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앞 유지선(2009)의 연구와 같으나 관찰조사를 병행한 점이 차별되는 점이다.

김효경(2010)의 연구는 이용자와 도시공원 설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공간구성에 따른 이용자 행태를 관찰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행태지도를 작성하여 행태분석을 하였고 이를 격자망으로 표현하여 정적행태와 동적행태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백준욱(2013)의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이용행태와 시설물 요소를 선정하고 대상지의 현황에 맞추어 요소를 보완한 후 설문조사와 추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추적조사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과는 다른 시도로 공원을 이용하는 각각의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인당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집단의 타당성 측면에서 신뢰도와 객관성이 적고 표본 수를 많이 수집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유선(2013)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의 종묘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떤 요소들이 노인들을 공원에 더 자주 찾아오게 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지 현장

관찰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규명하였다. 공원 내의 노인 이용자들의 행태 뿐 만 아니라 공원 외부의 이용행태까지 함께 분석한 것이 타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송지연(2014)은 한강시민공원 중 한강르네상스 1차 사업 대상지였던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 권역의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각 권역의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1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사계절의 특징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설문 및 관찰조사기간이 타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유석연(2014)은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성곽-근린환경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서울성곽의 주변부 거주자와 방문객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행태와 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다른 조사방법을 병행하는 다중방법(Multiple method)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으로 관리 공무원이나 설계자의 인터뷰, 관찰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제3장 분석의 틀

1절 연구의 개념 및 가설 설정

1. 연구의 개념

본 연구는 ‘피크닉 장소-이용자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1) 인구통계학적 구성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을 피크닉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 (2) 이용행태, (3) 물리적 환경, (4) 피크닉 이용자의 만족도 등. 즉, 어떠한 특성의 이용자가 여의도 한강공원 내 어느 공간을 점유하여 피크닉을 즐기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 피크닉 이용자가 특정 행태를 보이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피크닉을 온 이용자가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 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방향을 잡기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 성별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2 : 연령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3 : 직업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4 : 거주지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 이용자의 교통수단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2 : 이용자의 피크닉 동반자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3 : 이용자의 방문빈도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4 : 이용자의 피크닉 이용시간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 피크닉 동기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 피크닉 장소에 따라 피크닉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절 연구 방법

1.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

피크닉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피크닉의 행위가 이동이 적은, 한 지점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선택(exploratory choice) 행위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루 공원 이용시간을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등 다섯 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행태지도를 작성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크닉 이용객의 행태를 살펴보았다.

<표 3-1> 이용자 행태 관찰 요소

행태지도작성법 (Behavior Mapping)	
관찰 요소	설정 이유
이용자 형태	관찰된 이용자 장소 점유행태의 유형분류를 위한 정보
발생 빈도수	공간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피크닉 행태 발생 빈도 측정
참여그룹의 수	각 행태 별 참여그룹 수의 측정
물리적 환경	피크닉 행태를 지원해 주는 물리적 요소로 앉을 수 있는 자원, 그늘을 만들어주는 자원, 위요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자원 등
발생 장소(위치)	여의도 한강공원의 공간 분류에 따라 행태가 발생하는 특정위치로 활동 밀도 및 장소 밀도 분석

본 연구는 공원의 공간 분류에 따라 피크닉 행태가 발생하는 공간을 밝히고, 오픈스페이스 공간에서 일어나는 피크닉 행태와 공간 구성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조사 이전에 대상지의 물리적 시설물 및 오픈스페이스의 분포 현황은 대상지의 실시설계도면 및 인공위성사진 등으로 기본 조사·분석하고, 2014년 4월 2일, 4월 18~19일, 4월 25일에 선행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행태지도 작성 대상지는 서강대교 부근에서 원효대교까지의 여의도 한강공원 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는 선행조사 시, 대부분의 피크닉 행태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행태지도 작성은 피크닉 행태를 보이는 그룹 단위별로 표시하였으며, 어느 공간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며 피크닉을 즐기는지 표시하였고, 텐트와 돛자리의 유무도 표시하였다. 또한 계절별 피크닉의 행태가 다를 것이라 예상되어 봄과 여름으로 조사 기간을 설정하였다. 춘절기의 행태지도 분석을 위한 조사는 2014년 5월 3일부터 5월 5일, 5월 14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20일, 5월 23일 총 8일(주중 4일, 주말 4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행태지도 분석의 전체 조사는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현장 행태관찰 일정은 <표 3-2>과 같다.

<표 3-2> 춘절기 행태 조사 날짜와 시간대

조사 날짜	기온(최저~최고)	시간대
5월 3일 토	8 ℃ ~ 19 ℃	오전, 점심, 오후, 저녁
5월 4일 일	9 ℃ ~ 21 ℃	점심, 오후
5월 5일 월(공휴일)	7 ℃ ~ 16 ℃	오전, 저녁, 밤
5월 14일 수	15 ℃ ~ 26 ℃	오전, 점심, 오후
5월 16일 금	12 ℃ ~ 26 ℃	점심, 오후, 저녁, 밤
5월 17일 토	14 ℃ ~ 26 ℃	오전, 점심
5월 20일 화	16 ℃ ~ 28 ℃	오후, 저녁, 밤
5월 23일 금	18 ℃ ~ 28 ℃	오전, 점심

하절기의 피크닉 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현장 조사는 2014년 6월 24일, 6월 25일, 6월 27일, 6월 29일, 7월 1일과 7월 5일 총 7일(주중 4일, 주말 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관찰 날짜와 시간대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하절기 행태 조사 날짜와 시간대

조사 날짜	기온(최저~최고)	시간대
6월 24일 화	19 ℃ ~ 27 ℃	오전, 점심, 오후, 저녁
6월 25일 수	20 ℃ ~ 29 ℃	오후, 저녁, 밤
6월 27일 금	21 ℃ ~ 30 ℃	오전, 점심, 오후
6월 28일 토	21 ℃ ~ 28 ℃	오후, 저녁, 밤
6월 29일 일	21 ℃ ~ 30 ℃	오전, 점심, 오후, 저녁
7월 1일 화	21 ℃ ~ 31 ℃	저녁, 밤
7월 5일 토	22 ℃ ~ 30 ℃	오전, 점심, 밤

춘절기에 조사를 진행한 날은 대부분 낮 기온은 20 ℃ 전후이거나 25 ℃ 이상으로 피크닉을 하기에 적합한 기온이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17 ℃ 이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다소 심한 날이 많았다. 하절기에 조사를 진행한 날의 최저 기온은 약 20 ℃ 전후이고, 최고 30 ℃ 전후의 더운 날씨가 많았다.

2. 조사 설계

(1) 표본설계와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대상 및 표본설계는 <표 3-4>과 같다. 설문조사는 춘절기 2014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하절기 2014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한 피크닉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춘절기, 하절기 각 180부를 배포하며 360부가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350부를 유효부수로서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4〉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표본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
표본의 크기	360부(춘절기 180부, 하절기 180부)
유효표본	350부(춘절기 179부, 하절기 171부)
조사기간	2014년 5월 3일~2014년 5월 5일 2014년 6월 28일~2014년 6월 29일
조사장소	여의도 한강공원(서강대교~원효대교 구간)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인구 통계학적 문항, 이용자 행태 특성, 피크닉 동기, 피크닉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문항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 행태 특성에 관한 문항은 대상지에 방문할 시 이용한 교통수단, 함께 온 피크닉 동반자,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빈도, 그리고 피크닉을 하는 공원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피크닉 동기에 대한 문항의 구성내용은 Delene Weber & Dorothy Anderson(2011), John E. Dillard & Donald L. Bates(2011), 김민형 외(2012), 오상훈 외(2012), 채진해 외(2013), 조경진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피크닉을 한 이후의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본 설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 항목	척도	선행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성별	명목척도	오상훈, 이유라(2012) 채진해 외(2013) 조경진 외(2014)
	연령		
	직업		
	거주지		
이용자 행태 (5)	교통수단		김민형 외(2012) 오상훈 외(2012) 채진해 외(2013) 조경진 외(2014)
	방문빈도		
	동반자 유형		
	이용시간		
	이용용품		
피크닉 동기 (13)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리커트 척도	Mill and Morrison(1985) Uysal and Hagan (1993) Land and O'Leary (1997) Weber and Anderson (2011) Dillard and Bates (2011) 김우혁 외(2010) 오상훈, 이유라(2012) 조경진 외(2014)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한강 경관을 즐기기 위해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문화 공연을 보기 위해		
	특별 이벤트·축제 참여를 위해		
	물놀이(수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한강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휴식을 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하기 위해		
피크닉 만족도 (1)	피크닉 만족도		김우혁 외(2010) 오상훈, 이유라(2012) 조경진 외(2014)

(3) 분석 방법

조사 자료에 의한 분석방법은 SPSS ver 21.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6>.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검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료일 때, 적용하는 검정방식이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독립변수가 범주형 자료, 종속변수가 연속형 자료일 때 적용하는 검정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두 변수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유의확률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두 변수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통계검정 방식

검정 내용	가설	검정 방식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의 차이	H1	카이제곱 검정 ANOVA 분석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의 차이	H2	
피크닉 장소에 따른 피크닉 동기의 차이	H3	
피크닉 장소에 따른 피크닉 만족도의 차이	H4	

3절 조사 대상지 일반적 특성

<표 3-7> 여의도 한강공원의 현황 및 특성

여의도 한강공원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면적		약 785,000㎡	
길이		약 3.5km (샛강 제외)	
사업기간		2008.8.25 ~ 2009.9.24	
사업비		885억 원	
테마		고품격 국제문화공간	
용도 및 지원	주변지역용 도	일반상업지역 금융/업무지역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	공원이용이 일부구간에 편중됨 대부분 제내지 이용시민(63빌딩, 국회의사당 등)이 주차장으로 사용	
	주변자원	여의도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0m)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약 1,000m)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약 700m), 샛강역 (약 1,000m)
		버스	여의나루역, 여의도공원, 순복음교회, 여의도중학교 (20m)
	접근시설		도로진출입로 (14), 육갑문 (1), 계단 (14)
	보행 및 자전거 접근 동선		총 24개소 (계단 및 나들목)
	주차장		총 5개소 (주차대수 : 3,441대)
	시설 및 배치현황		행사가 없는 평시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됨 체육시설의 이용이 낮음 대부분 제내지 이용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여 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함
특화시설물		물빛광장, 수상무대, 너른들판, 캐스케이드, 피아노물길, 친수형스탠드, 자연형호안, 서울색공원, 요트마리나, 계절광장, 빛의 폭포, 빛의 카페 등	
프로그램		윤중로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 등 서울시 대규모 축제 및 행사 물빛무대 : 공연, 행사개최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강공원특화사업’의 대상지 중 하나로, 고품격 국제 문화공간이라는 테마로 2009년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국제 업무지구라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축제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더불어 직장인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한강공원 12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이용자가 찾는 곳이다. 특화공간인 물빛광장은 여의도 공원 나들목 진입부에서 한강까지 이어주어 접근성을 강화시켰고, 플로팅 스테이지(수상무대)는 각종 문화공연이 가능한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콘크리트 호안을 테라스형 호안으로 바꿈으로써 시민들이 한강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 여의도 한강공원 - 친수형 테라스, 물빛광장

자료 : 한강공원 사업본부, <http://hangang.seoul.go.kr>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의도 한강공원은 가장 넓은 잔디밭을 보유하고 있어 피크닉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²²⁾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대가족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많이 존재한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의 ‘페스티벌 스탠드’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밤섬과 한강의 조망이 가능한 공간이다. 나무 데크가 긴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돛자리를 가져오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크닉을 즐기기 용이한 곳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장 넓은 잔디밭인 ‘너른 들판’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야외 응원전 등이 열릴 정도로 대규모 공간이다. 우리나라 최초 비행장을 콘셉트로 구성되어 비행기를 형상화한 조각품, 바람자루, 안내사인 등을

22) 강종민 외, “[두 남자의 데이트코스] 한강 요트 타기 부담 없어요~”, 『노컷뉴스』 (2013년 6월 1일)

볼 수 있으며 매점과 가까운 곳이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바로 연결되는 ‘멀티 플라자’와 ‘이벤트플라자’도 여의도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녹지이다. 서울시계 내 한강을 축소한 ‘피아노 물길’과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여의나루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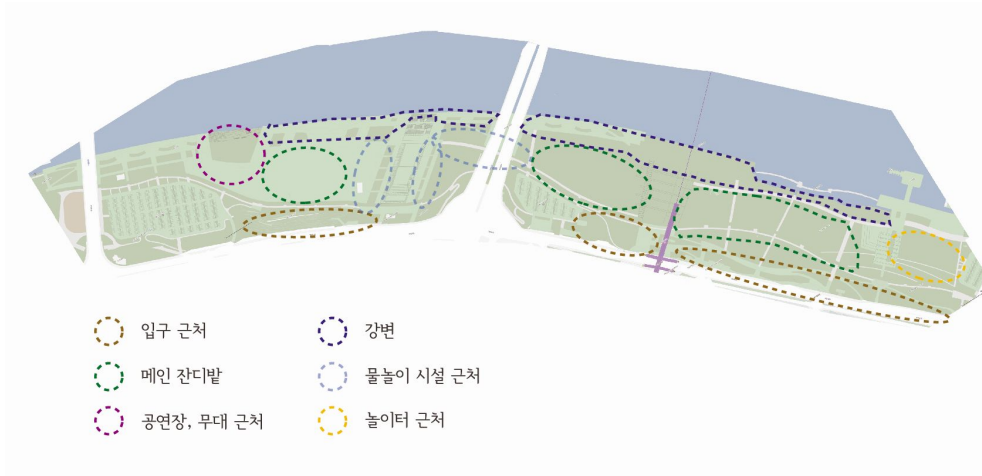
원효대교 남단의 ‘계절 광장’과 ‘녹음수 광장’ 역시 넓은 잔디밭이며 자전거 대여소가 가깝고 매시간 출항하는 유람선을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이곳이다. 여의도 나들목과 연결되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한강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친수형 스탠드와 호안이 강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시에서 2012년에 조사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서 다른 한강공원들에 비해 접근성과 조경 및 경관 차원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편리성, 생태 및 환경의 측면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접근성의 높은 만족도는 여의나루 지하철역이 한강공원 입구에 바로 연결되며, 여의도 나들목과 여의도 공원과 이어짐은 물론, 도로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 편리성이 다소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난 데 비해 조경 및 경관이 높다는 것은 다른 동적 행태보다도 피크닉으로 대표되는 정적 행태가 더 많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9월 개장한 여의도 한강공원은 2013년에 24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았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여가공간으로 한강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며 도심 속에서 보기 힘든 탁 트인 수변공간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중교통으로의 접근도 용이해서 거주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서울의 대표적 오픈스페이스로써 그 가치를 지닌다.

4절 조사 대상지의 공간 분류



<그림 3-2> 여의도 한강공원 공간 분류

본 현장조사에 앞서 진행한 선행조사 결과(2014년 4월 2일, 4월 18~19일, 4월 25일), 여의도 한강공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한강변 쪽과 진입로 쪽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이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호안 구역, 가운데 주요 녹지구역, 진입로 부근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날은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가 열린 기간이었으며 기온이 피크닉하기 적당한 정도의 날씨여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많은 피크닉 이용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행조사 때 관찰결과와 여의도 한강공원 실시설계 내용 및 도면에 나온 공간구성 부분을 참고로 하여 6가지 구역으로 나누었다. 한강변 부근은 전체적인 친수형 호안과 수변무대 앞의 공간이 있어 두 구역으로 나누었고, 가운데 주요 녹지 공간은 넓은 잔디밭, 캐스케이드(물빛 광장)와 피아노길 등 수변특화시설 인접공간, 그리고 모래밭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으로 나누었다. 계단 형태인 ‘페스티벌 스탠드’가 있는 진입로 인접 구역에서도 많은 피크닉 이용객이 있었는데, 이 구역은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돛자리나 텐트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진입공간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진입공간이라 함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다양한 진입로와 인접한 녹지와 계단 등을 말하는 곳이다. 여의나루 지하철역 출구와 인접한 입구 쪽 뿐만 아니라 여의 나들목, 여의도 공원과 이어지는 입구, 그리고 마포대교 서쪽으로 위치한 윤중로에서 이어지는 입구인 페스티벌 스탠드도 진입공간으로 분류된다.

진입로 부근 근처의 녹지에는 대부분 많은 수목이 위치해 있어 그늘진 공간이 많이 있는 편이다. 페스티벌 스탠드는 진입로인 동시에 스탠드형 쉼터로서 기능하고 있다.

<표 3-8> 진입공간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공간 구성	페스티벌 스탠드, 편의점, 여의나루역 입구	

2. 놀이터 공간

놀이터 공간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녹음수 광장 서쪽에 위치해 있다. 놀이터는 고무재질의 바닥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다. 놀이터 주변으로 녹지가 위치하여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다. 놀이시설로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이 있으며 자전거 대여소가 인접해 있다.

〈표 3-9〉 놀이터 공간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공간 구성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대여소, 녹음수 광장	

3. 중심녹지공간

중심녹지공간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한강변 녹지와 진입로와 인접한 녹지를 제외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다. 2곳의 편의점과 5곳의 화장실을 제외하면 특별한 시설이 없고, 대부분이 잔디밭으로 되어 있다. 많은 수목이 심겨 있어,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그늘 공간이 고르게 퍼져 있다. 이벤트 플라자와 녹음수 광장은 녹지가 아니지만, 광장 내에 작은 녹지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공원 이용자들이 피크닉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다.

<표 3-10> 중심녹지공간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공간 구성	<p>너른 들판, 멀티 플라자, 이벤트 플라자, 계절 광장, 편의점, 화장실</p>	

4. 수변 시설 인접 공간

본 연구에서 분류된 수변 시설 인접공간이라 함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위치한 수변 시설에 인접한 공간들을 말한다. 수변시설은 캐스케이드(바닥분수)가 대표적이며, 캐스케이드에서 마포대교를 넘어 이벤트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피아노 물길’도 수변 시설로 분류된다.

캐스케이드는 여의도 공원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주는 공간으로 마치 캐스케이드의 물과 한강이 연결된 것처럼 느끼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린 이용객들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캐스케이드 옆으로는 데크가 깔려 있어 이용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11〉 수변시설 인접 공간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공간 구성	캐스케이드, 피아노길, 수피아 수영장, 빛의 카페	

5. 한강변 공간

한강변 공간은 서강대교부터 원효대교 구간에서 수상무대 인접공간을 제외한 한강과 인접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녹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계단과 데크로 구성되어 있다. 원효대교의 서쪽으로 유람선과 레스토랑, 카페가 위치해 있다. 가끔씩 이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많은 이용객들이 계단이나 한강변과 인접한 녹지에서 행사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한다.







<표 3-12> 한강변 공간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자연형 호안, 수변보행 브릿지, 잔디마당, 노들 레스토랑, 진성마루, 서울색 공원	
공간 구성		

6. 수변무대공간

수변무대공간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대표하는 시설 중 하나인 플로팅 스테이지와 인접한 공간으로 계단과 플로팅 스테이지 앞쪽에 위치한 녹지까지 포함하는 곳이다. 수변무대는 평소에 닫혀있고, 공연할 시 여는 시설로, 이용객들이 무대 앞 계단과 녹지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공연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공연날짜와 시간을 공지한다. 공연의 유무와 관계없이 야간시간에는 무대 건물에서 화려한 조명을 켜놓아 이용자들의 이목을 끈다.

<표 3-13> 무대 인접 공간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공간 구성	
	플로팅 스테이지, 그네	

제 4장 피크닉 행태 및 결정요인 분석결과

1절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1) 여의도 한강공원 주중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1) 평일 오전의 피크닉 이용행태

평일 오전에는 이용자들이 적은 편으로 진입공간과 중심녹지공간, 한강변 공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놀이터나 수변무대 인접공간은 이용하지 않으며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

피크닉 행태를 살펴보면 텐트를 친 그룹이 있지만, 대부분이 돛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거나 벤치나 계단 혹은 잔디밭에 앉아서 피크닉을 이용하고 있다.

오전 피크닉 이용자들은 대부분 나무 밑이나 그늘막 밑에 있는 벤치에 위치하였으며, 그늘이 없는 곳은 대체로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오전부터 서강대교, 마포대교 등 다리 밑의 벤치나 계단, 평상 위에서 피크닉을 하는 이용자들을 볼 수 있다.

오전의 피크닉 행태를 보면 주로 먹거나 대화하는 이용객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강의 경관을 감상하거나 누워서 쉬는 사람들도 있다. 수변시설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물장구를 치는 이용객들도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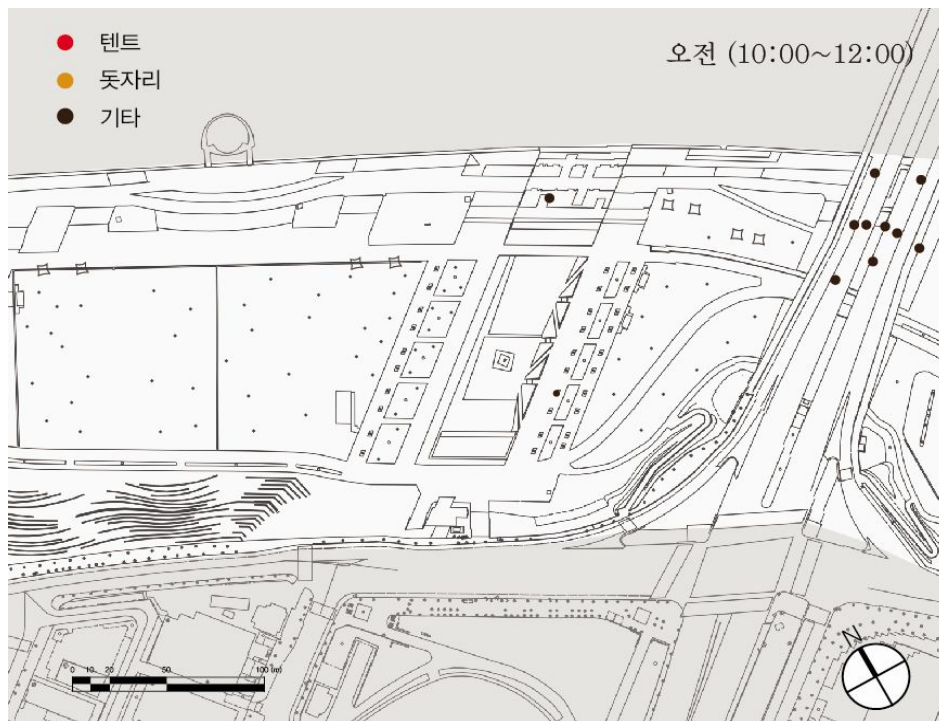
작성된 평일 오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 그룹들을 수치화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평일 오전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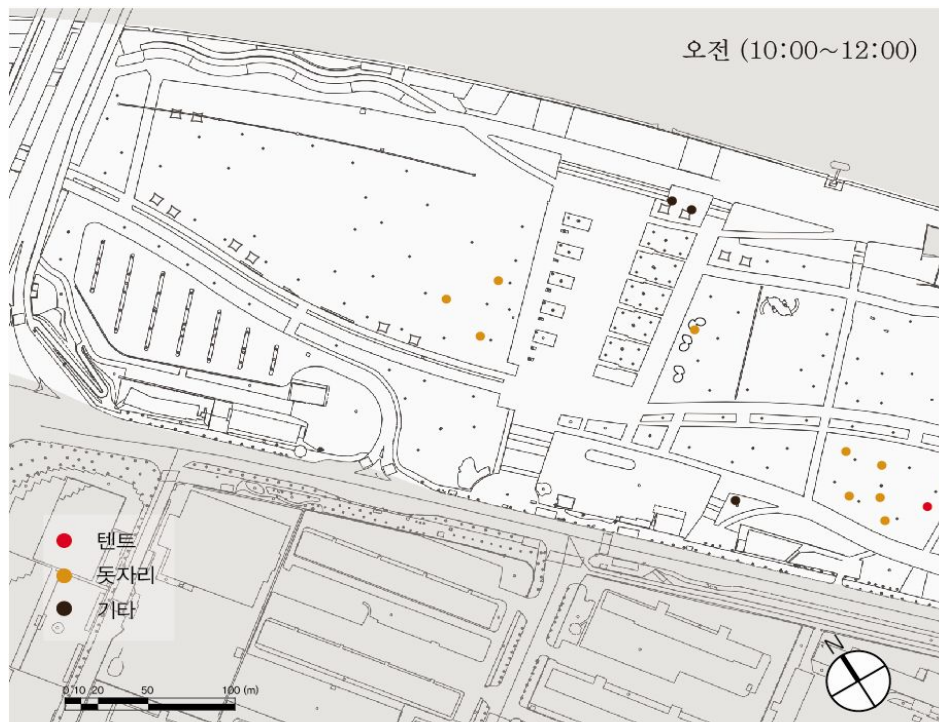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9	0	10	4	13	0	16	8	10	2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2	9	0	15	5	5	1	15	2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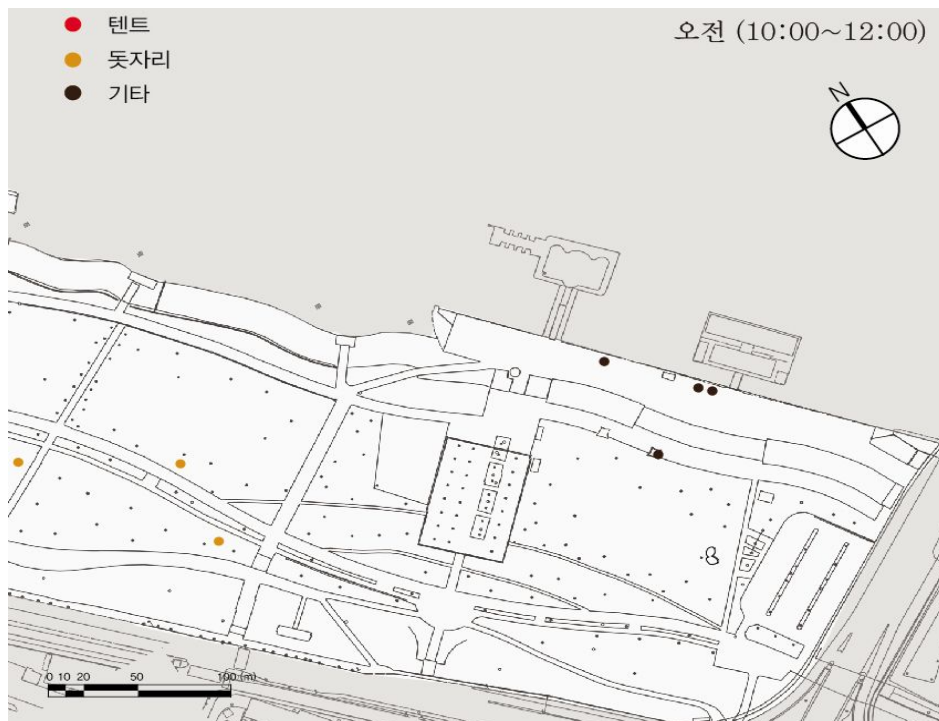
<그림 4-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3>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구간 I)



<그림 4-4>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구간 II)

2) 평일 점심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평일 점심 시간대의 행태를 살펴보면, 중심녹지공간에 반 이상의 이용객이 자리를 잡고 피크닉을 즐긴다. 한강변 공간에도 20~30%의 이용객들이 위치하여 공원 이용을 하고 있다. 수변시설 인접공간과 놀이터, 무대 인접공간은 이용이 적었다.

텐트나 돛자리를 가져온 이용객들도 오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다른 피크닉 용품 없이 벤치나 계단에 앉거나 잔디밭에 바로 앉아 피크닉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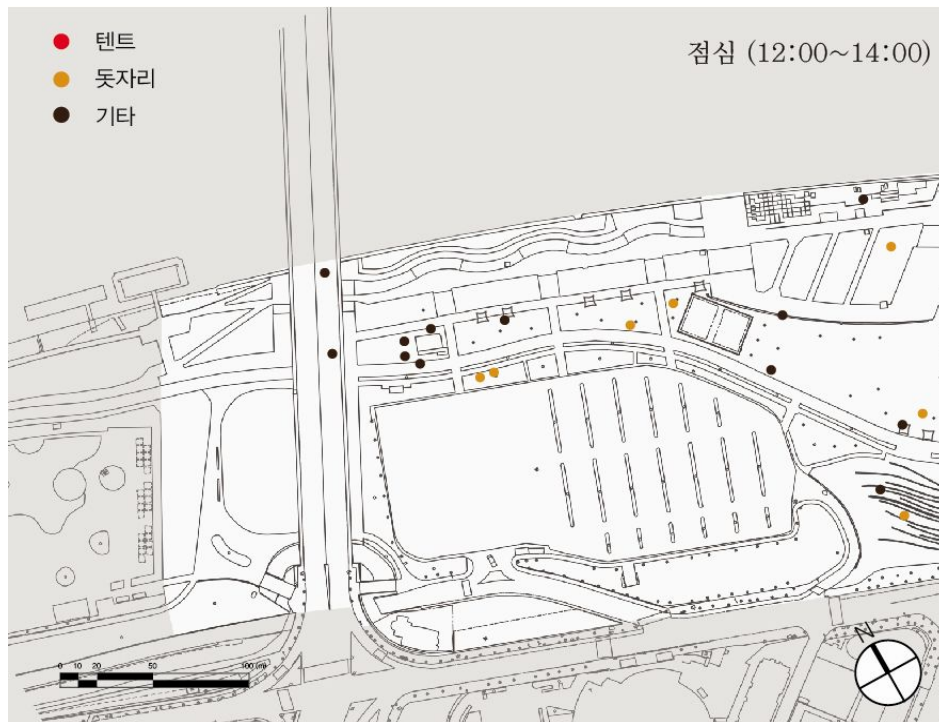
오전에 비하여 그늘 없는 곳에 앉아있는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그래도 나무 밑과 그늘막 밑에서 앉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인다. 다리 밑에서 햇빛을 피하는 이용객들도 증가하였다.

평일 점심 시간대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의 직장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한강공원으로 와서 돛자리를 깔고 동료들끼리 식사를 하고 대화 및 휴식을 하는 행태가 많이 발견된다. 직장인들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경관 감상과 독서를 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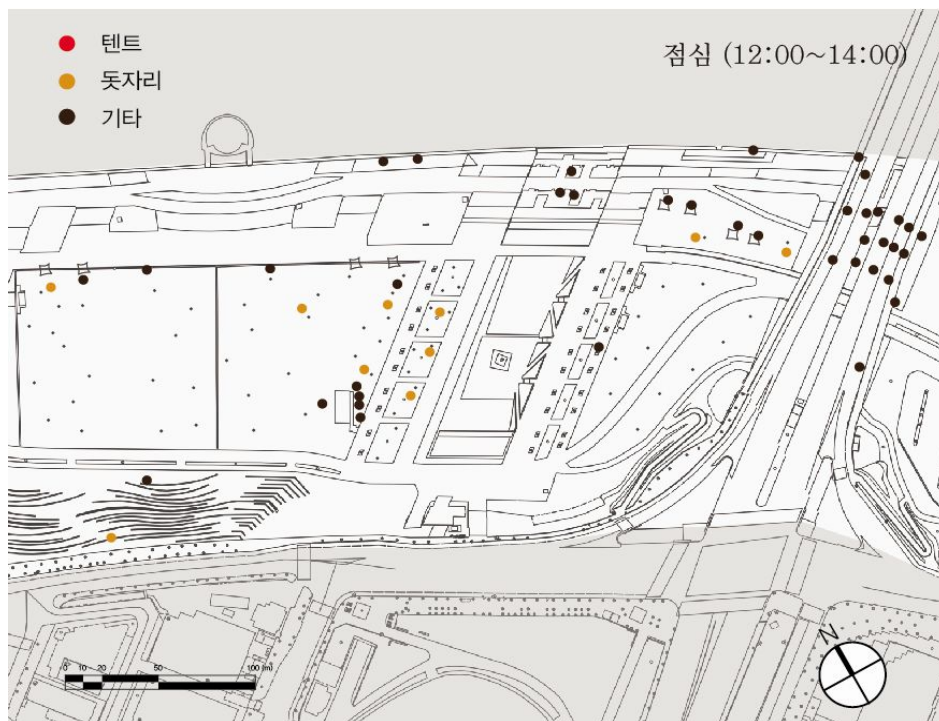
평일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 그룹을 수치화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평일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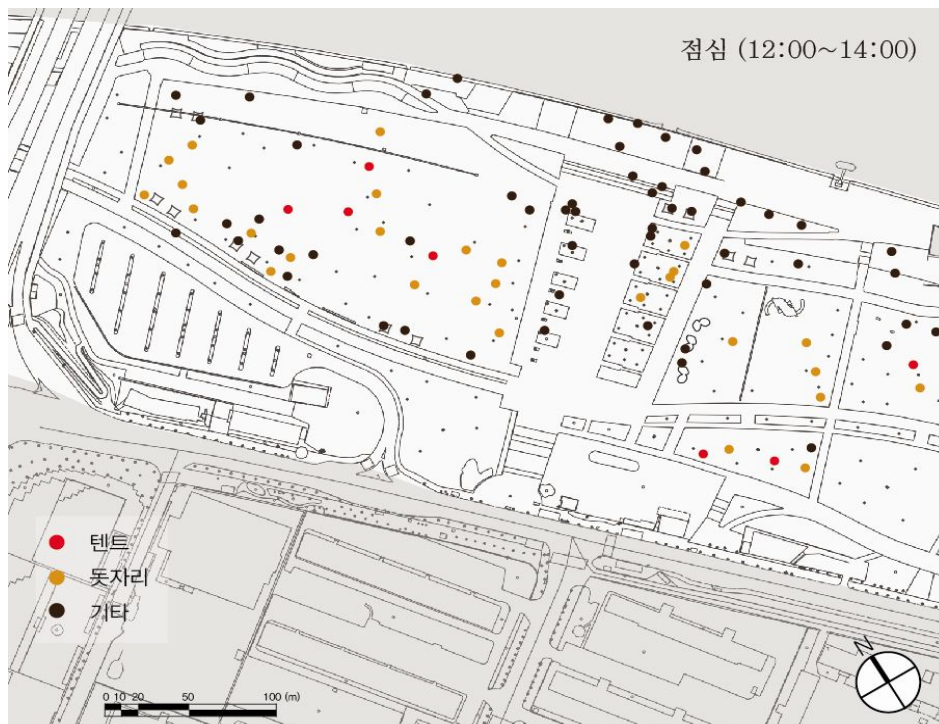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4	3	103	15	57	4	69	43	20	64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8	49	12	89	30	8	9	51	136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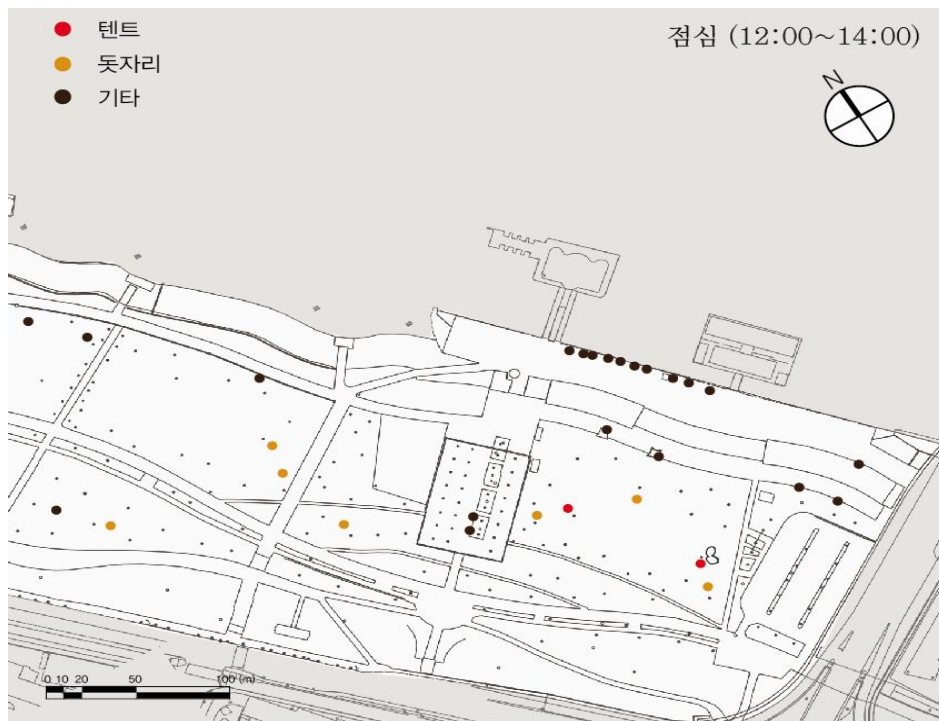
<그림 4-5>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구간 I)



<그림 4-6>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구간 II)



<그림 4-7>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구간 I)



<그림 4-8>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구간 II)

3) 평일 오후의 피크닉 이용행태

평일 오후에는 점심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피크닉 이용객들이 공원을 이용한다. 반 이상의 이용객들이 중심녹지공간에 자리를 잡았고, 한강변과 진입공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치하여 피크닉을 즐긴다. 수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였으나 놀이터 공간과 무대 인접 공간은 여전히 이용자가 적다.

텐트와 돛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피크닉 용품 없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증가하였으나, 텐트 이용객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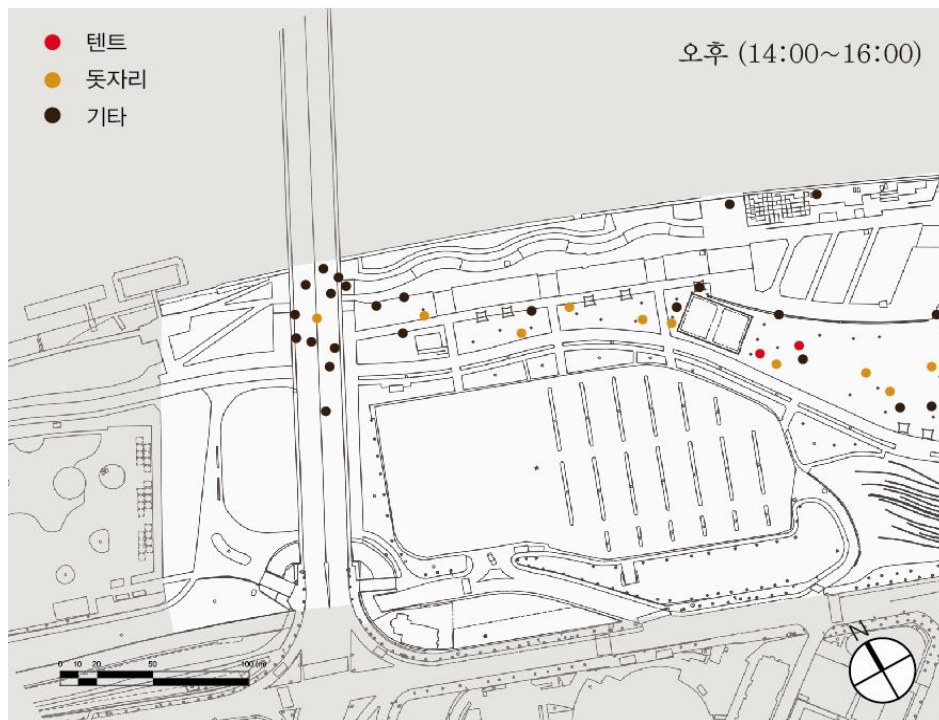
오후 시간대에 햇빛이 더 강해지고 기온이 더 올라가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 밑의 장소를 우선적으로 점유하였다. 그늘막 밑 벤치에 앉은 사람들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리 밑에서 그늘을 피하는 그룹의 수는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오후 시간대에는 점심보다 먹는 행위는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두 번째로 많이 보이고, 수변 시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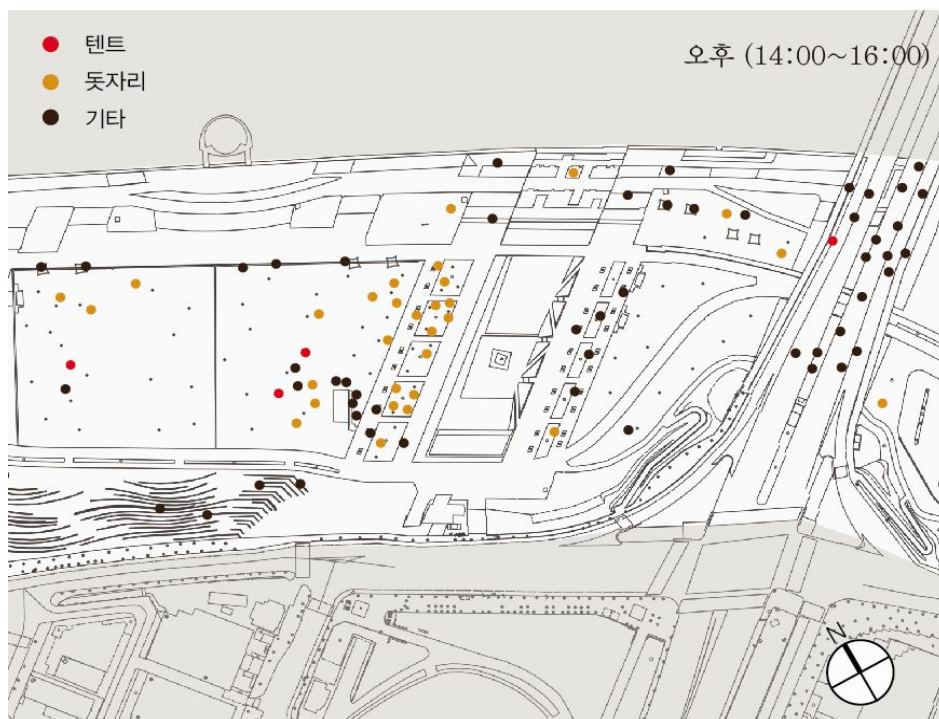
평일 오후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 그룹을 수치화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평일 오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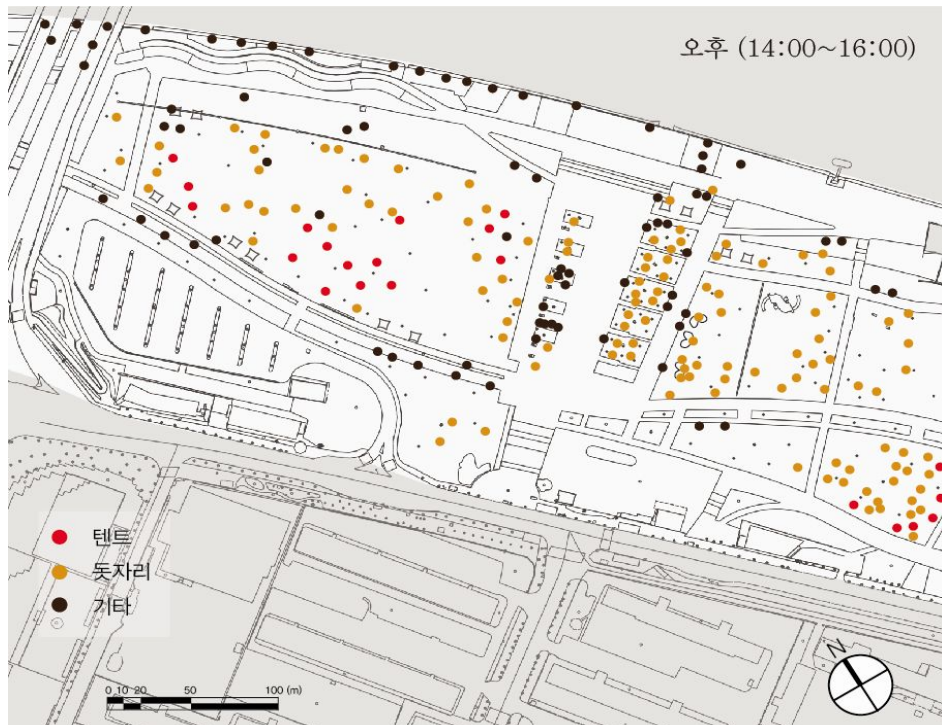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65	7	229	33	82	7	289	27	75	32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52	185	9	61	28	88	32	216	175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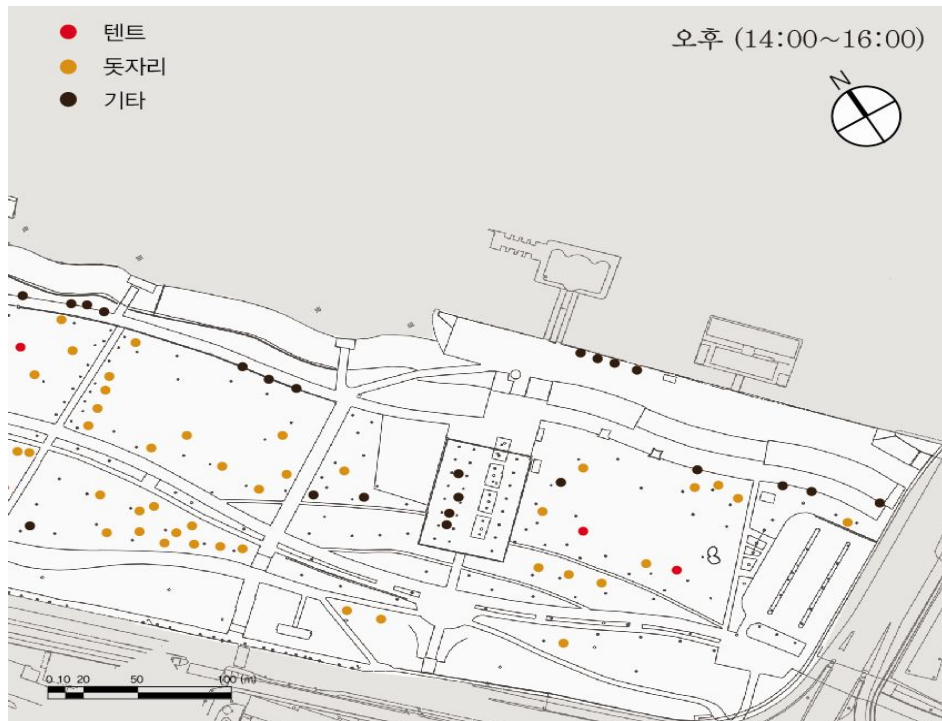
<그림 4-9>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구간 I)



<그림 4-1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I)



<그림 4-1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1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4) 평일 저녁의 피크닉 이용행태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오후 시간대보다 중심녹지공간에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자리를 잡고 피크닉을 즐기고, 한강변 공간에도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한다. 수변시설 인접공간과 놀이터, 무대 인접공간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진입공간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텐트 이용자는 오후와 변화가 없고, 피크닉 용품이 없는 이용 그룹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돛자리를 가져온 이용자는 오후 시간대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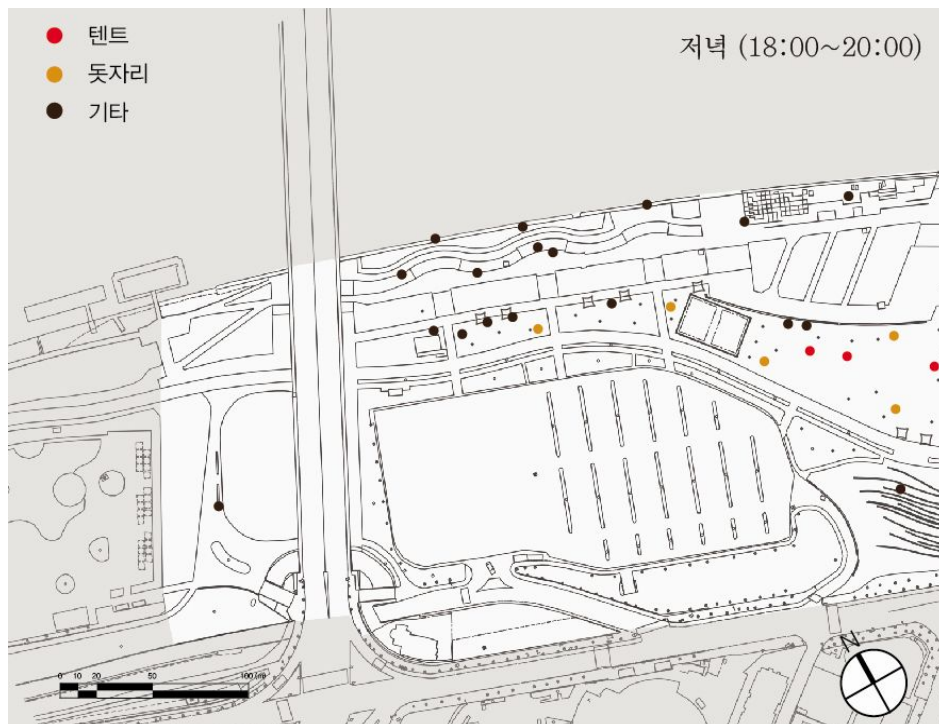
저녁 시간대에 해가 지면서 나무 밑에 위치한 이용자들은 감소하며, 그늘 없는 곳의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햇빛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지면서 나무 밑 장소를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녁 시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먹는 행태가 가장 많아진다. 해가 지면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워서 쉬는 이용객들도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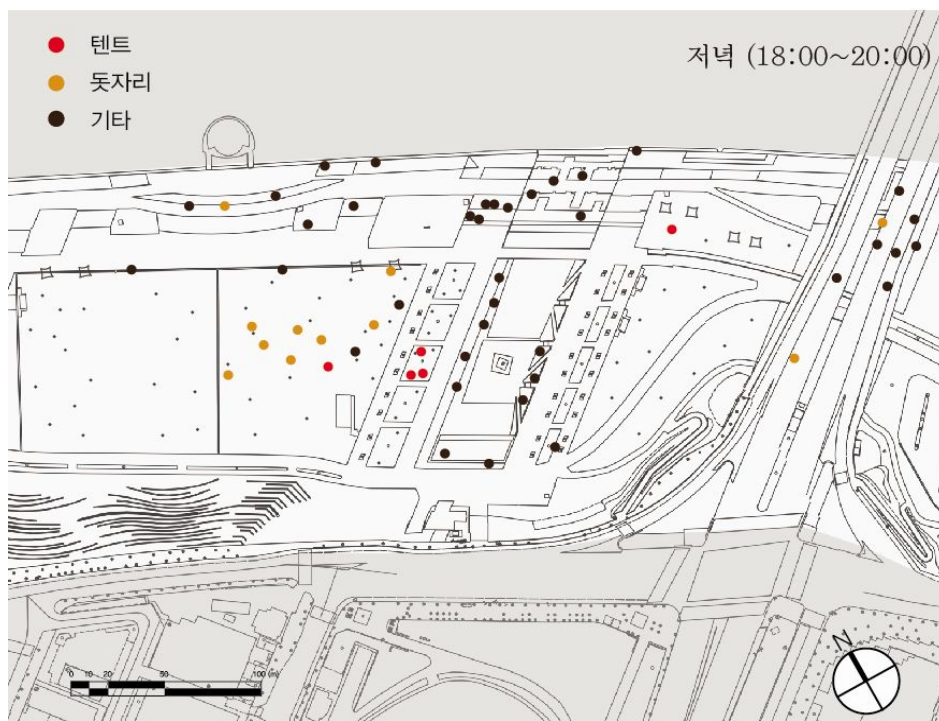
평일 저녁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피크닉 이용 그룹을 수치화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평일 저녁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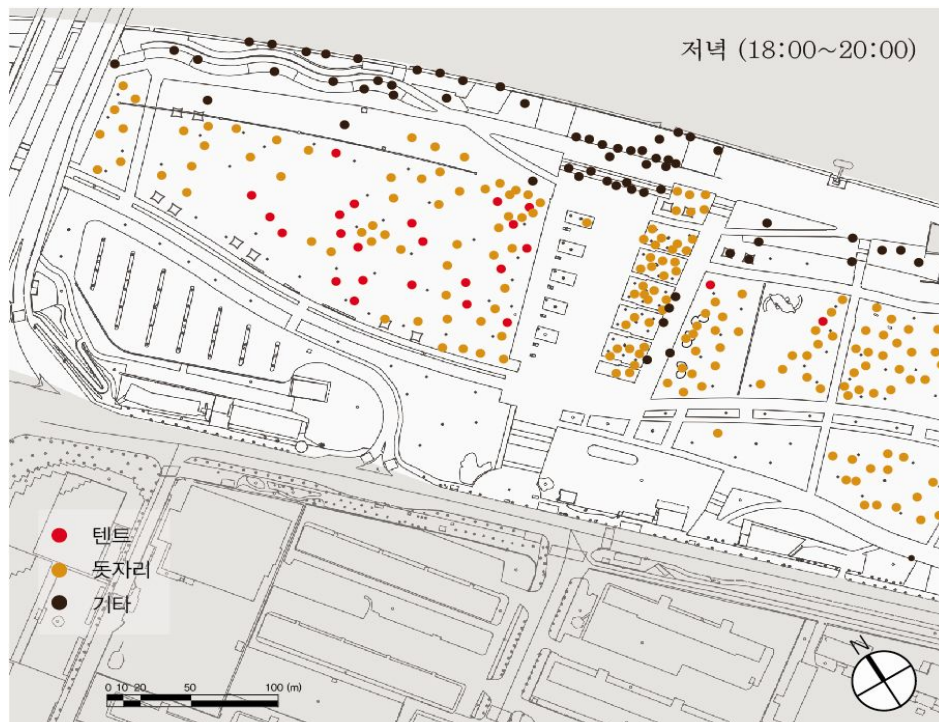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29	4	255	30	135	15	245	38	175	10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6	97	14	272	25	44	32	275	161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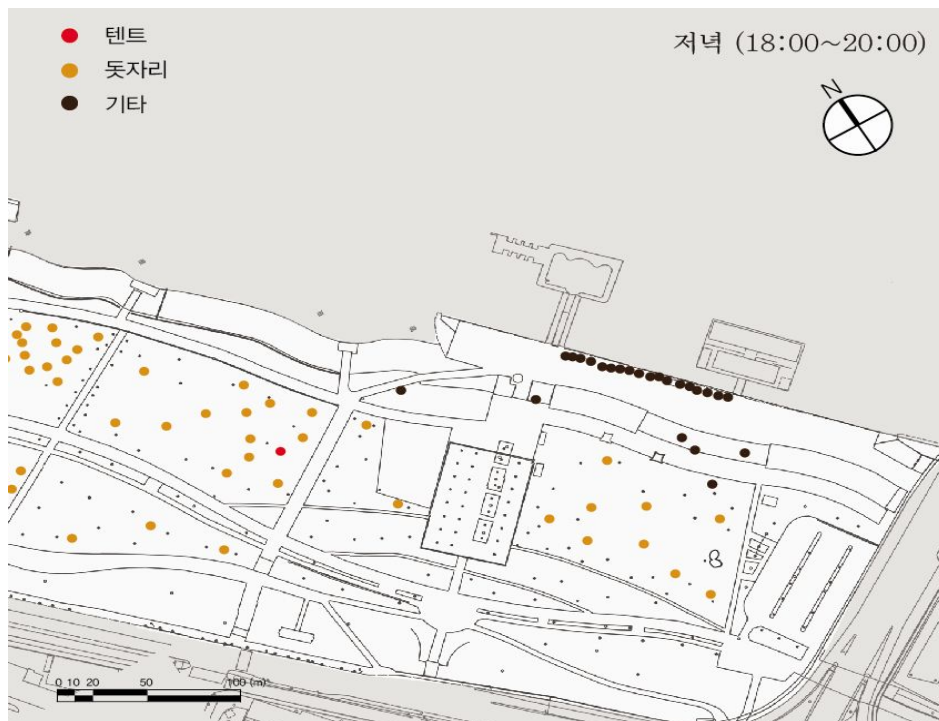
<그림 4-1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



<그림 4-1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 II)



<그림 4-1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1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5) 평일 밤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평일 밤 시간대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여전히 중심녹지공간에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자리를 잡았고, 한강변 공간에는 오히려 저녁 시간대보다 다소 증가하는 수치를 보인다. 무대 인접공간의 이용자 수도 다소 증가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야간 시간대에는 한강과 가까운 공간에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텐트와 돛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소 감소하며, 아무 피크닉 용품이 없는 이용자들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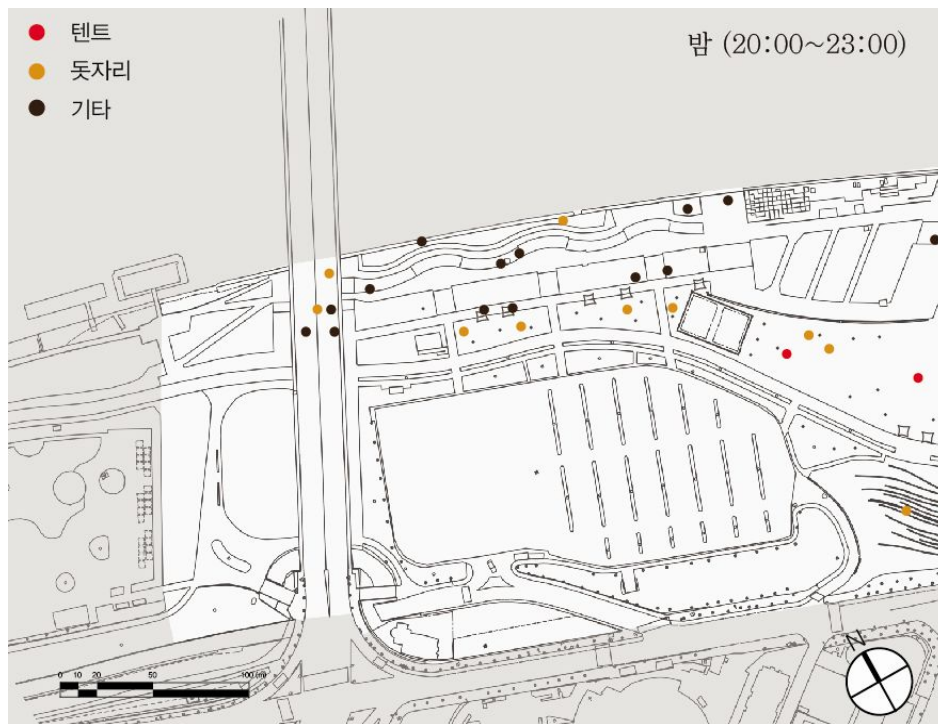
나무 밑에 위치한 이용자들이 대폭 감소하며, 나무나 그늘막이 없는 곳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밤 시간대에도 먹는 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식사라기보다 주로 술과 안주를 먹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조용히 대화를 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며 나머지 행태를 보이는 이용자들은 많이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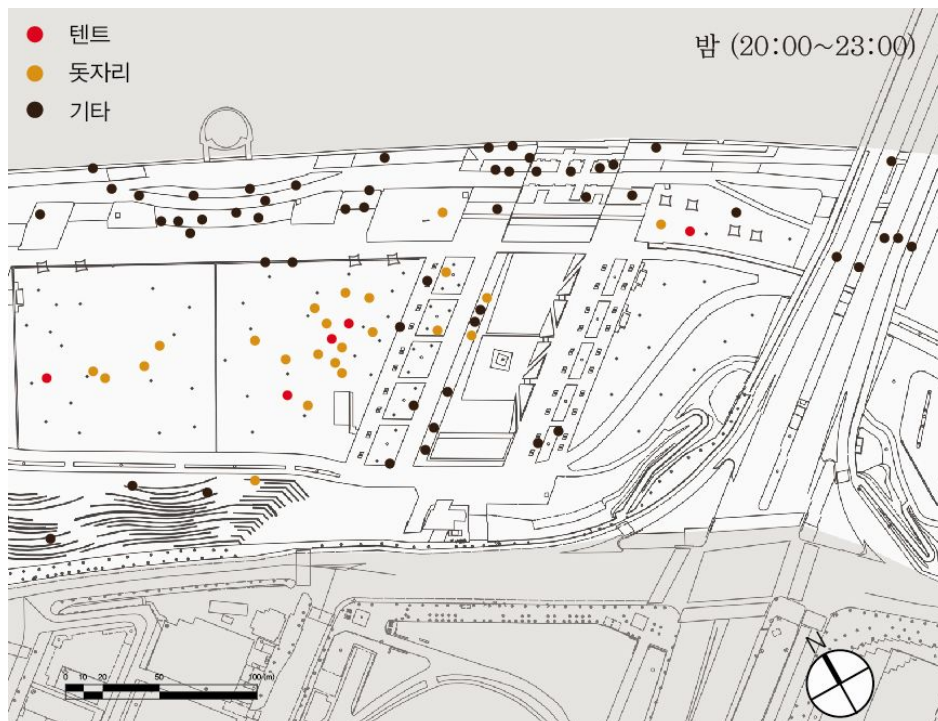
평일 밤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피크닉 이용 그룹을 수치화하면 다음<표 4-5>와 같다.

<표 4-5> 평일 밤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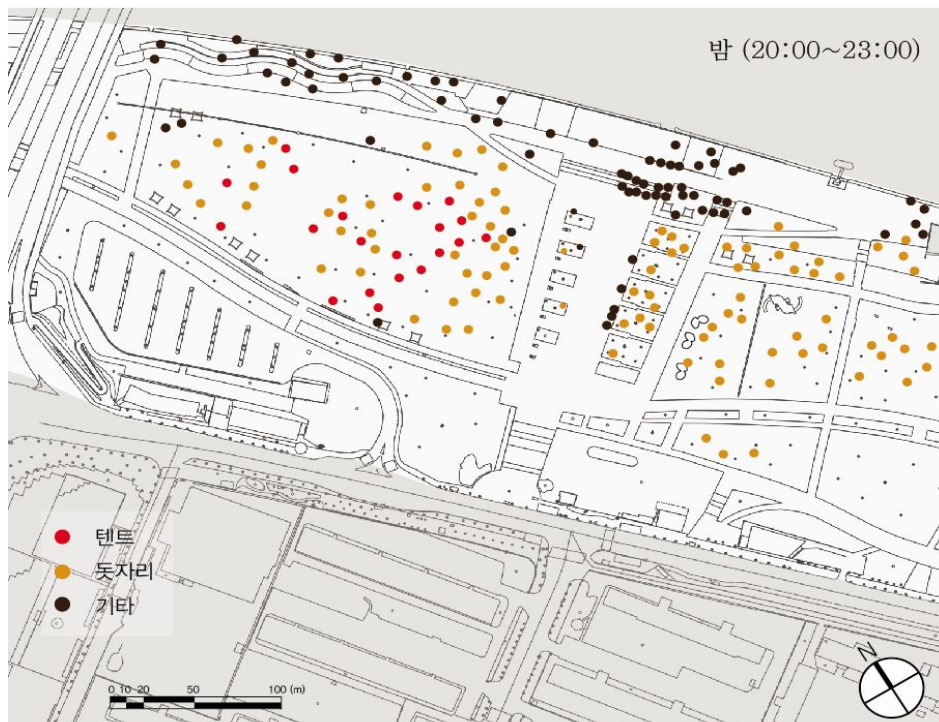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0	6	174	25	140	24	160	25	180	10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4	132	4	196	19	20	29	163	183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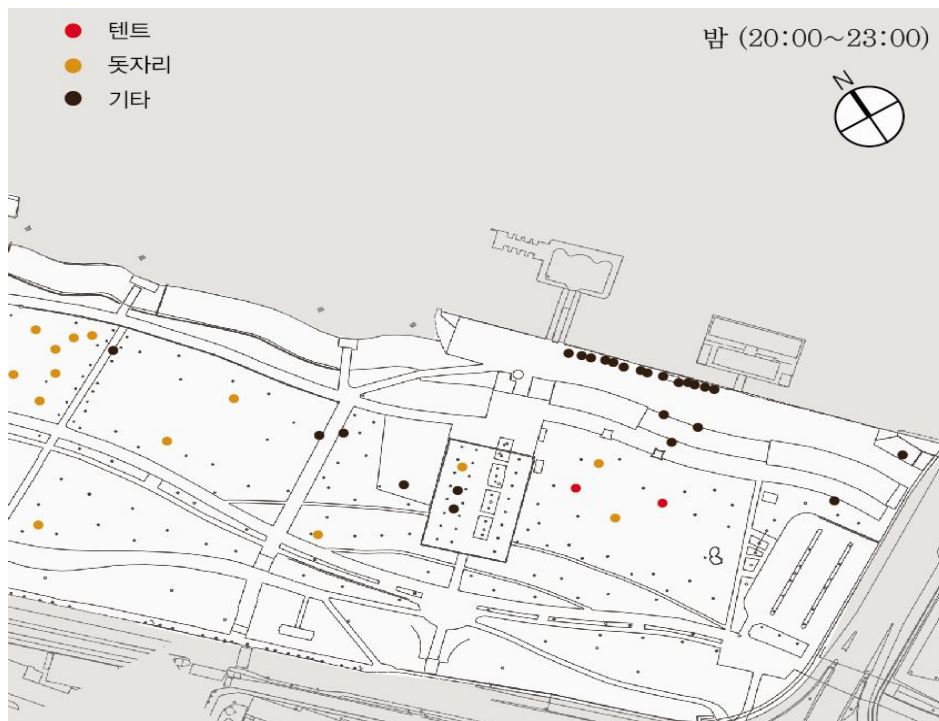
<그림 4-1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1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1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2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1) 주말 오전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오전에는 평일 점심 시간대의 이용자 수만큼의 사람들이 공원을 찾는다. 중심녹지공간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한강변 공간에도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위치한다. 주말에는 오전 시간대부터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피크닉 이용객들이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다.

피크닉 용품이 없는 이용자보다 텐트나 돛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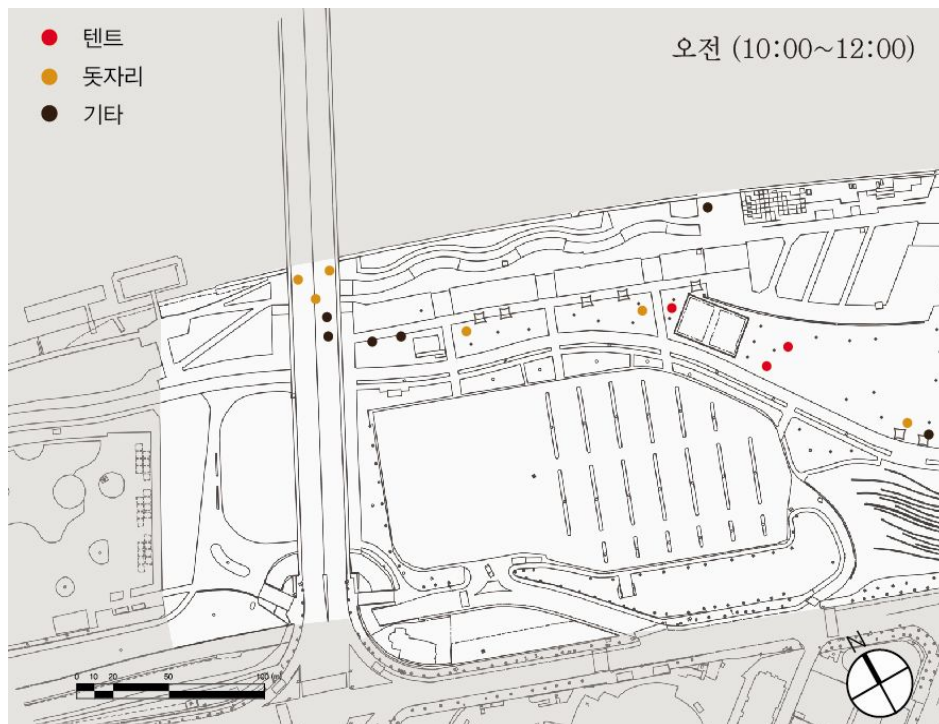
오전 시간이라 햇빛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먼저 나무 밑의 자리를 점유하며, 그늘이 없는 공간에는 거의 앉지 않았다.

오전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그룹도 많지만, 먹거나 대화를 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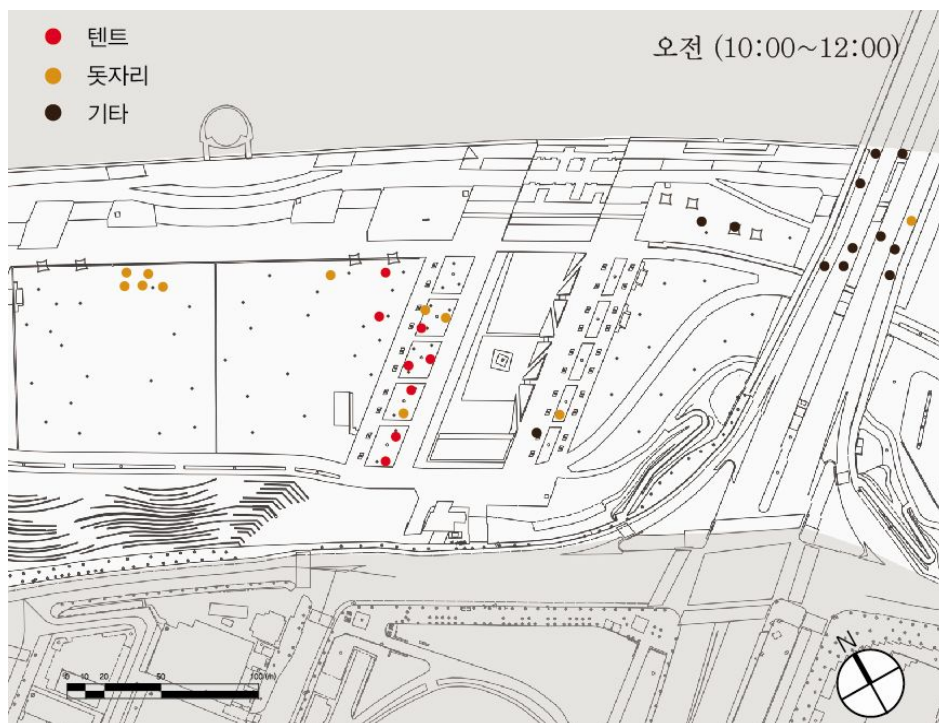
주말 오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 그룹의 수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주말 오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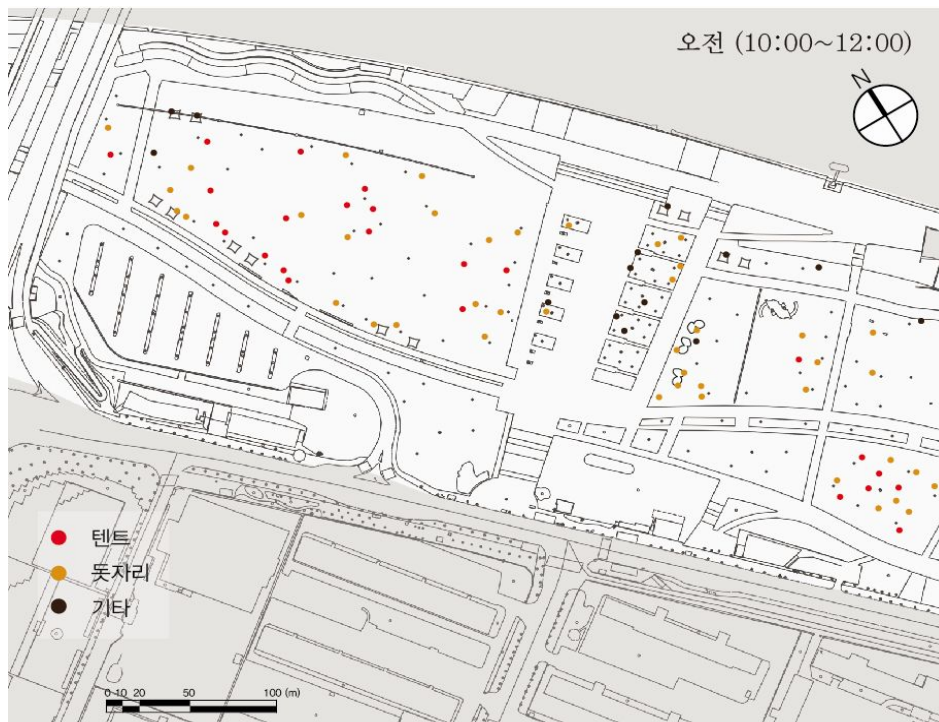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9	8	91	23	37	6	123	38	15	8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20	46	3	78	9	17	47	82	54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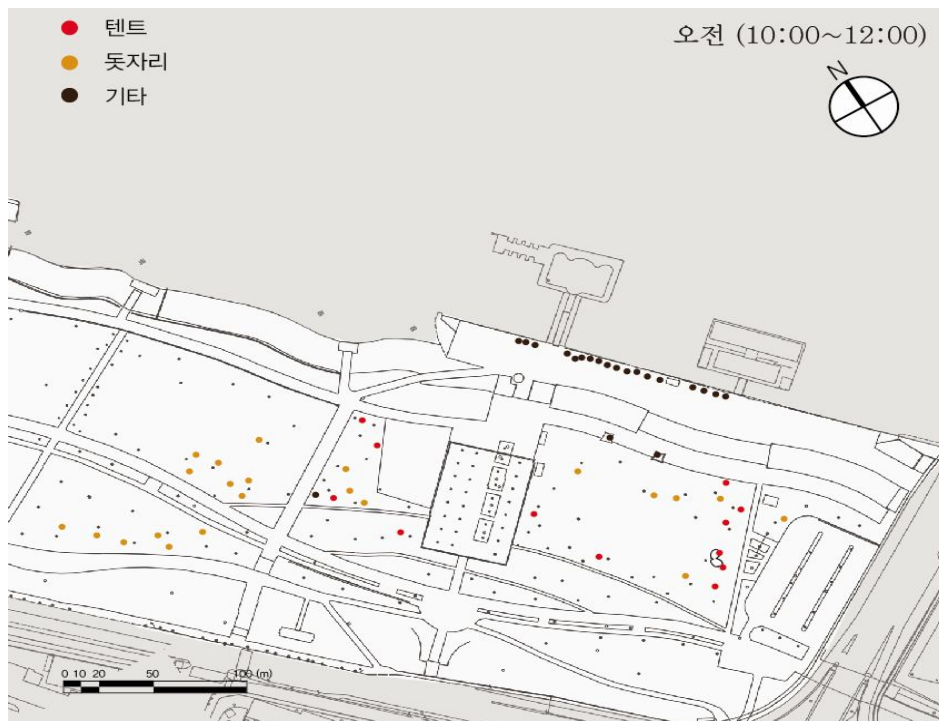
<그림 4-2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2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2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2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2) 주말 점심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점심시간대에는 오전에 비해 급격히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 중심녹지공간이 여전히 가장 많은 피크닉 이용객수를 보였으며, 수변시설 인접공간의 이용자가 한강변 이용자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주말 점심시간대에 가족 단위, 연인 단위의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수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물리게 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기에 놀이터 인접 공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텐트와 돛자리를 이용하는 그룹 모두 급격히 증가하여 대부분의 이용자가 피크닉 용품을 가지고 온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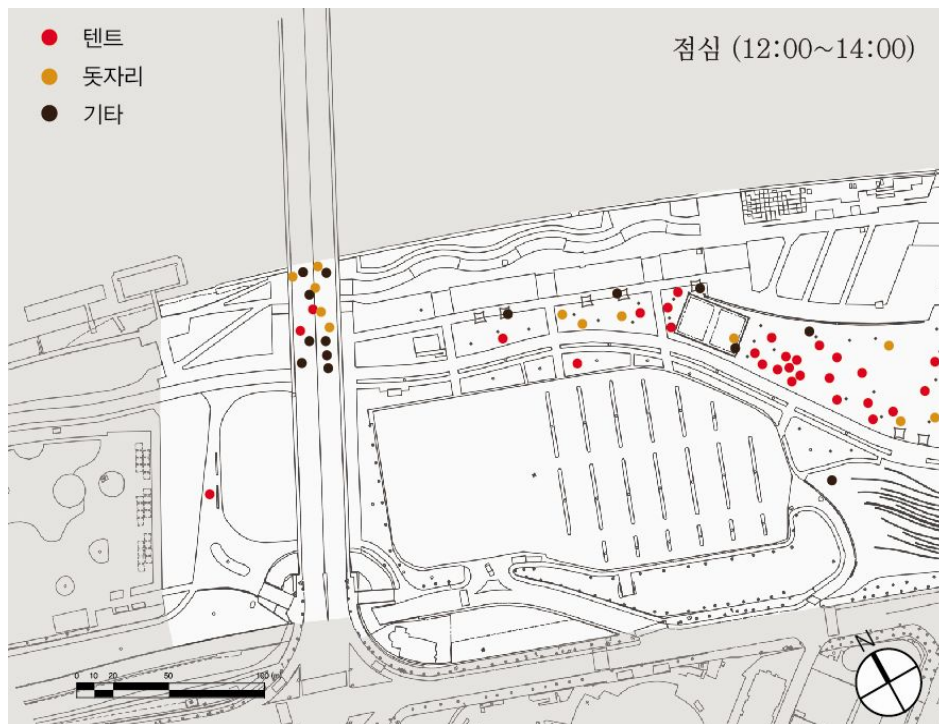
여의도 한강공원 내 그늘막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피크닉을 즐겼다. 나무가 없는 곳에 빈자리가 있어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나무 주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점심 시간대이기 때문에 반 이상의 이용자들이 먹는 행위를 보였으며, 대화를 하는 사람들만큼 물놀이나 공놀이, 연날리기 등 약간의 동적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단순히 누워서 쉬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으나 책을 읽거나 경관을 감상하는 이용자들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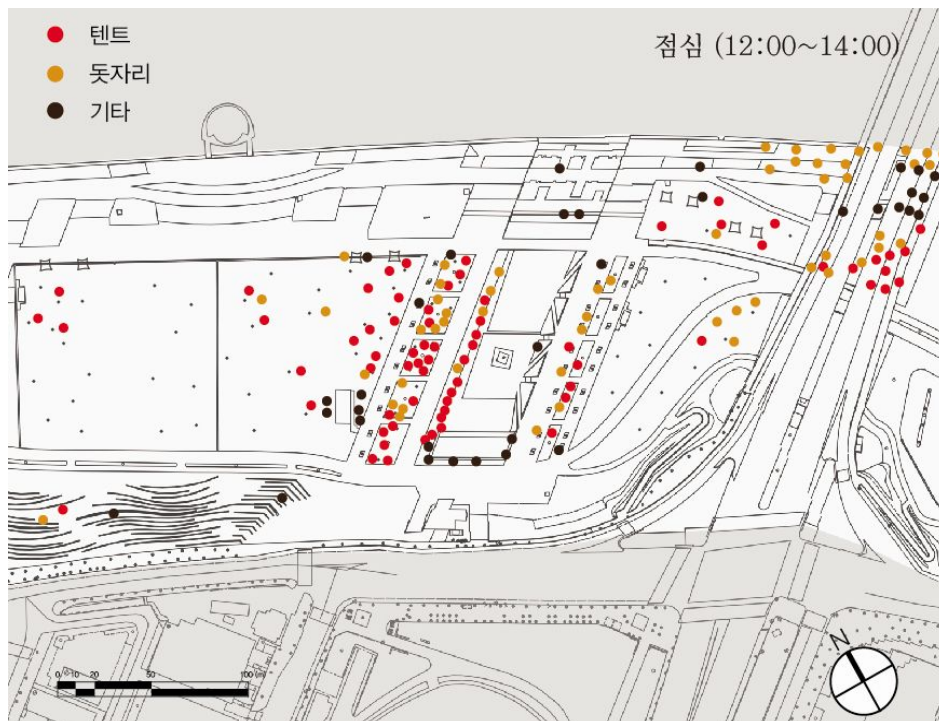
주말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피크닉 이용 그룹의 수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주말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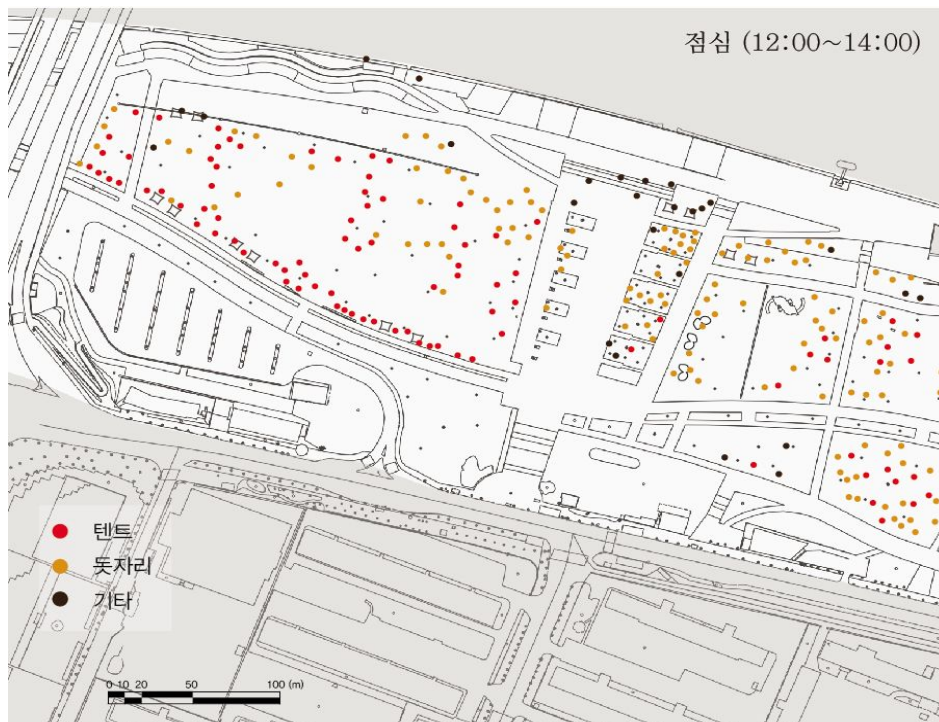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58	26	323	23	37	6	442	34	58	93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92	91	4	324	9	88	251	279	97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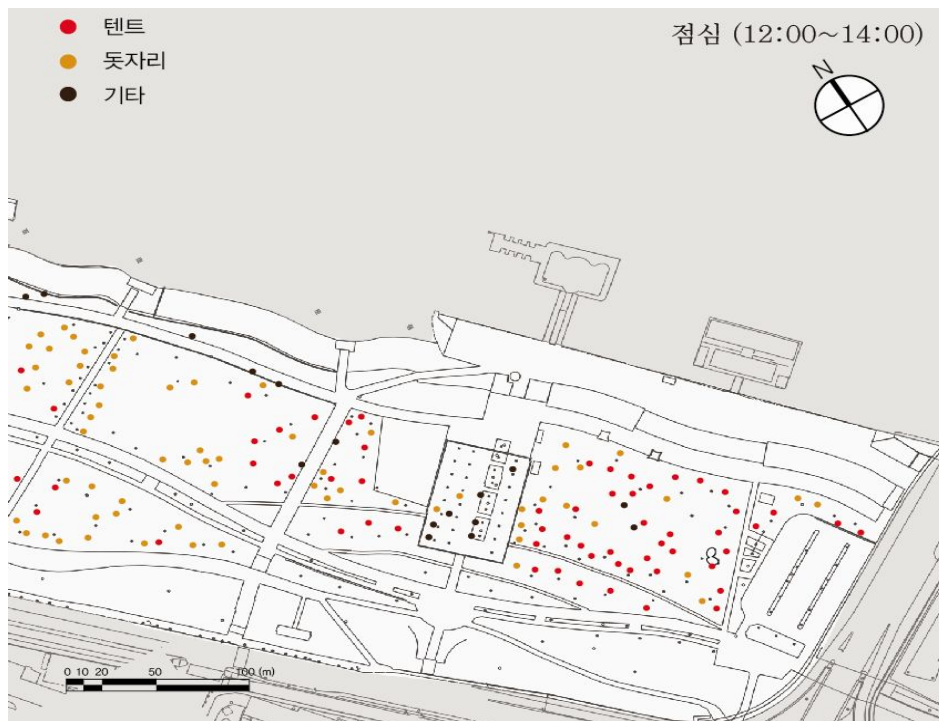
<그림 4-2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2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2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 I)



<그림 4-2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 II)

3) 주말 오후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오후에는 가장 많은 피크닉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이다. 반 이상의 이용자들이 중심녹지공간에 몰리게 되며, 수변시설 인접공간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공간에서 피크닉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텐트나 돛자리 이용자도 많이 증가하였지만, 피크닉 용품이 없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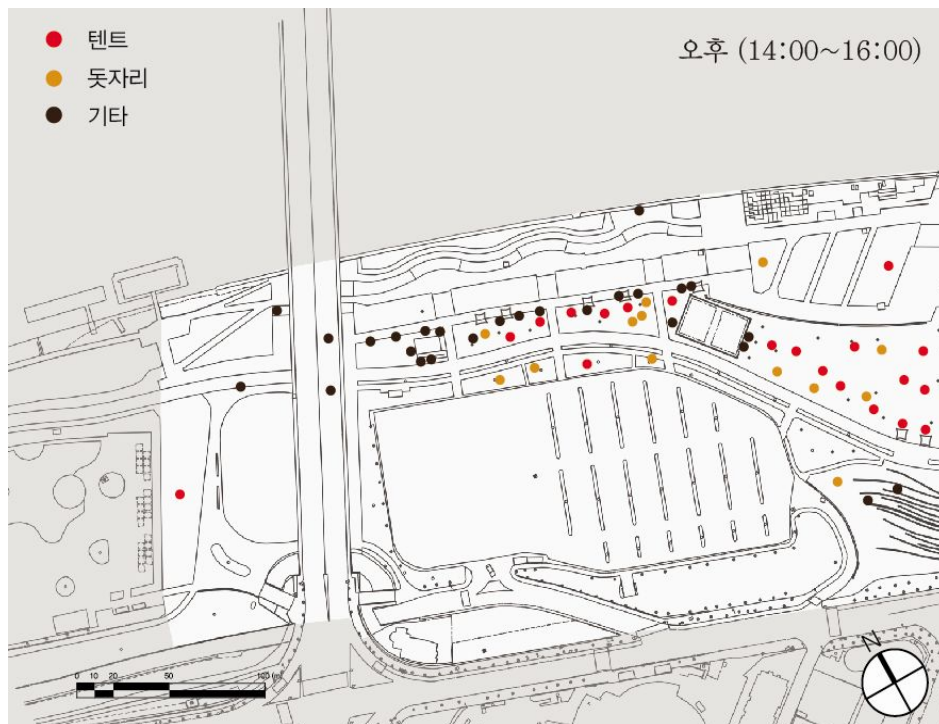
오후 시간대에 가장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나무 밑 장소를 찾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 인해 나무 근처 공간의 이용자 밀도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대화를 하는 피크닉 이용객들이 가장 많았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먹는 행위를 보였으며 누워서 쉬는 사람들도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가족단위의 이용객들 중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및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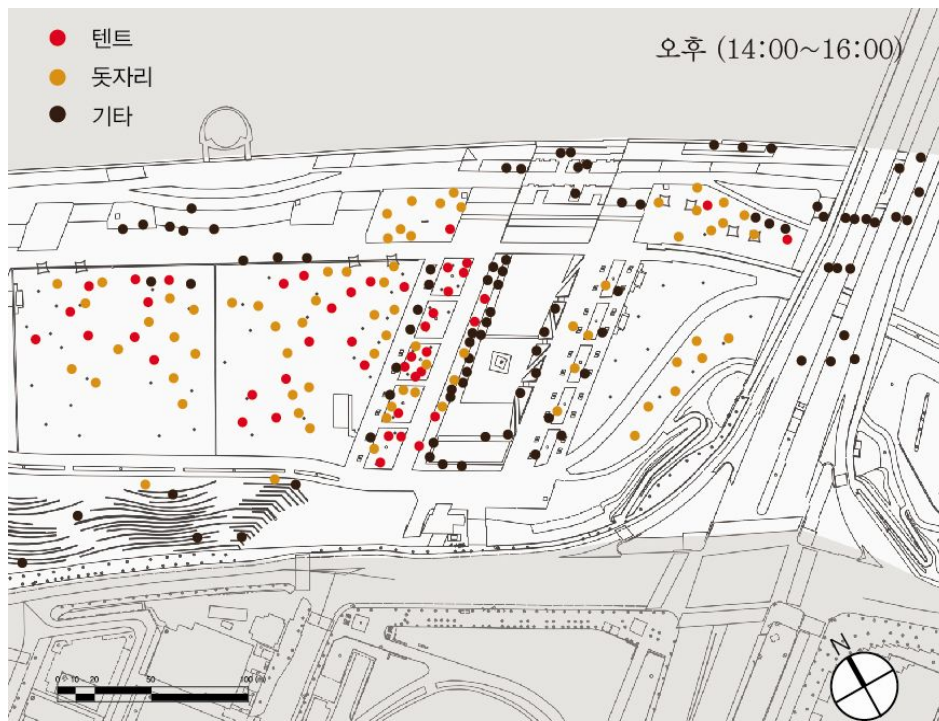
주말 오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서 나타난 피크닉 이용 그룹의 수는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주말 오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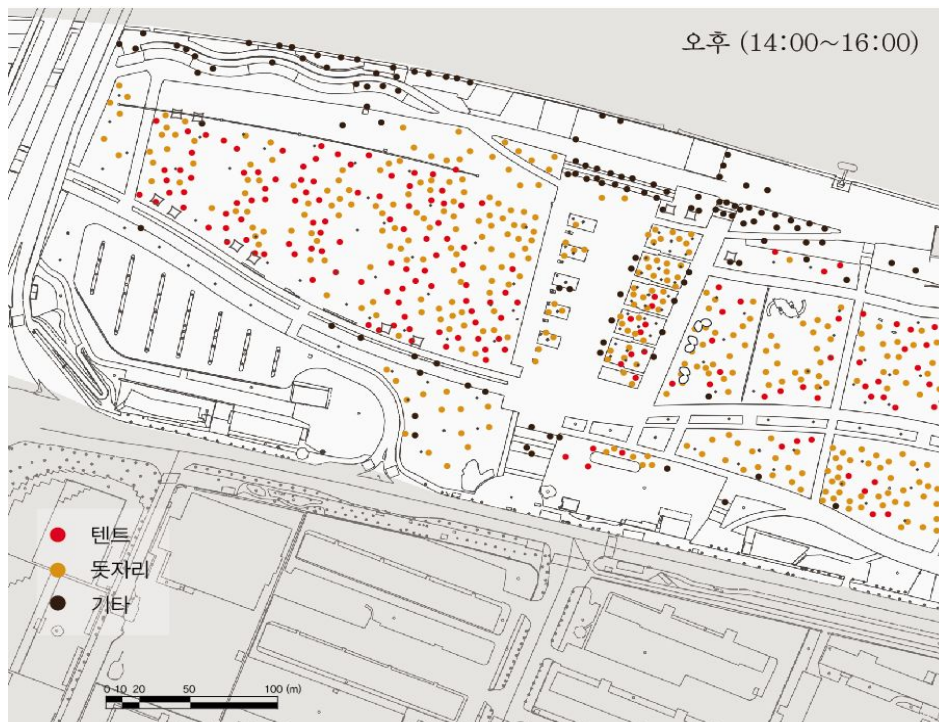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75	40	644	99	184	20	856	21	19	266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86	356	19	292	27	262	301	568	293	1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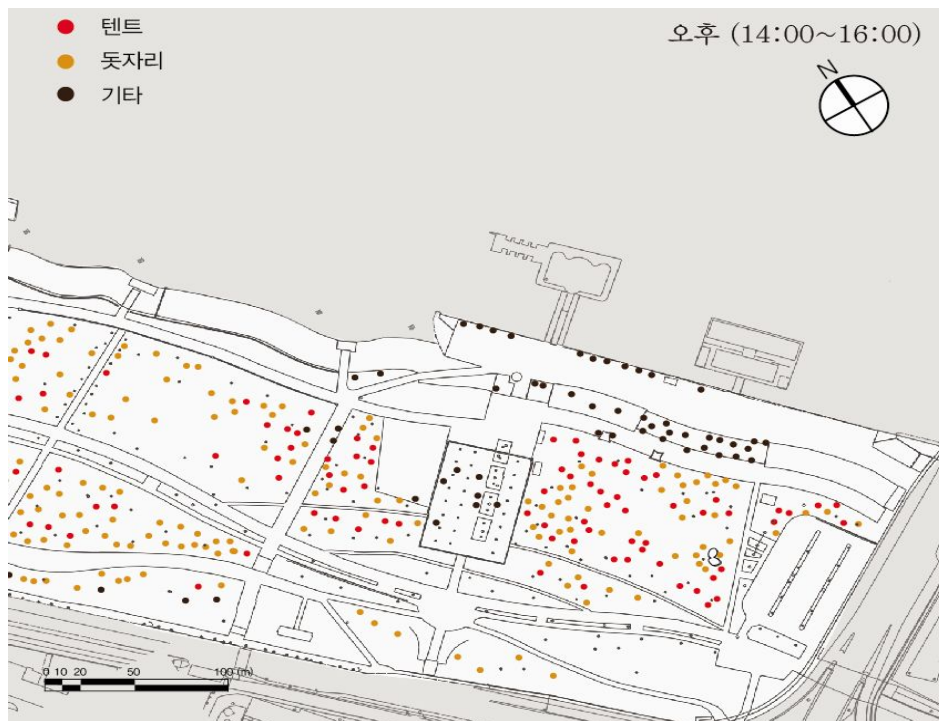
<그림 4-2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



<그림 4-3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I)



<그림 4-3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3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오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4) 주말 저녁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저녁에는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는 감소하였으나 주말 점심 시간대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피크닉을 즐겼다. 중심녹지공간과 한강변 공간의 이용객 비율이 높았다. 진입공간, 놀이터 인접공간, 수변시설 인접공간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무대 인접공간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수변 무대에 공연이 있다고 공지를 하여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긴 이유도 있고, 수변 무대의 조명이 이용객들을 끌어들이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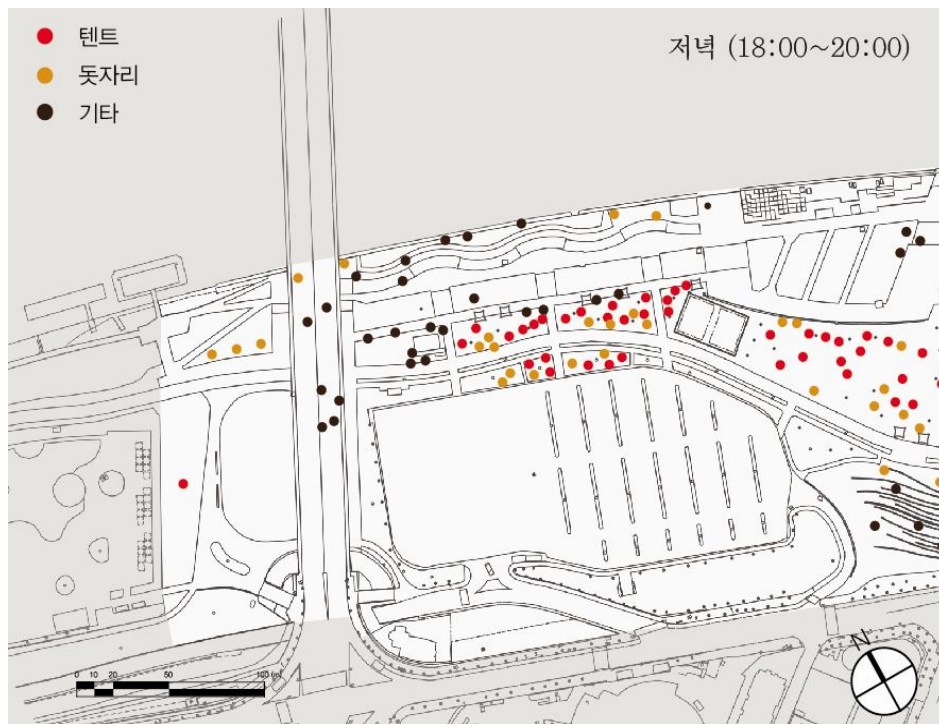
여전히 나무 밑에 위치한 이용객들이 많았으나 이는 해가 지기 전부터 있던 사람들이 계속 위치해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늘 없는 공간의 이용자수는 해가 지면서 증가하였다.

점심 시간대보다 저녁 시간대에 먹는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고 오후 시간대에 비해 유일하게 증가한 그룹이다. 비교적 한강에 가까운 공간에 사람들이 집중되면서 경관을 감상하는 이용객 수도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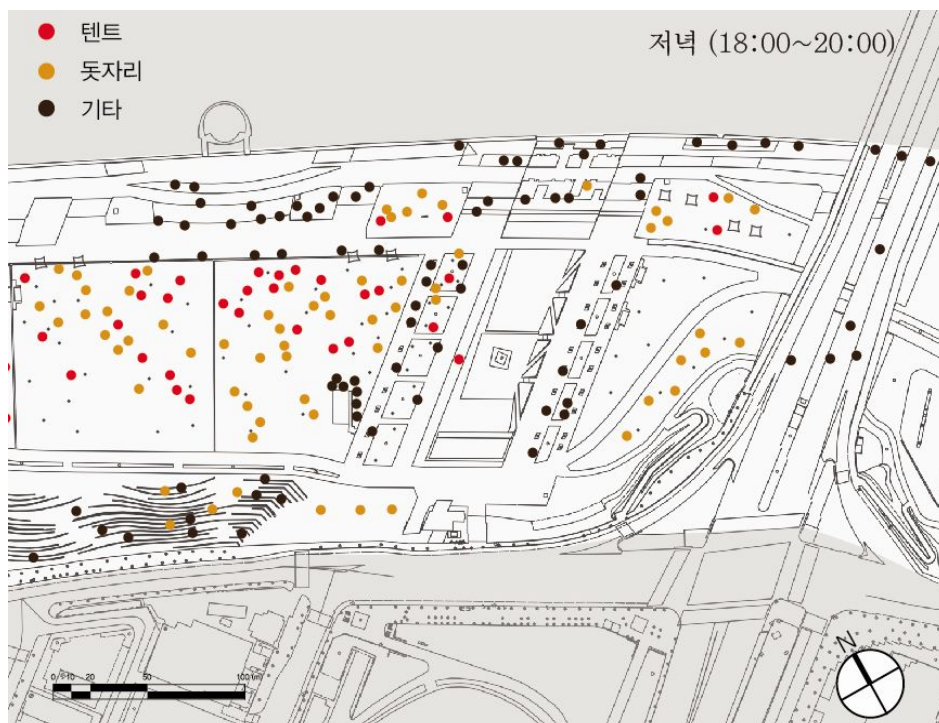
주말 저녁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피크닉 이용 그룹의 수는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주말 저녁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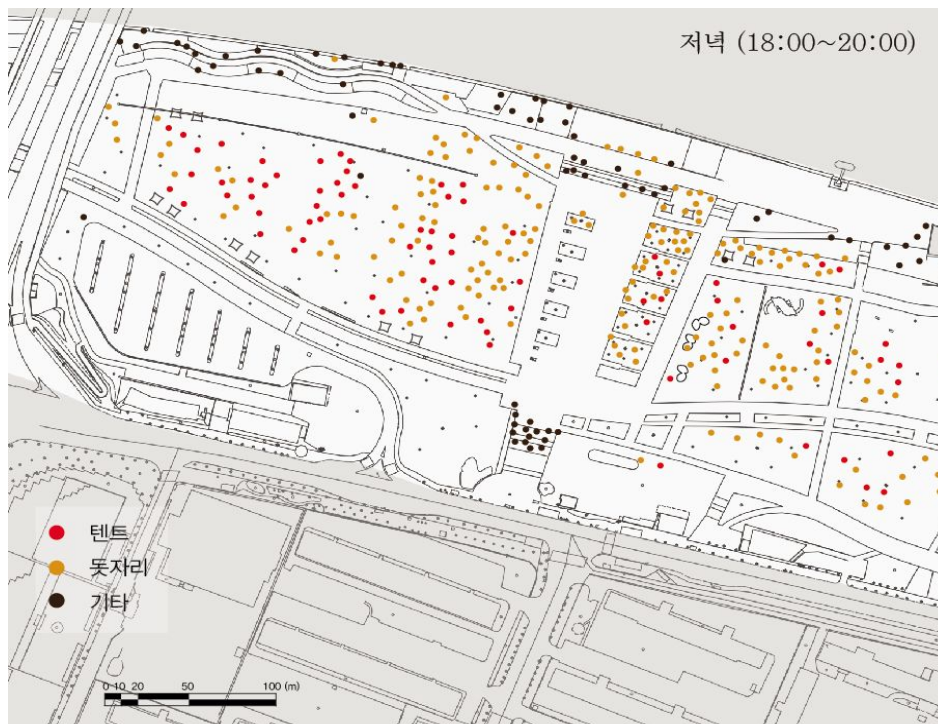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83	4	370	33	156	54	400	11	15	274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23	144	19	397	38	79	173	329	208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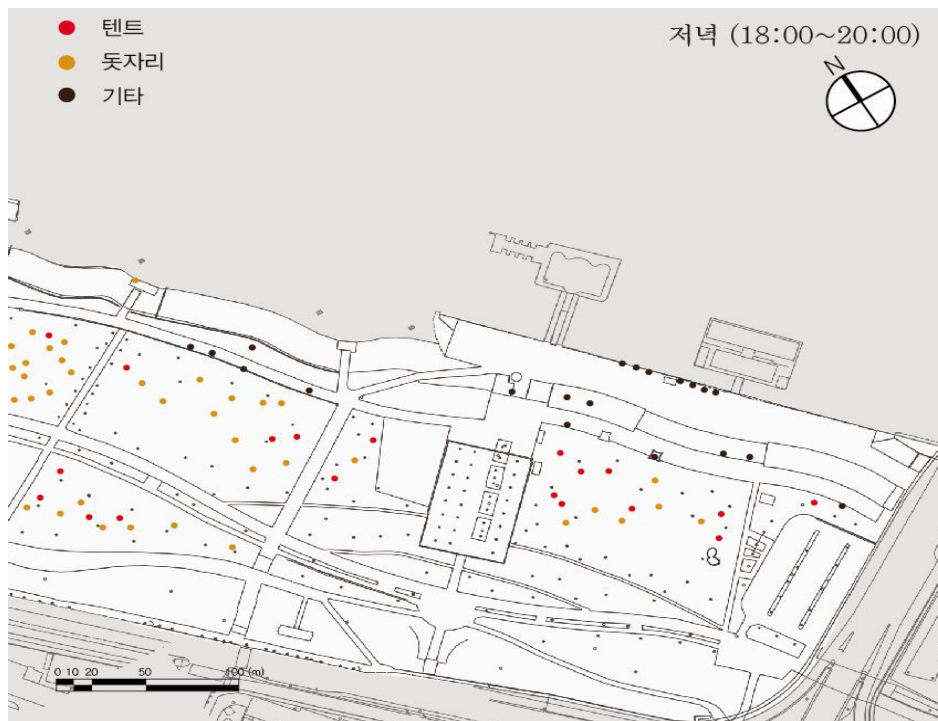
<그림 4-3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3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3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36>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5) 주말 밤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밤에는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피크닉을 하던 이용자들이 상당수 귀가하여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중심 녹지공간과 한강변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텐트 이용자들이 많이 감소하였고, 주말의 모든 시간대 중 유일하게 피크닉용품 없는 사람들이 돛자리를 이용한 사람들보다 많은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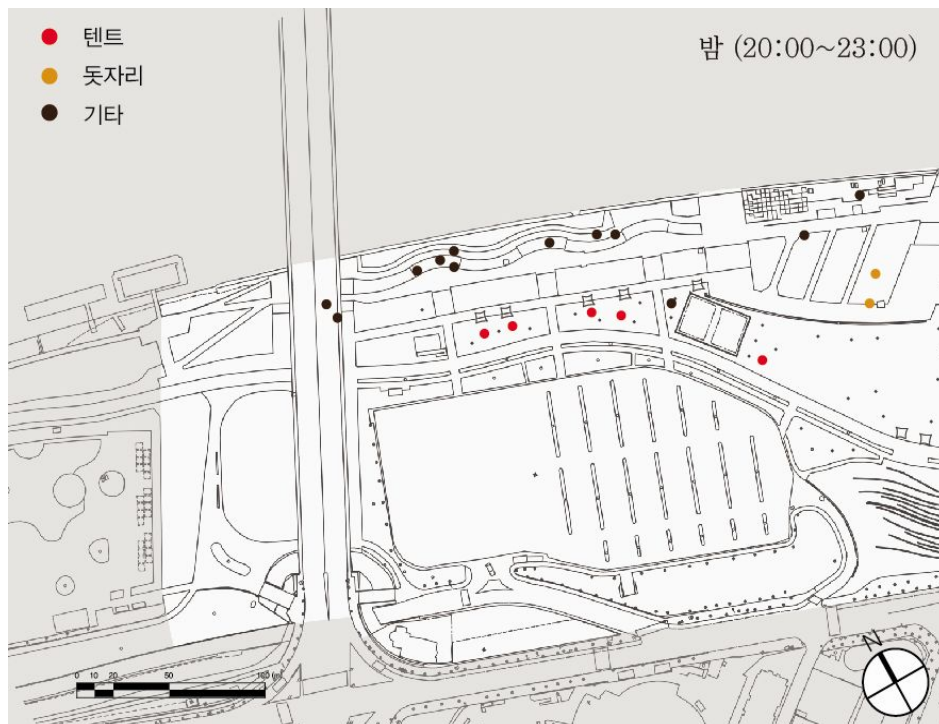
나무 밑에 자리를 잡은 이용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늘 없는 곳에 있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있었다.

앉아서 간단한 게임을 하는 등 놀이를 즐기는 이용객도 여전히 있었으나, 대부분이 술과 안주를 먹고 대화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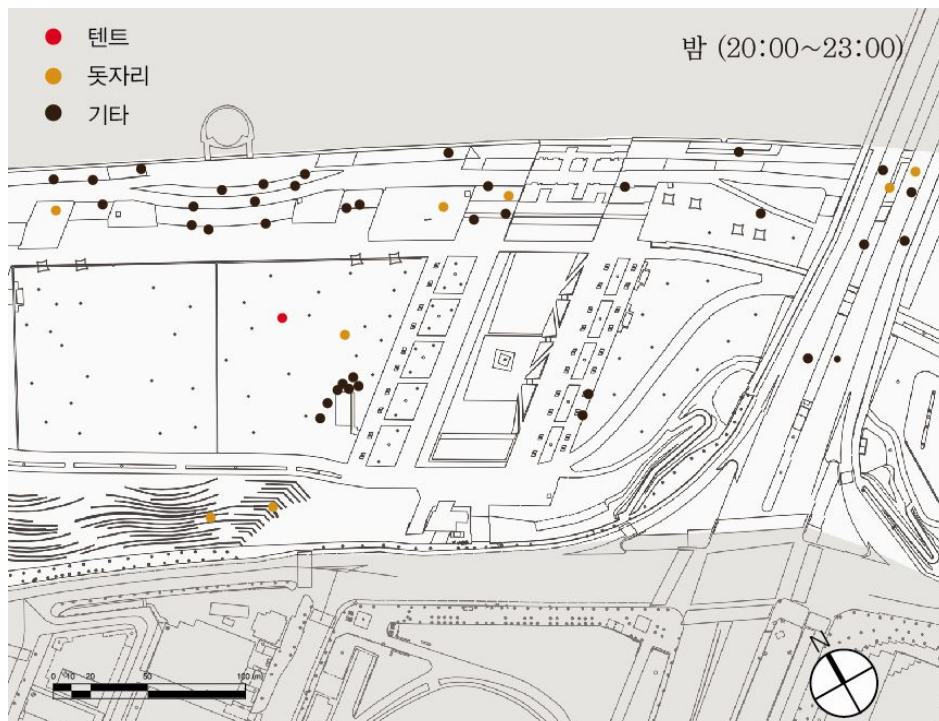
주말 밤 시간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서 나타난 피크닉 이용 그룹의 수는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주말 밤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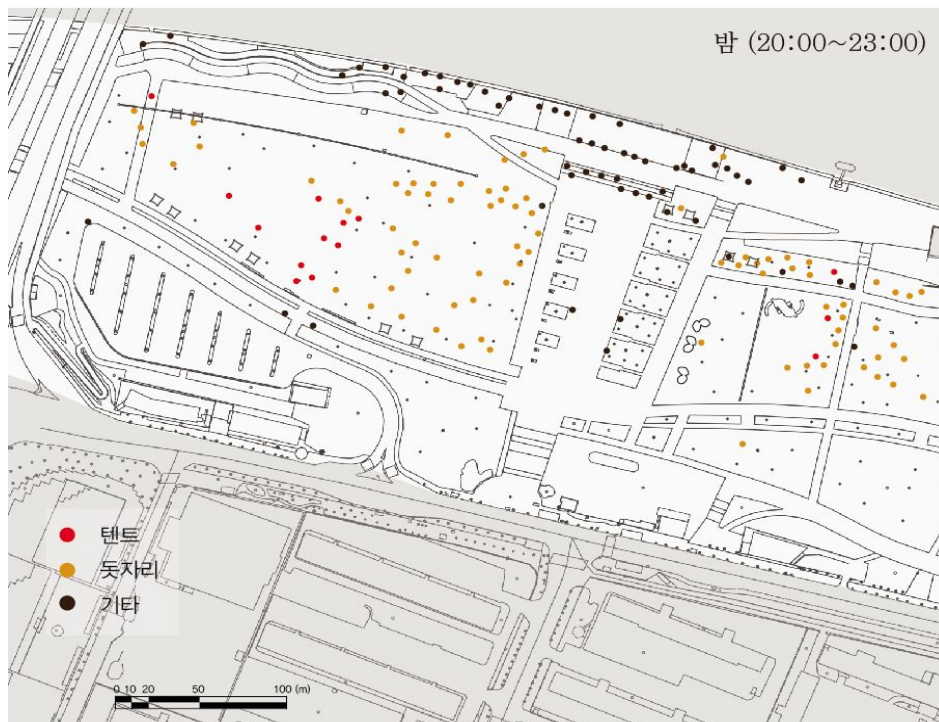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8	3	115	3	114	22	114	19	122	10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2	93	3	136	9	22	25	107	13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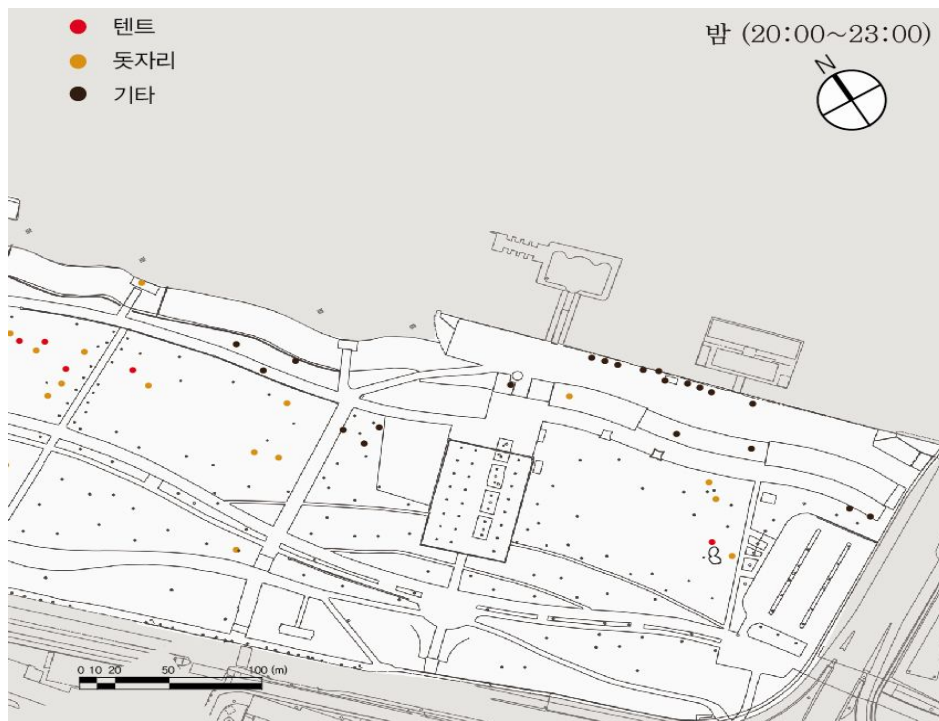
<그림 4-3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3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3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4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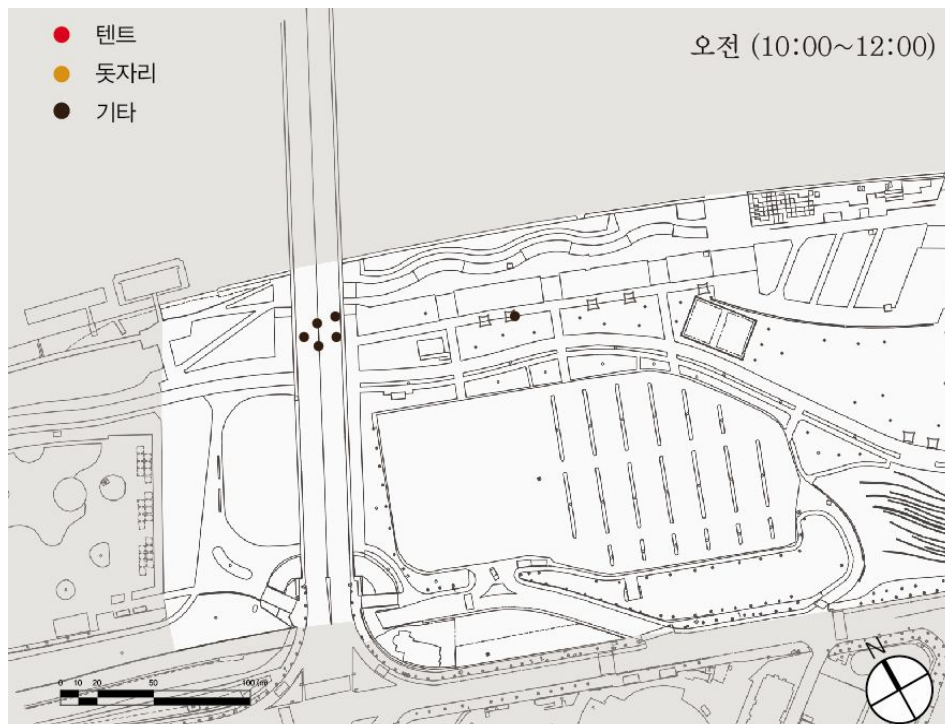
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 분석

하절기 주중 오전에는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적은 이용자 수를 보여준다. 다만 다른 점은 피크닉 이용자의 상당수가 수변시설 인접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은 미리 수변시설 인접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캐스케이드 인접 공간보다는 마포대교 밑의 피아노물길 옆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다리 밑이라는 커다란 그늘공간이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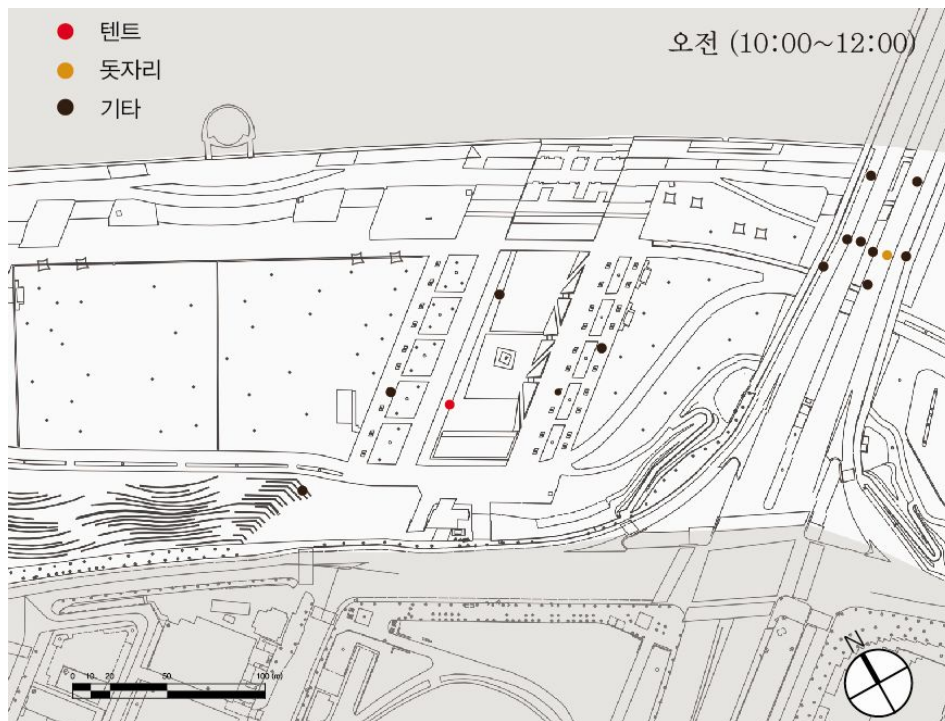
오전에는 텐트와 돛자리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장시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보다 단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있는 곳을 선호하였고, 그 중 한강 다리 밑을 많이 점유하였다. 오전의 피크닉 행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대화, 먹기, 휴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절기 주중 오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하절기 평일 오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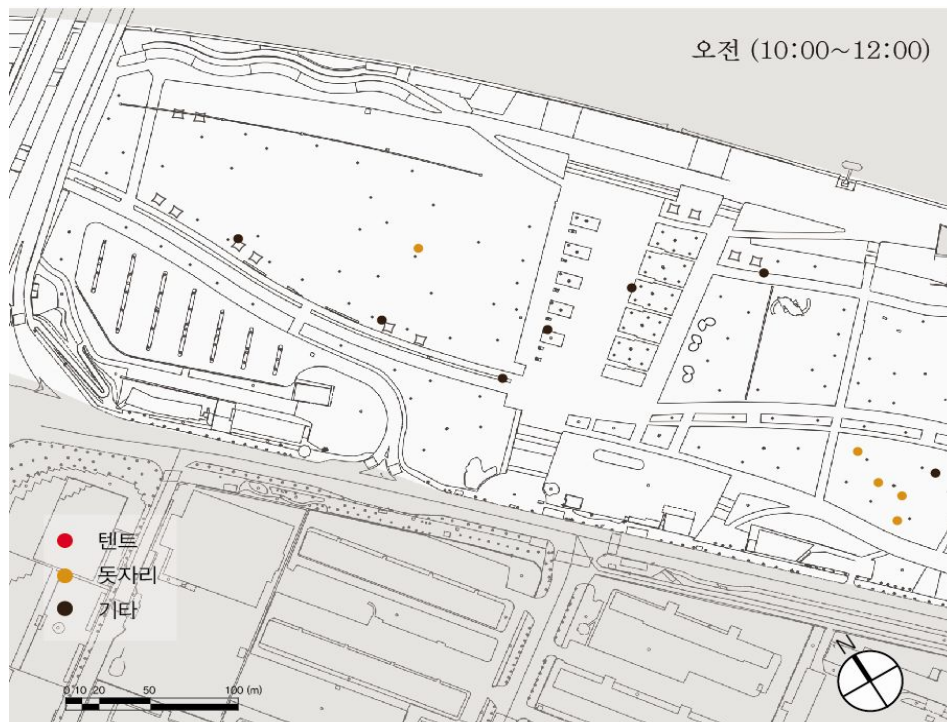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6	0	10	14	9	0	11	10	14	4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4	12	4	9	2	10	1	6	32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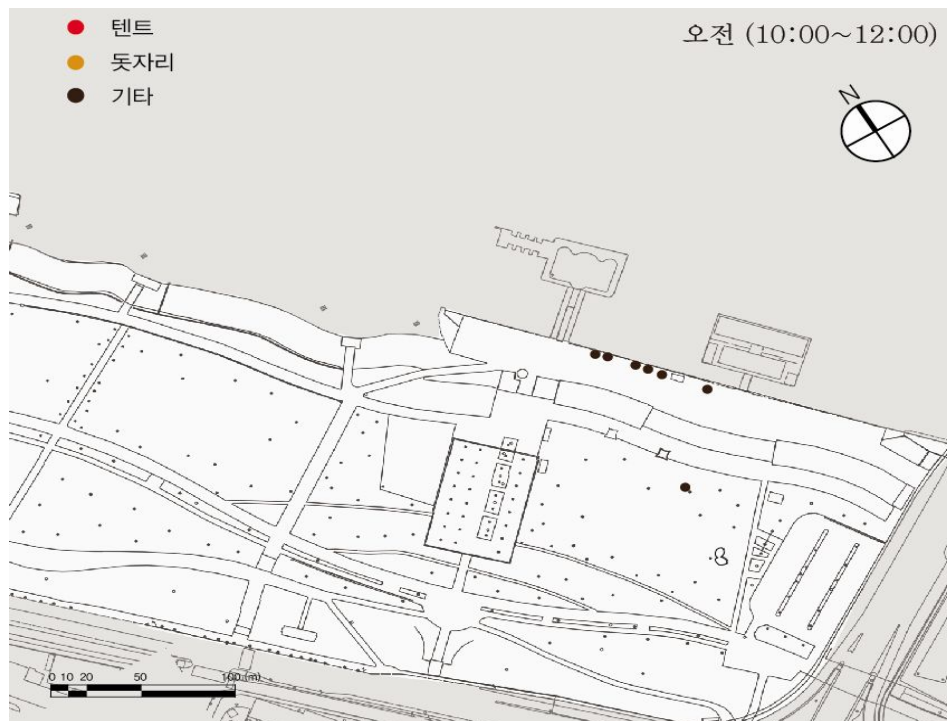
<그림 4-4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4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4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4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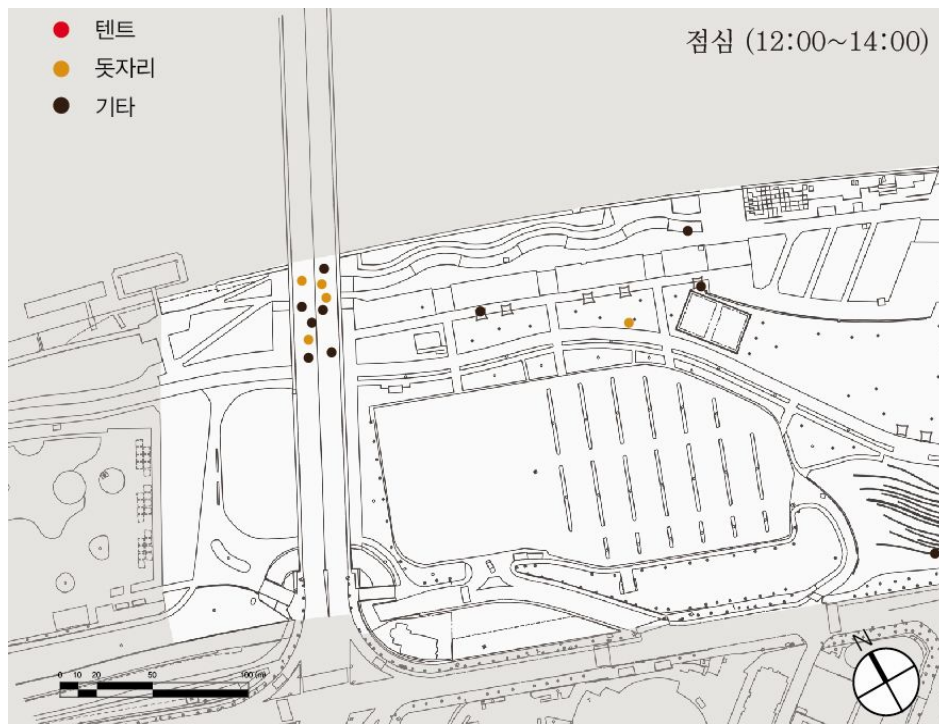
하절기 주중 점심에는 중심 녹지, 한강변, 수변 시설 인접공간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춘절기에 비해 총 이용자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름의 높은 기온과 강한 햇빛이 낮 시간대에 방문하기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자들이 방문했지만, 텐트 이용자 수는 봄에 비해 증가하였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늘이 있는 곳을 선호하였고, 한강 다리 밑의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춘절기 동시간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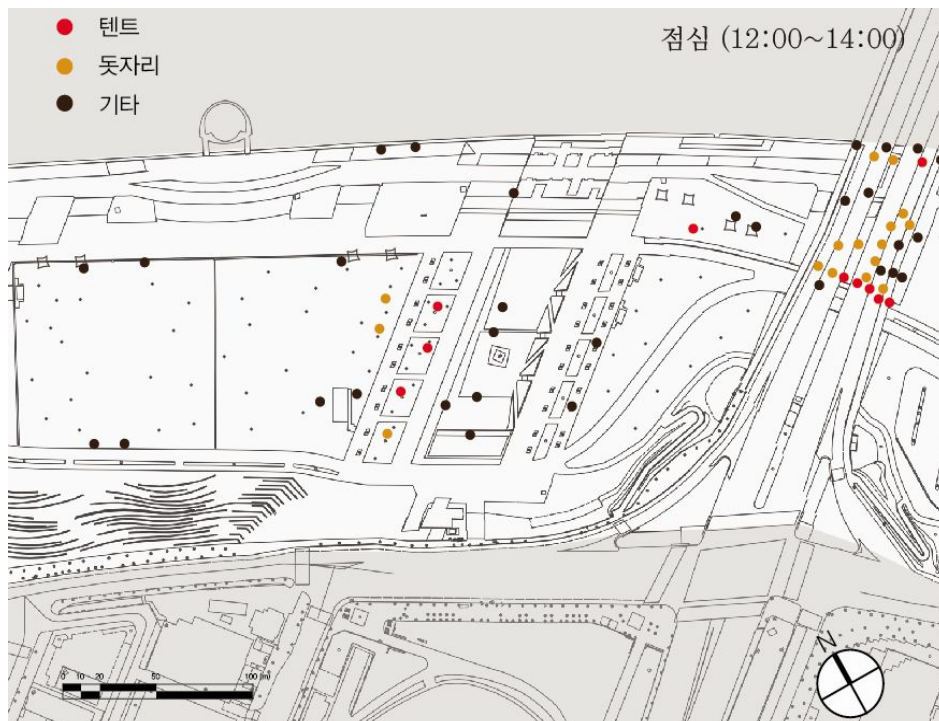
가족단위의 피크닉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다소 동적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봄에 비해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였다. 하절기의 주중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의 수는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12> 하절기 평일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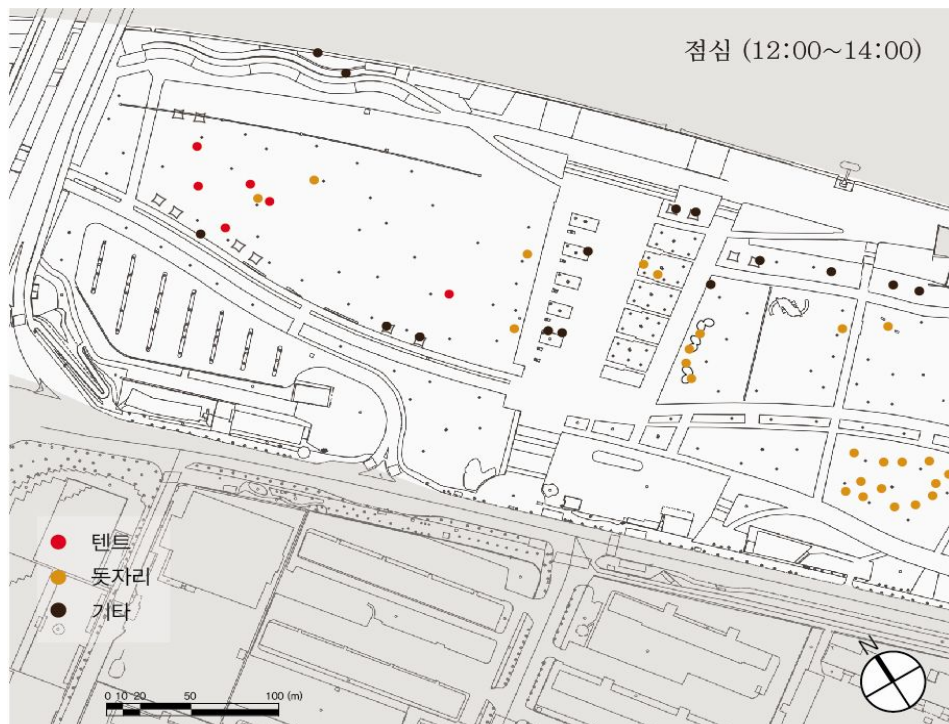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4	0	45	20	34	2	41	22	42	10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9	12	5	45	13	21	16	46	53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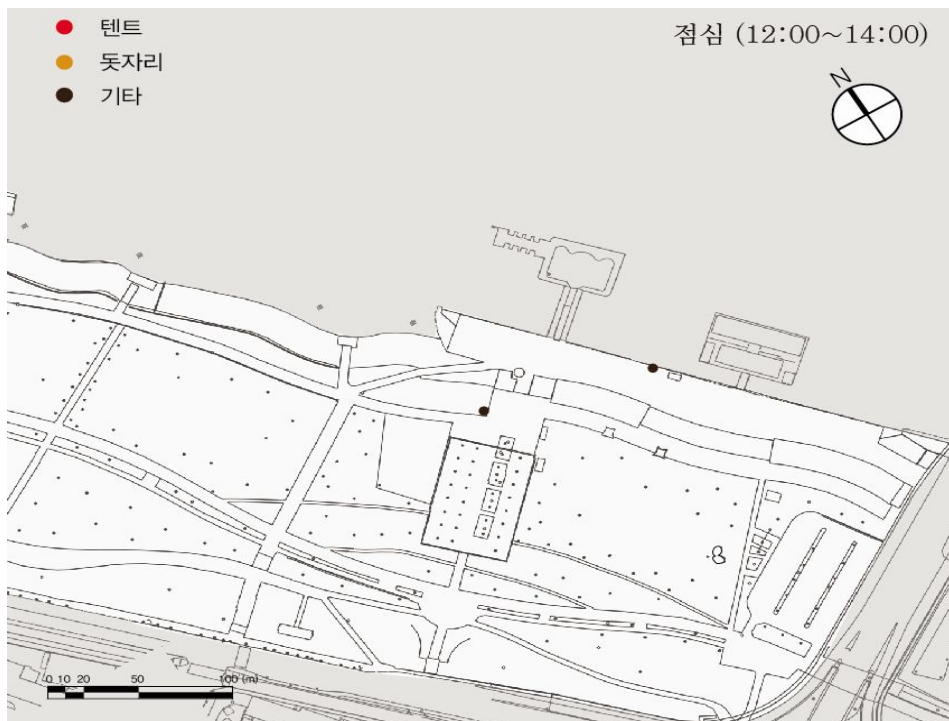
<그림 4-4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4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4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4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시간대 피크닉 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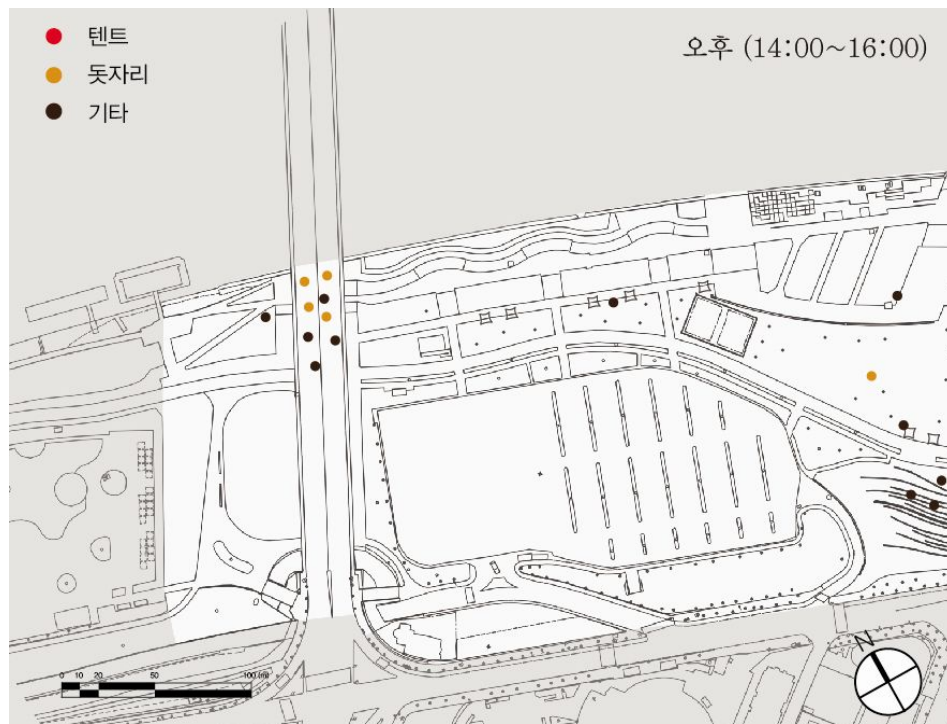
하절기 주중 오후 시간대 조사는 두 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오후 2시~4시 시간대와 오후 4시~6시 시간대에 걸쳐 행태지도를 작성하였다. 오후 2시~4시 시간대는 가장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인데 반해, 오후 4시~6시 시간대에는 햇빛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며 기온도 떨어지는 시간대이다. 이에 따라, 기온 차와 햇빛의 세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를 두 시간으로 나누었다.

이용자들은 중심 녹지, 한강변, 수변 시설 인접공간을 많이 점유하였고, 햇빛이 강한 시간인 만큼 그늘이 있는 곳을 여전히 선호하였다. 다리 밑 공간은 면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높은 밀도를 보이는 공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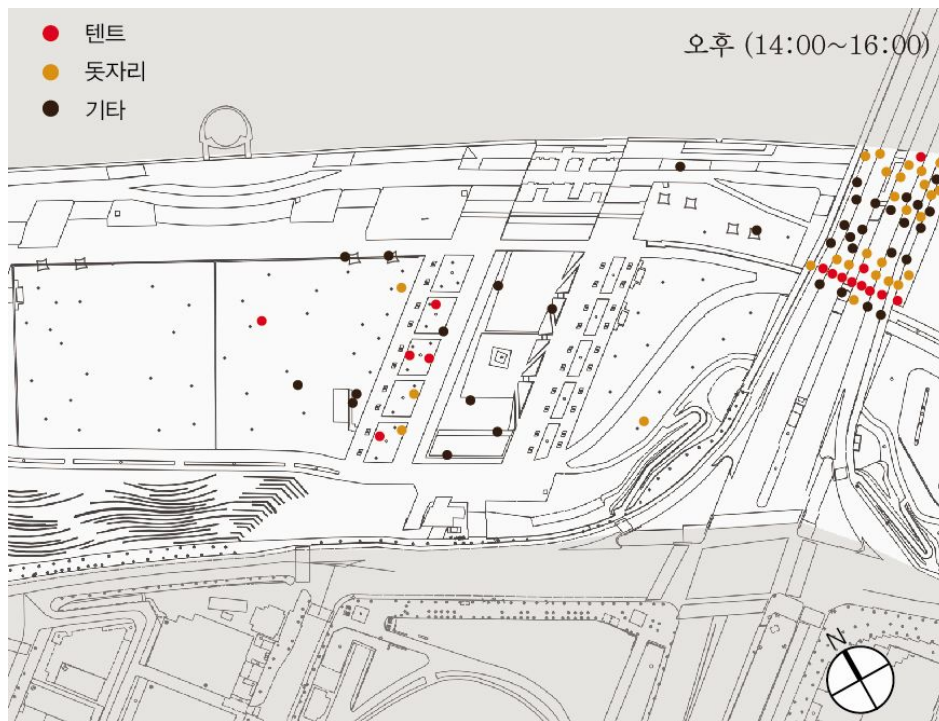
텐트와 돛자리를 가져온 이용객들이 여전히 많지만, 안 가져온 사람들도 많은 분포를 보였다. 피크닉 행태 측면에서는 특징적인 분포는 없었으나, 봄에 비해 총 이용자수가 많이 적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봄에 비해 공원을 찾는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하절기 평일 오후 2시~4시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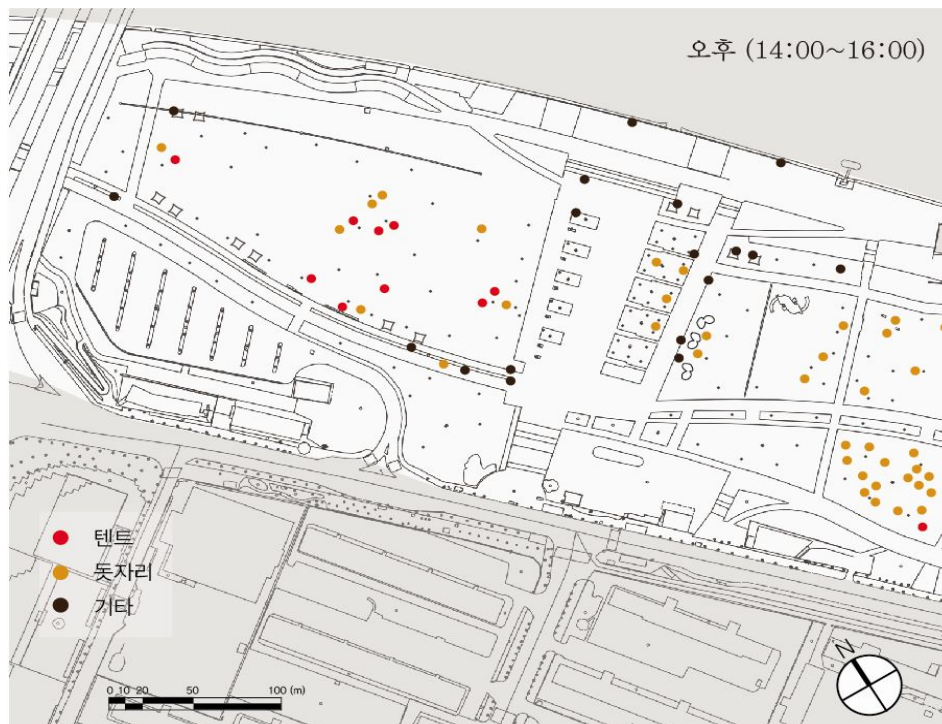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28	1	51	47	51	2	85	18	63	14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24	36	6	44	28	42	25	85	7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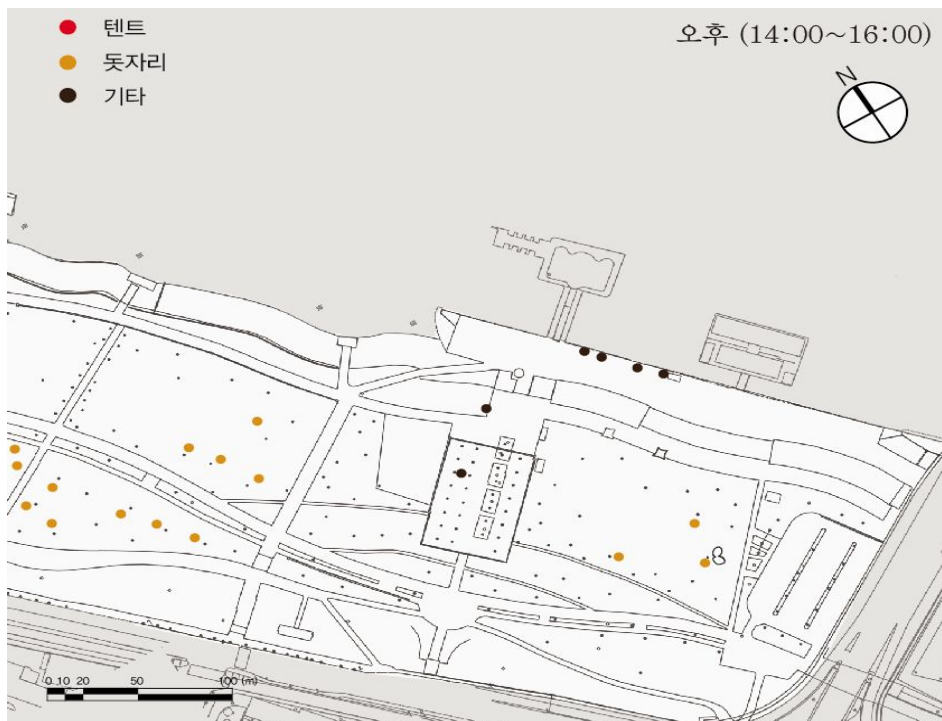
<그림 4-4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



<그림 4-5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I)



<그림 4-5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5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시간대 피크닉 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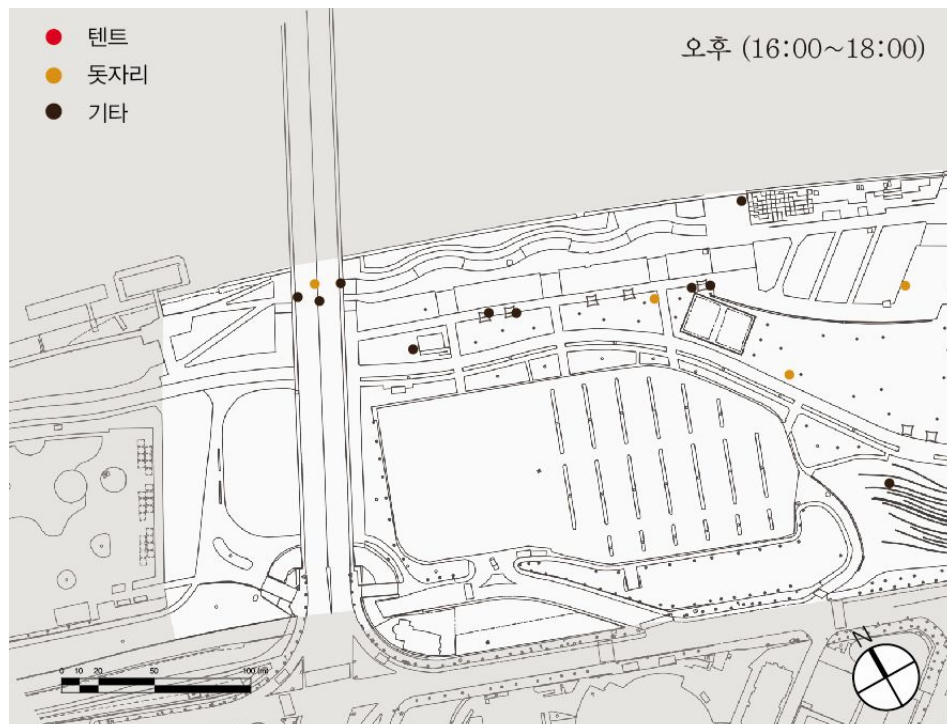
하절기 주중 오후 시간대 중 오후 4시~6시 시간대에는 햇빛이 약해져서 다소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대이다. 그래서 오후 2시~4시 시간대보다 많은 이용객들을 볼 수 있다.

다리 밑을 점유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 밑과 그늘막 밑의 자리를 더 선호하였다. 이용자 수의 반 정도가 중심 녹지 공간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으며 한강변과 수변시설, 진입공간은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점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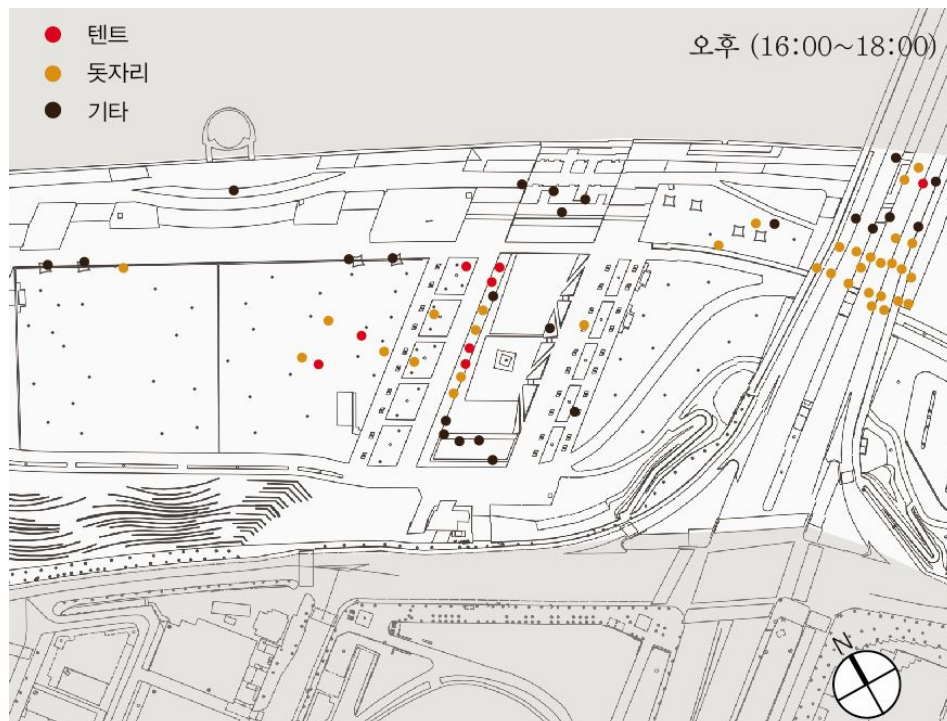
이전 시간대보다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먹는 행위, 대화하는 행위가 뒤를 이었다. 또한 반 이상의 이용자가 돛자리를 이용하였다.

<표 4-14> 하절기 평일 오후 4시~6시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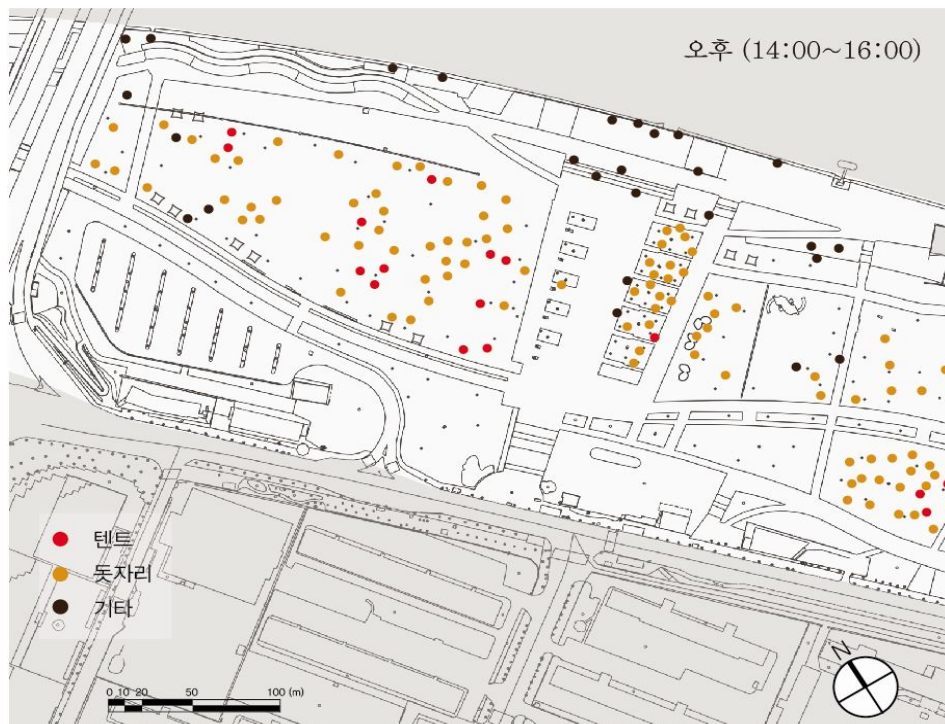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34	2	139	44	58	5	144	36	32	70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34	66	16	69	21	76	32	175	75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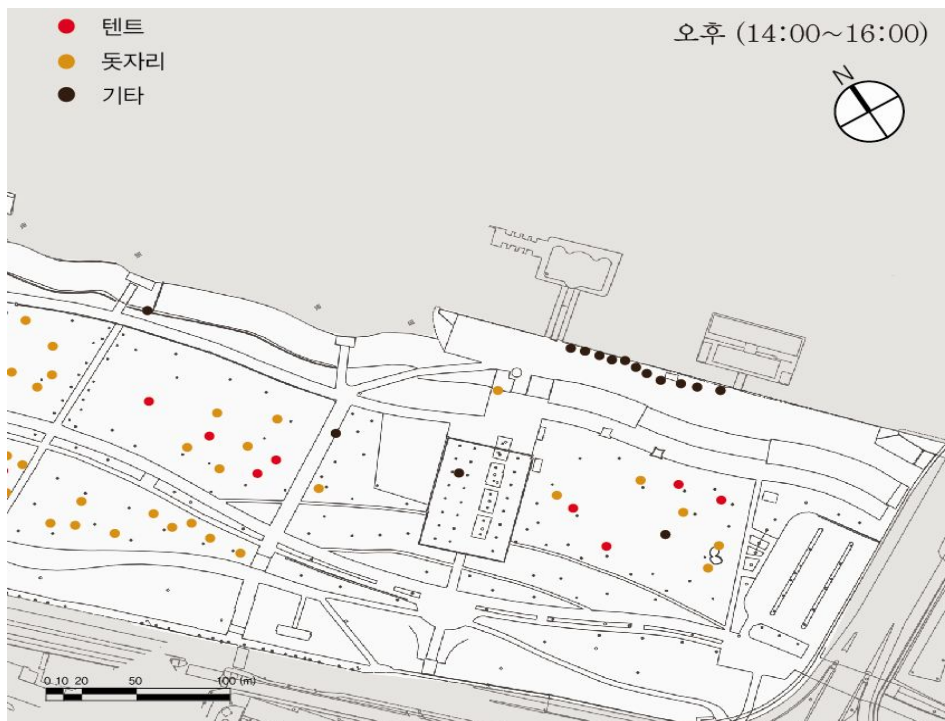
<그림 4-5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



<그림 4-5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I)



<그림 4-5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5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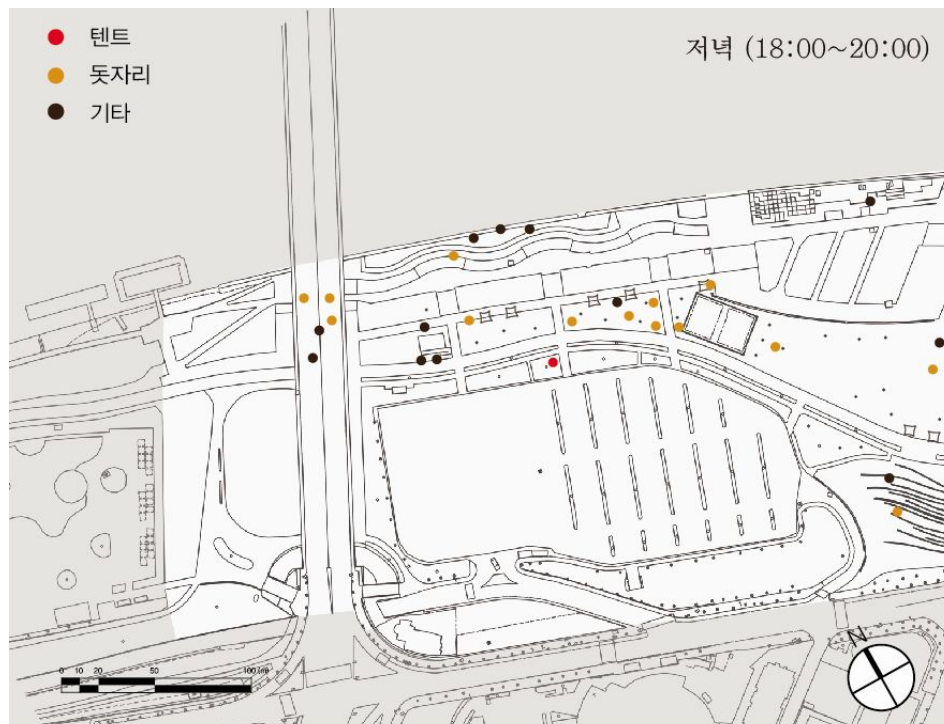
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 분석

하절기 주중 저녁에는 낮 시간대에 비하여 많은 이용자 증가 성향을 보였다. 중심녹지에서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피크닉을 즐겼고, 저녁 시간대에 한강변에 더 높은 이용자 비율을 볼 수 있다. 이는 춘절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리 밑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줄었고, 나무 밑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으나 저녁 시간대부터 그들이 없는 공간도 많이 점유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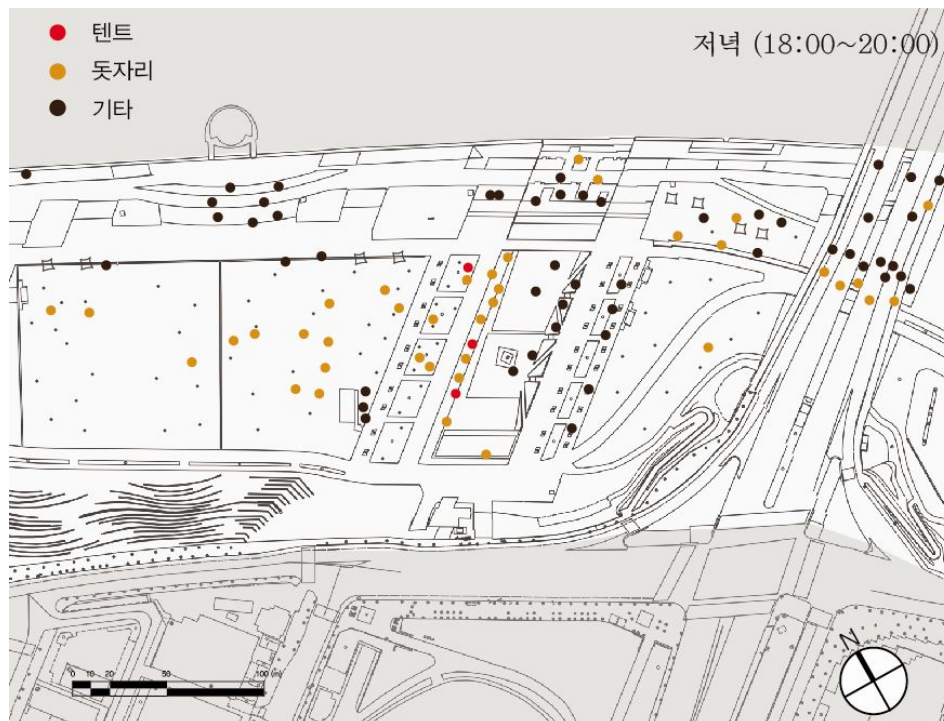
돛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계단, 벤치, 오두막 등 돛자리 없이도 앉을 수 있는 시설에서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피크닉 행태를 보면, 저녁식사 혹은 가벼운 술을 먹는 사람들이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대화하는 사람들,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순이었다. 하절기 주중 저녁 시간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 하절기 평일 저녁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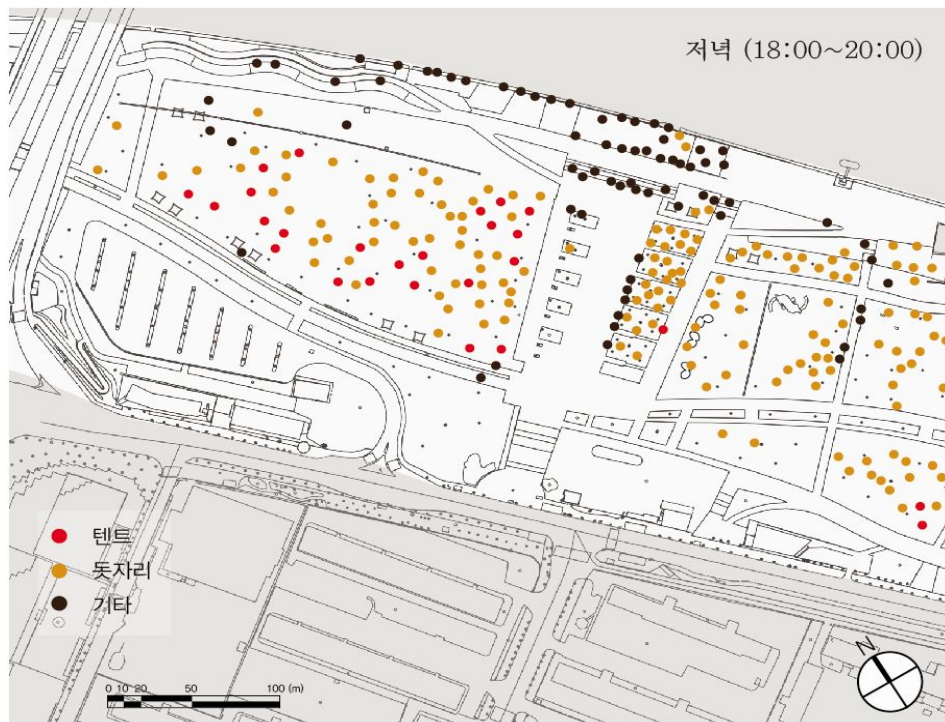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26	4	234	52	114	13	205	18	24	195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34	87	7	217	23	69	41	244	157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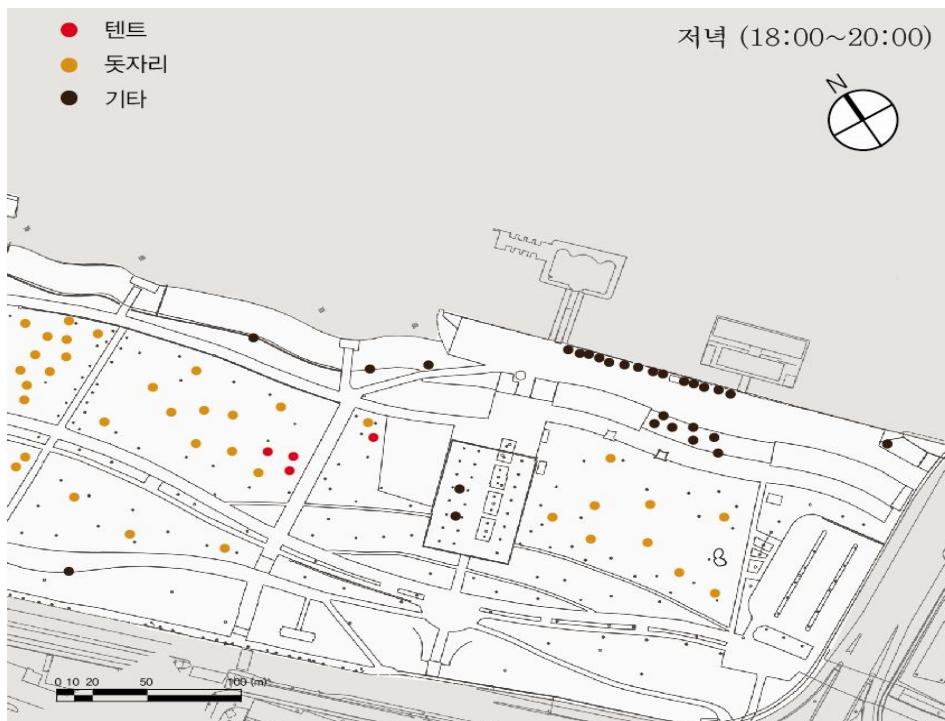
<그림 4-5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5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5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6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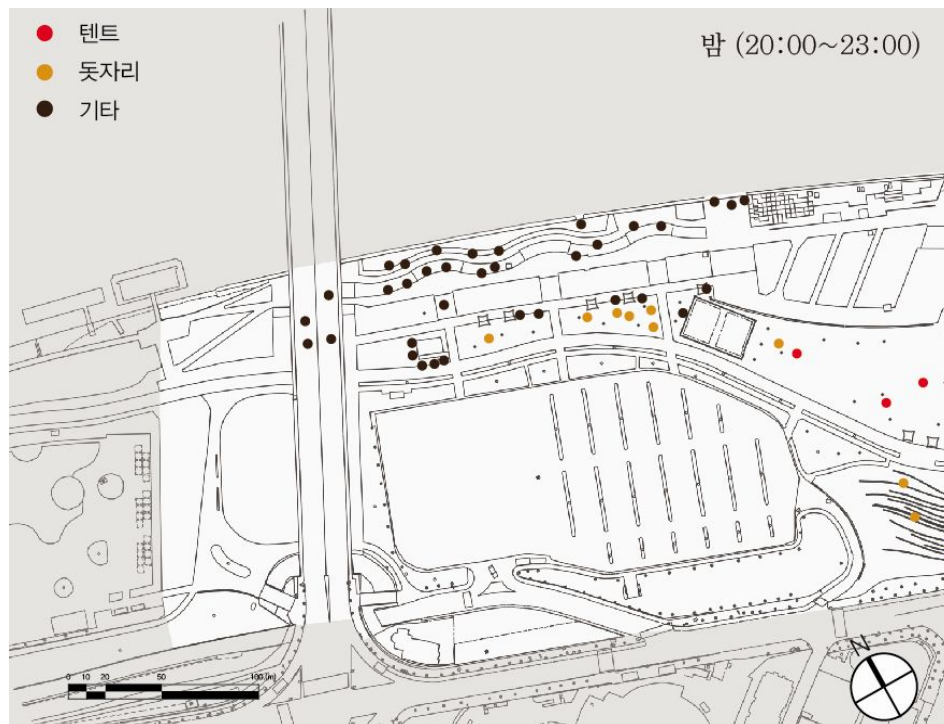
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 분석

하절기 주중 밤에는 주중의 모든 시간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이용자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았다. 중심녹지를 가장 많이 점유하였으며 한강변과 무대 인접공간도 많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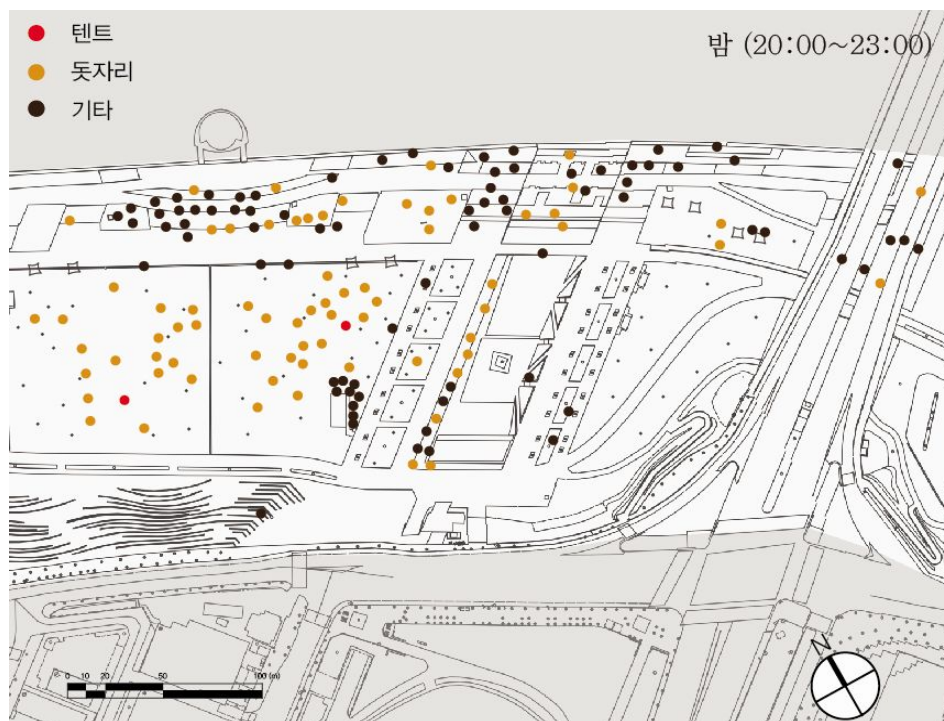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무는 사람들의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낮에 비해 좀 더 넓은 분포로 자리를 잡았다. 돛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심 녹지공간에 주로 자리를 잡았으며, 텐트나 돛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한강변 공간에 자리를 잡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먹거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서강대교~원효대교 구간 중에서는 여의나루역과 가까운 멀티플라자 좌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 장소를 점유하였고, 원효대교와 가까운 곳은 상대적으로 이용객들이 적었다. 하절기 주중 밤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16>과 같다.

<표 4-16> 하절기 평일 밤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2	4	269	39	186	61	211	17	16	327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5	208	0	268	22	88	39	280	252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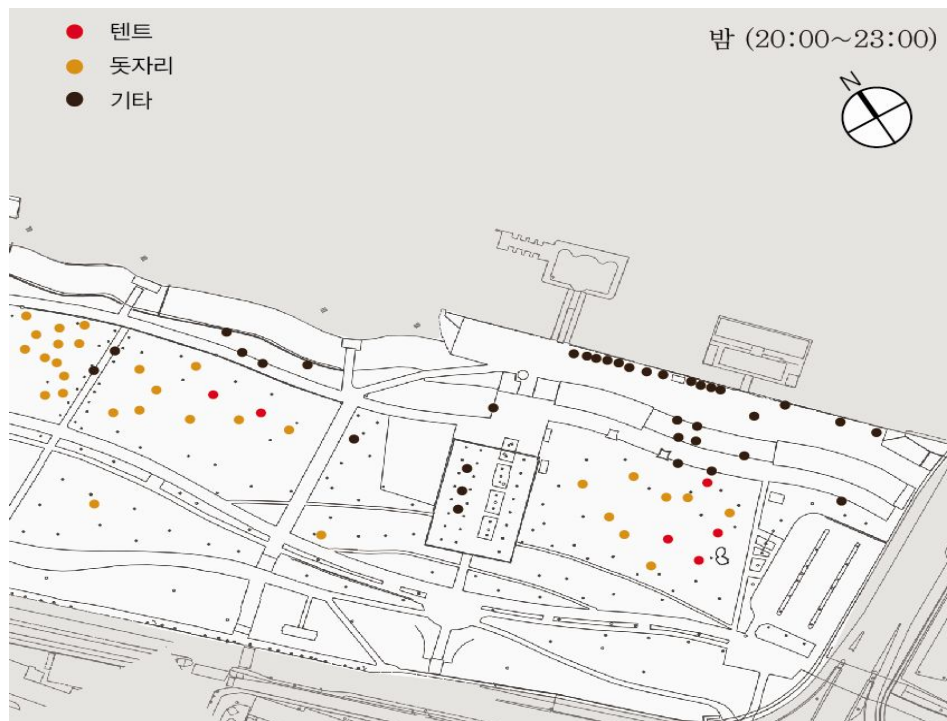
<그림 4-6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



<그림 4-6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I)



<그림 4-6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6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밤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2) 여의도 한강공원 주말 피크닉 행태지도 분석

1) 주말 오전의 피크닉 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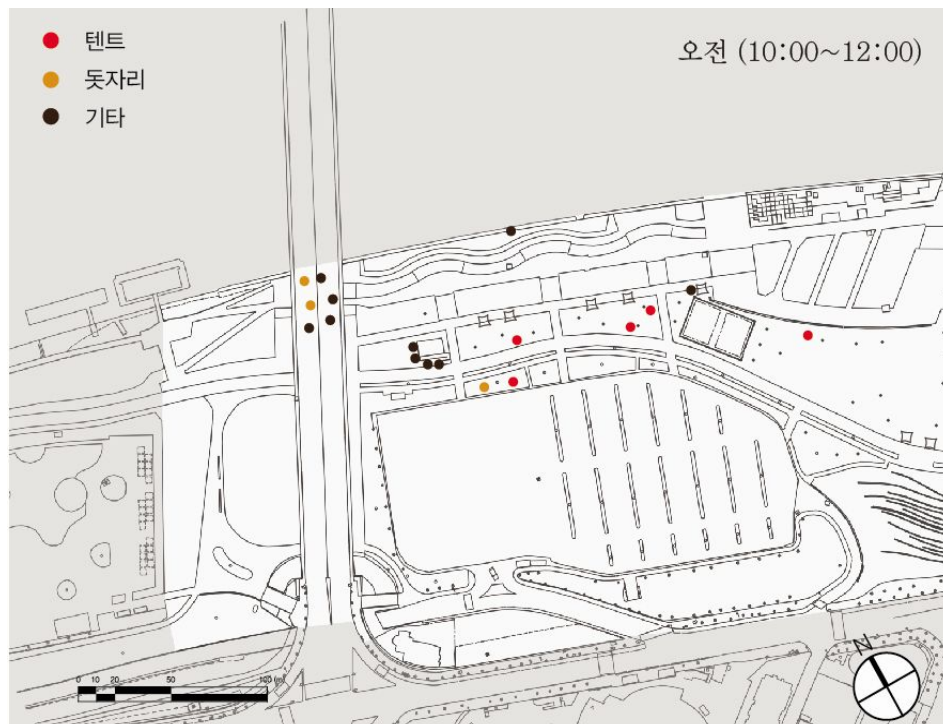
주말 오전에는 주중 오전 시간대에 비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았다. 그러나, 이들 중 반 이상이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자리를 잡아 캐스케이드를 둘러싼 데크와 피아노 물길이 이어지는 마포대교 밑에 높은 이용자 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캐스케이드에 인접한 데크에 자리를 잡은 이용객들은 그들이 없음에도 우선적으로 물놀이가 용이한 지점을 선점하였으나, 나머지 이용객들은 대부분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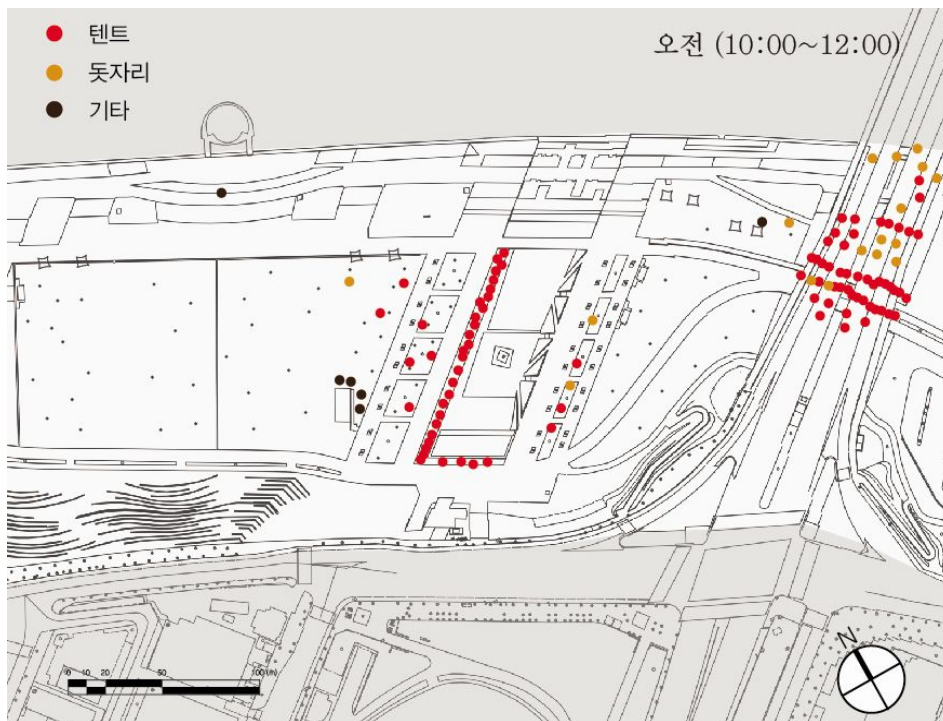
주중에 비해 텐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여 총 이용자 수의 66%를 차지하였다. 이 텐트 이용자의 대부분이 수변 시설 인접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수변 시설과 인접하여 자리를 잡은 만큼 주중보다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른 시간부터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을 먹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절기 주말 오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나타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4-17>과 같다.

<표 4-17> 하절기 주말 오전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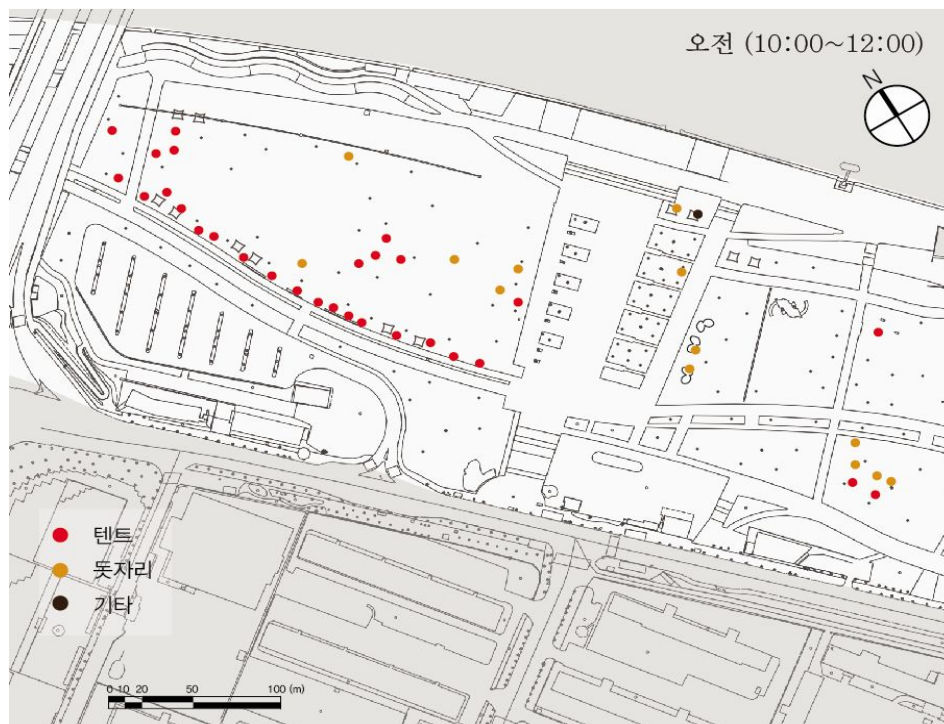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7	2	48	104	38	2	72	29	68	32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08	19	1	50	1	22	134	35	32	201



<그림 4-6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6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6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6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전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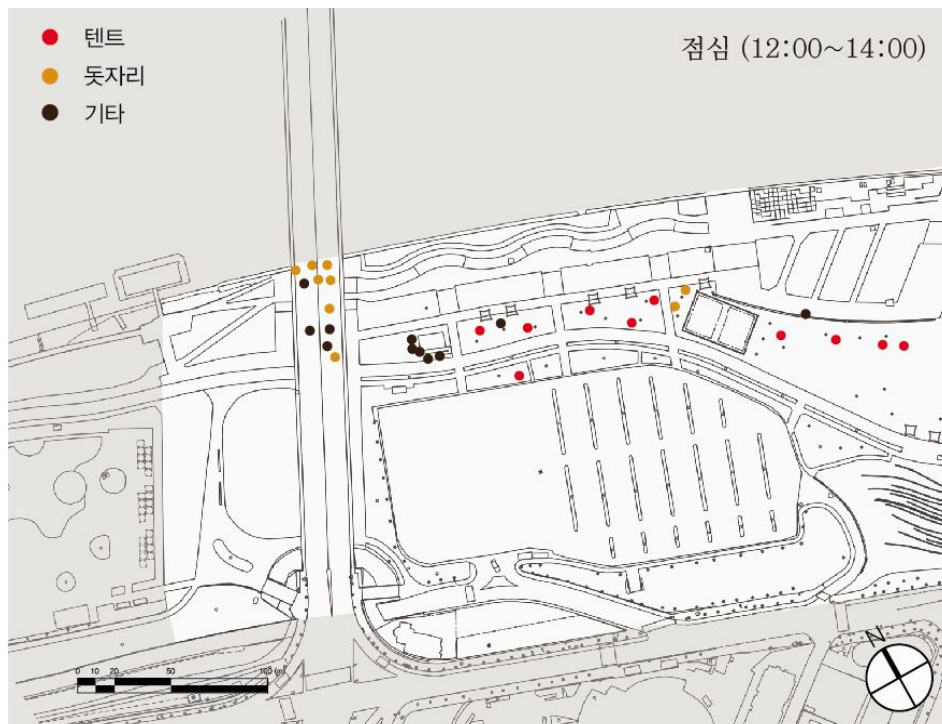
2) 주말 점심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점심에는 주말 오전 시간대에 보였던 이용행태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수변시설 인접공간을 점유하였고, 오전보다 더 높은 밀도를 보이며 캐스케이드 인접 공간과 마포대교 밑의 공간은 총 490명 중 251명의 이용객이 점유하였다. 마포대교부터 멀티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중심 녹지공간에서도 잔디밭 중앙보다는 피아노 물길에 이어지는 잔디밭 가장자리 부분에 사람들이 일렬로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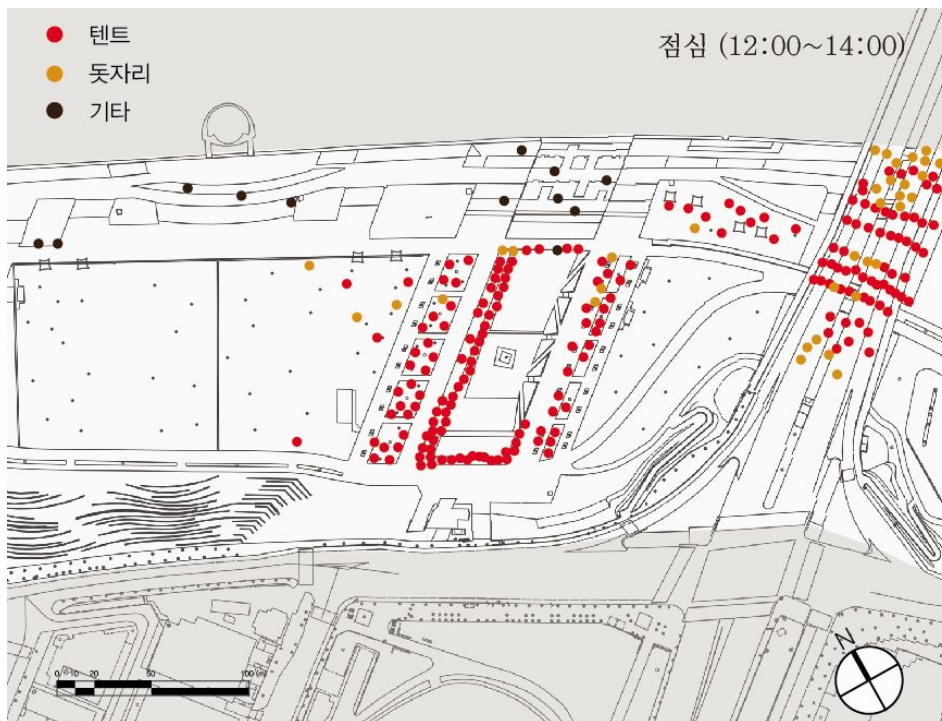
중심 녹지 공간은 오히려 원효대교와 인접한 잔디밭에 사람들이 많이 점유하였고, 평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무대 앞 너른 들판은 의외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여전히 캐스케이드 옆에 자리 잡은 이용객들을 제외하고는 그늘 밑과 다리 밑 공간을 선호하였다. 점심시간대라 먹는 행위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나, 수변 시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점심시간에도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절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18>과 같다.

<표 4-18> 하절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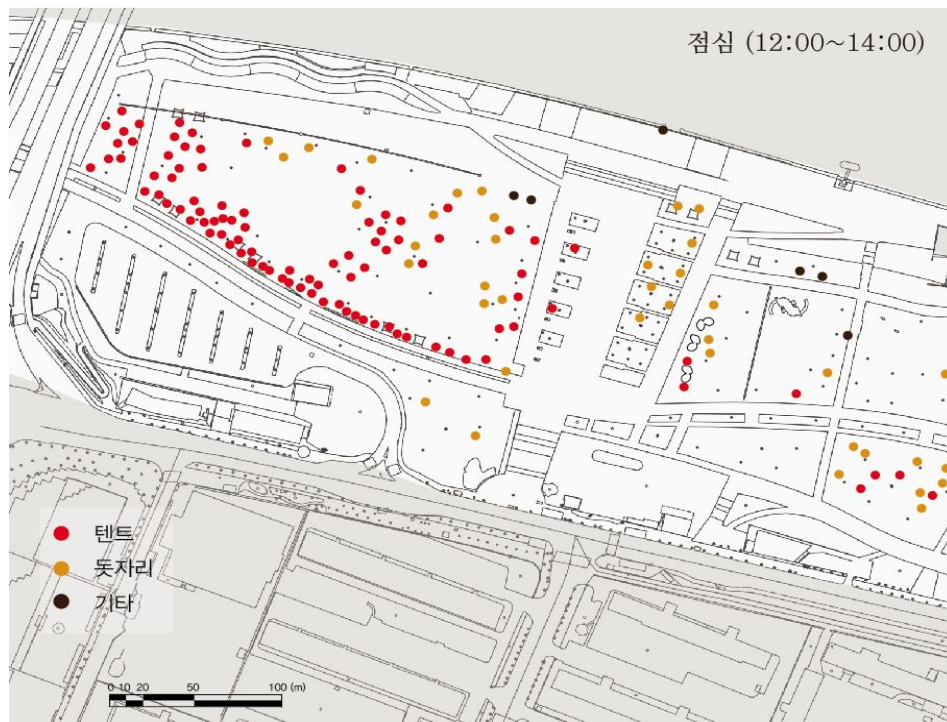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25	11	160	251	36	7	337	32	107	14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31	28	5	259	7	60	341	106	43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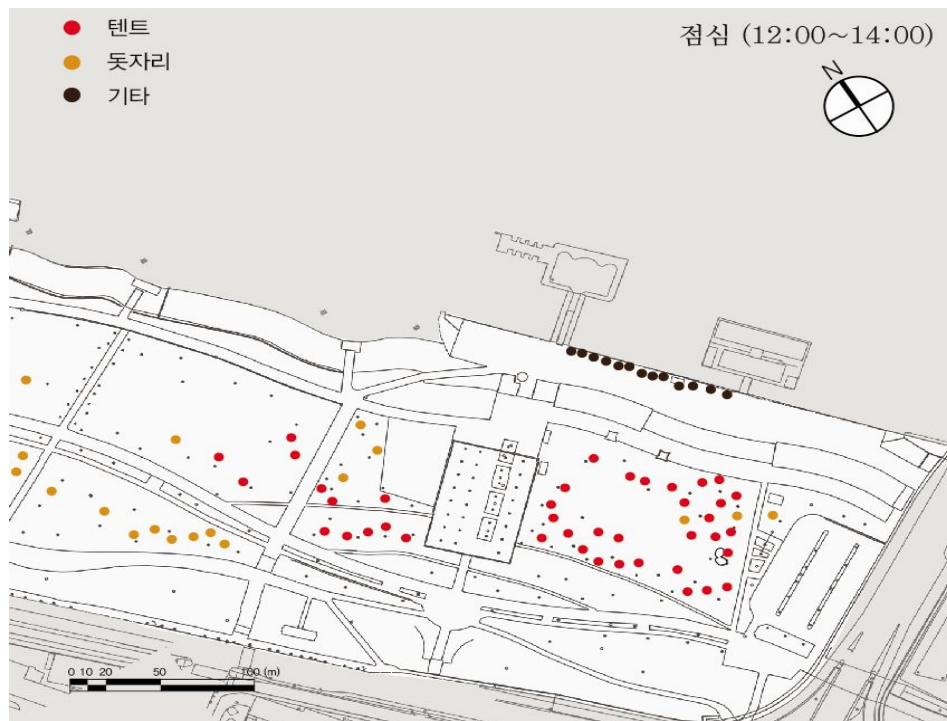
<그림 4-69> 여의도 한강공원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



<그림 4-70> 여의도 한강공원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 II)



<그림 4-7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7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점심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3) 주말 오후 2시~4시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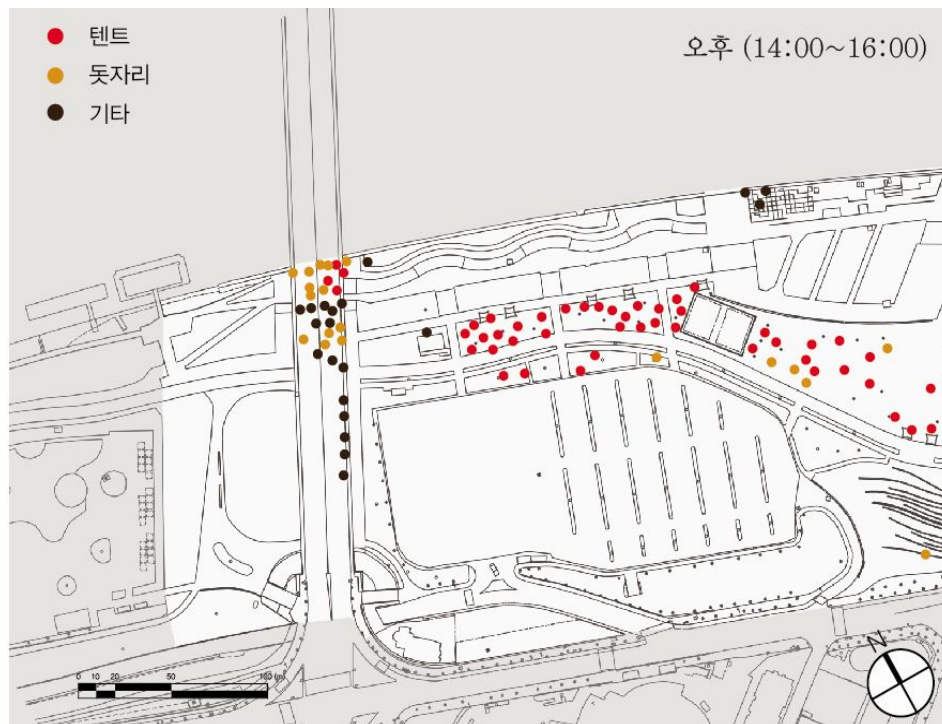
주말 오후에는 무대 앞 너른 들판을 제외하고는 오전, 점심 시간대보다 고른 이용자 분포를 보였다. 수변 시설 인접공간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텐트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고, 캐스케이드 끝 부분의 한강변에는 텐트나 돛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볍게 물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캐스케이드 끝 부분 한강변에서는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였다.

가장 더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늘과 다리밑 공간을 더욱 선호하였고, 마포대교는 여전히 고밀도의 모습을 보였으며, 서강대교 밑의 공간도 물놀이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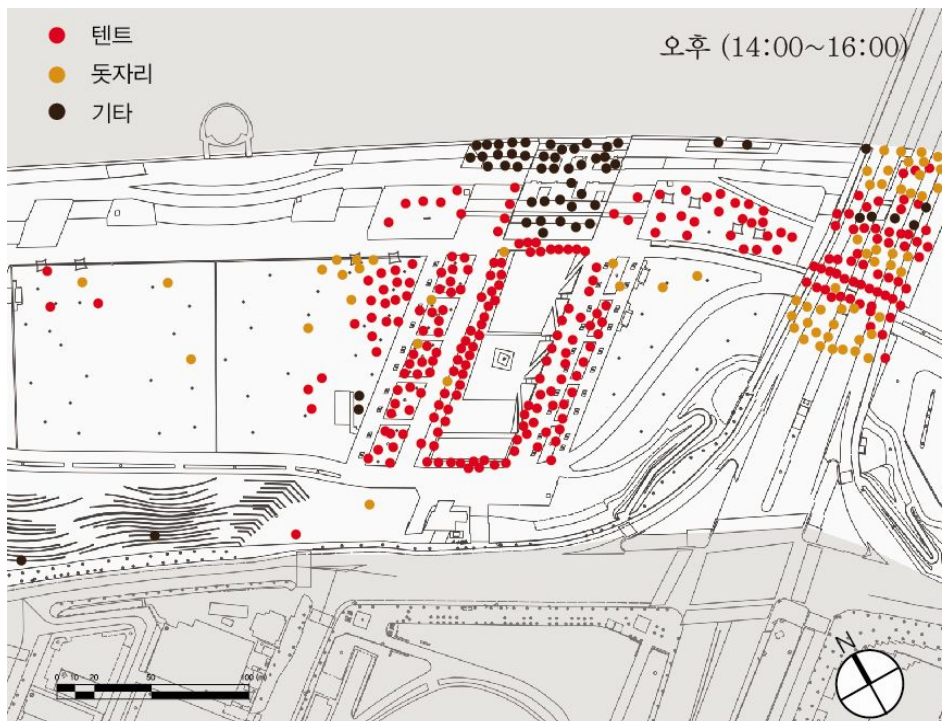
여전히 먹거나 물놀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특별한 활동 없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하절기 주말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19>와 같다.

<표 4-19>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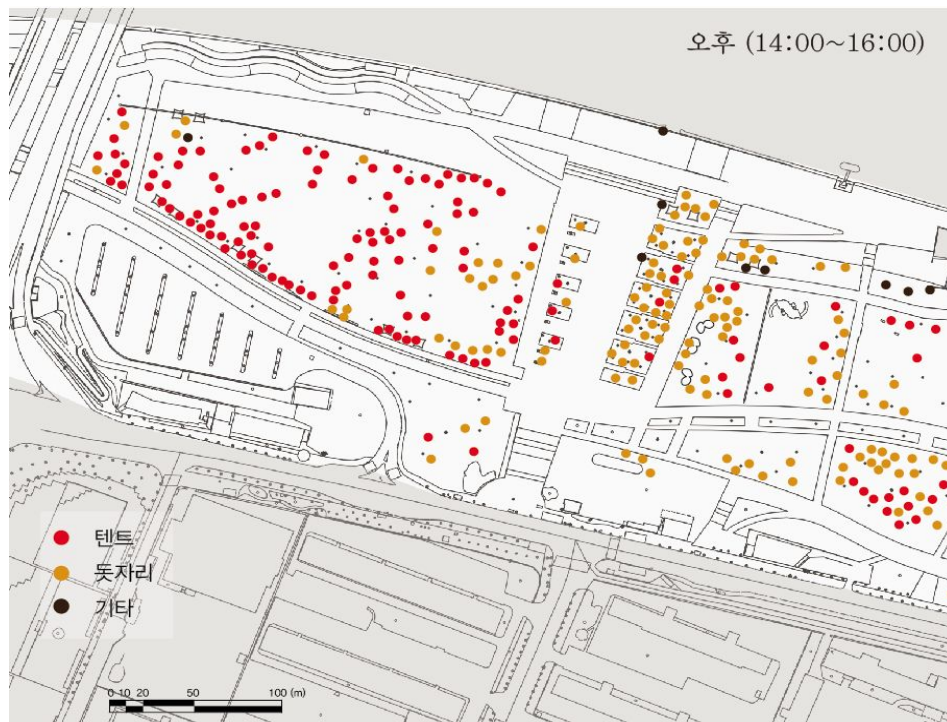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85	26	337	285	160	19	537	58	172	145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227	141	5	208	47	284	535	273	104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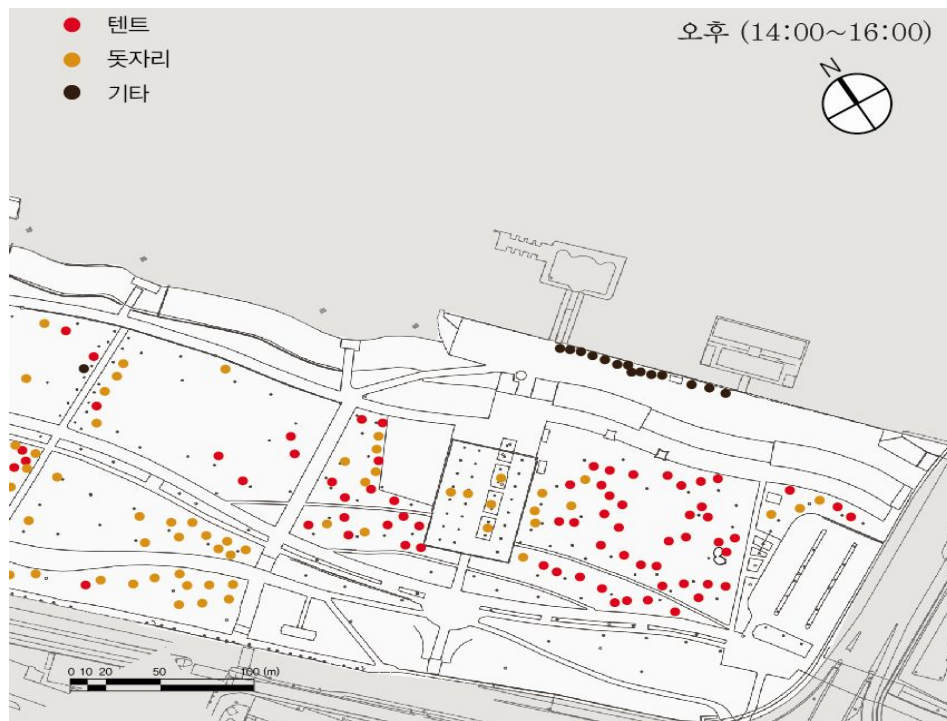
<그림 4-7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7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7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7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2시~4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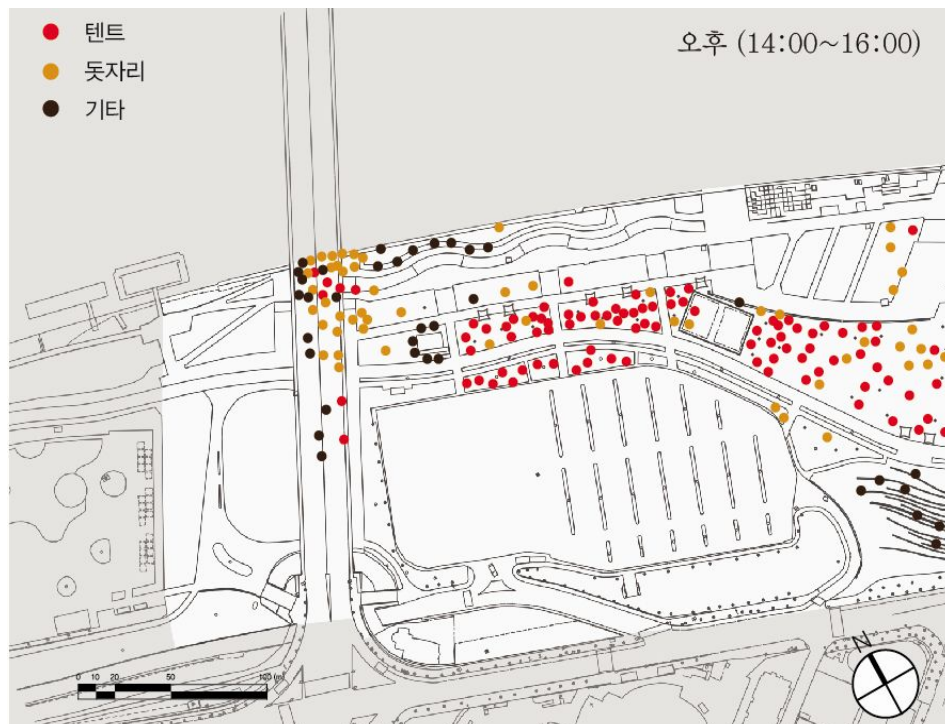
4) 주말 오후 4시~6시 시간대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오후 4시~6시 시간대에는 오후 2시~4시 시간대에 비해 햇빛이 약하고 기온이 떨어지기에 공간 별로 고른 이용행태를 보인다.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밑의 공간은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캐스케이드 인접 데크에 자리를 잡았던 텐트 이용자들이 귀가하여 남은 공간을 돛자리를 이용하여 자리를 점유하는 새로운 이용객들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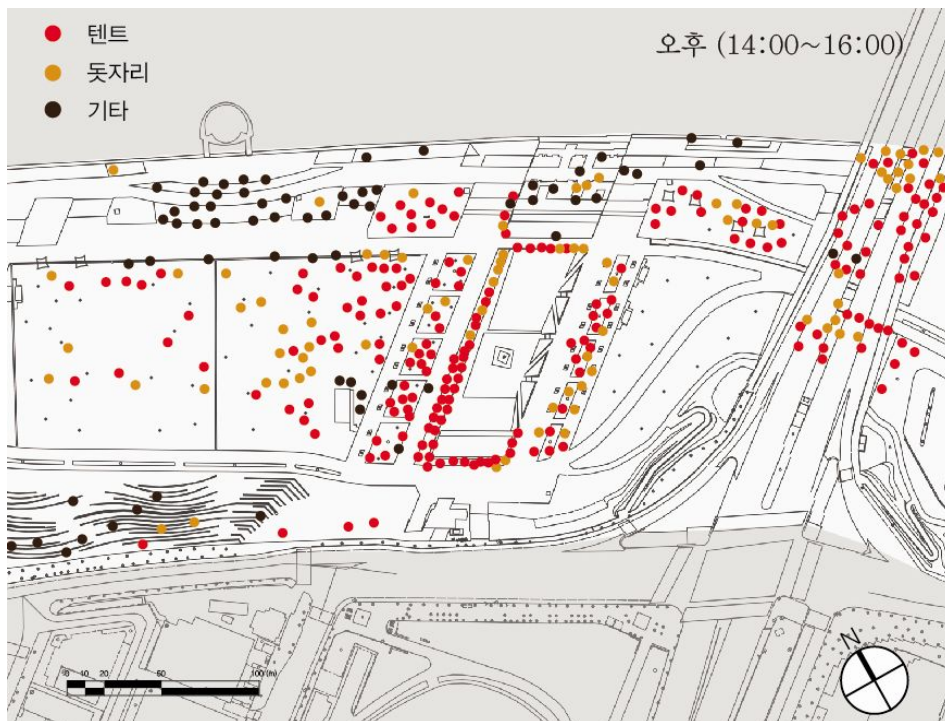
이전 시간대까지 텐트 이용자가 항상 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던 반면, 오후4시~6시 시간대에는 돛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오전부터 혹은 점심부터 수변 시설 인접공간이나 다른 공간에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던 사람이 귀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돛자리 이용객들이 늦은 오후 시간대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절기 주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20>과 같다.

<표 4-20>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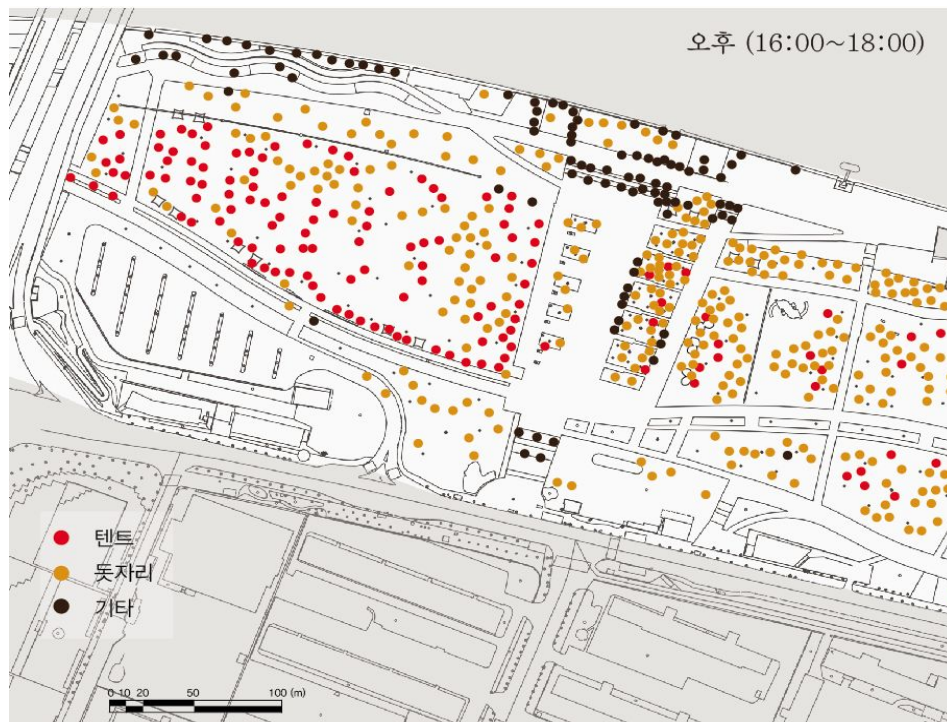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44	26	582	186	337	66	767	72	101	401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93	334	11	388	70	345	490	575	276	1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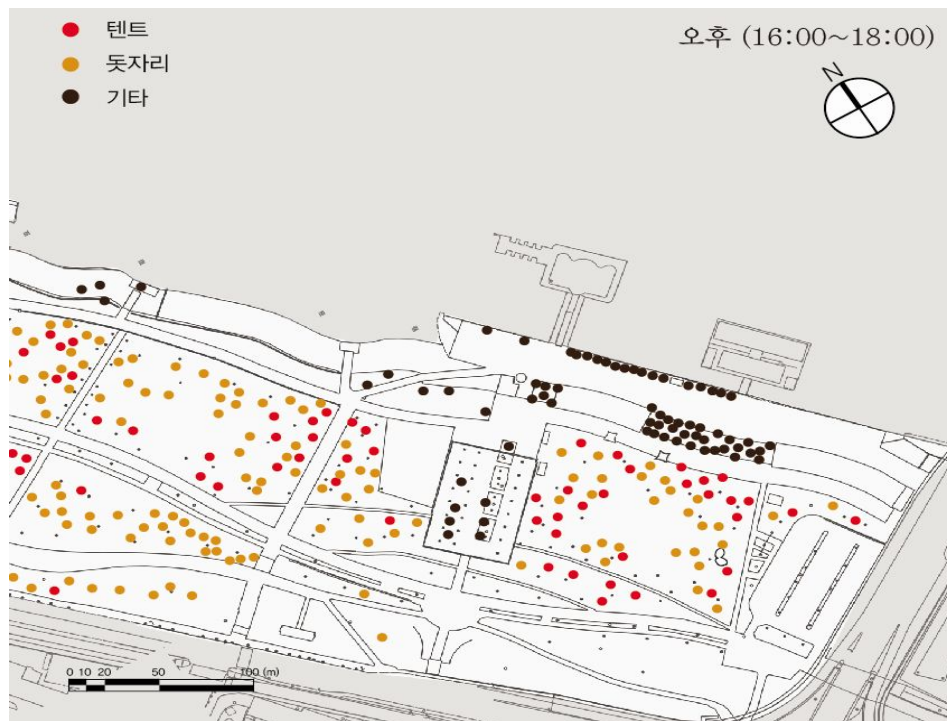
<그림 4-7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7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79>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80>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오후 4시~6시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5) 주말 저녁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말 저녁에는 수변 시설 인접공간을 점유한 이용객들의 수가 더 줄어들었으며, 중심 녹지 공간에 총 이용자 수의 반 정도가 자리를 잡았다. 특히 여의나루역 입구와 연계된 멀티 플라자부터 녹음수 광장까지의 중심 녹지공간에는 텐트 이용자 수가 적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돛자리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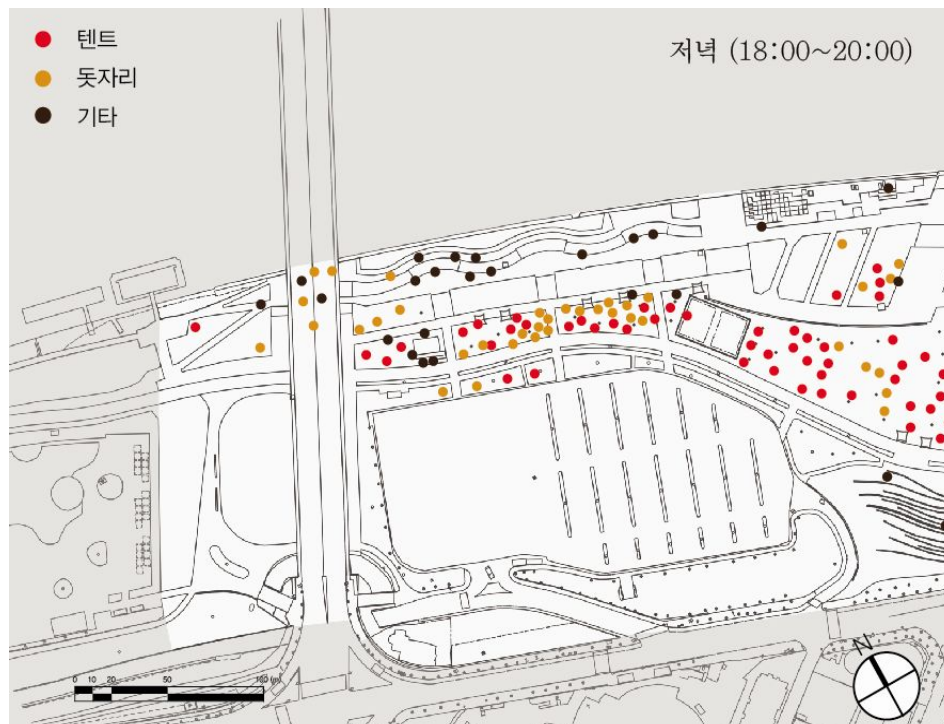
여름에는 일몰 시간이 늦춰져서 8시까지도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들의 유무는 피크닉 장소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 저녁에는 수변 무대에서 1~2시간 공연을 하는데 공연 준비시간부터 많은 이용객들이 수변 무대 앞 계단과 벤치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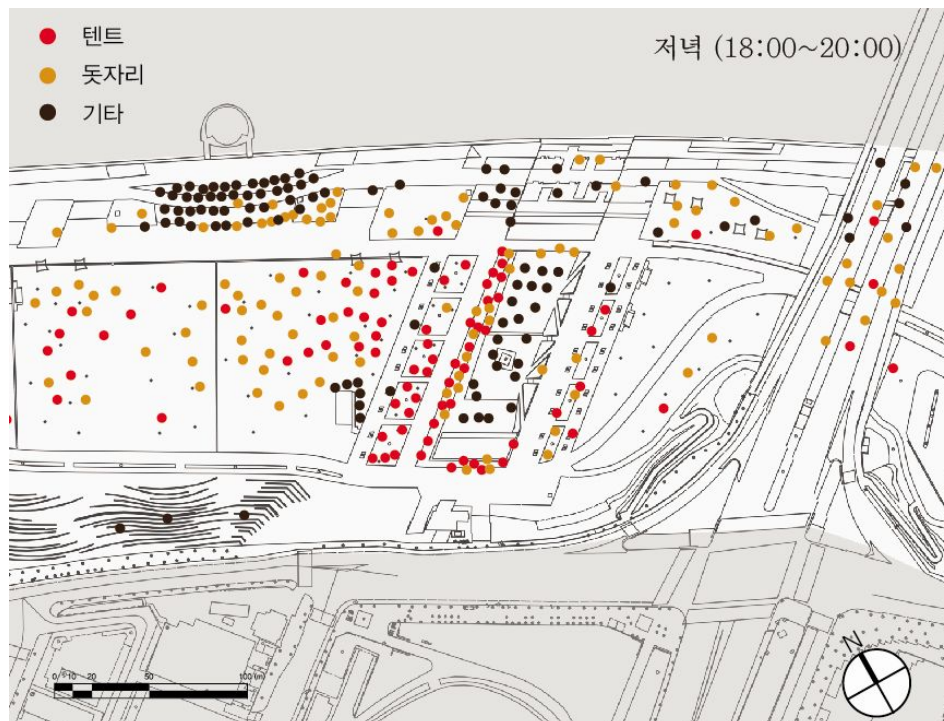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이용자 수의 반이 텐트 안이나 돛자리에 앉아 음식과 음료를 먹는 행태를 많이 발견하였다. 하절기 주말 저녁 시간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21>과 같다.

<표 4-21> 하절기 주말 저녁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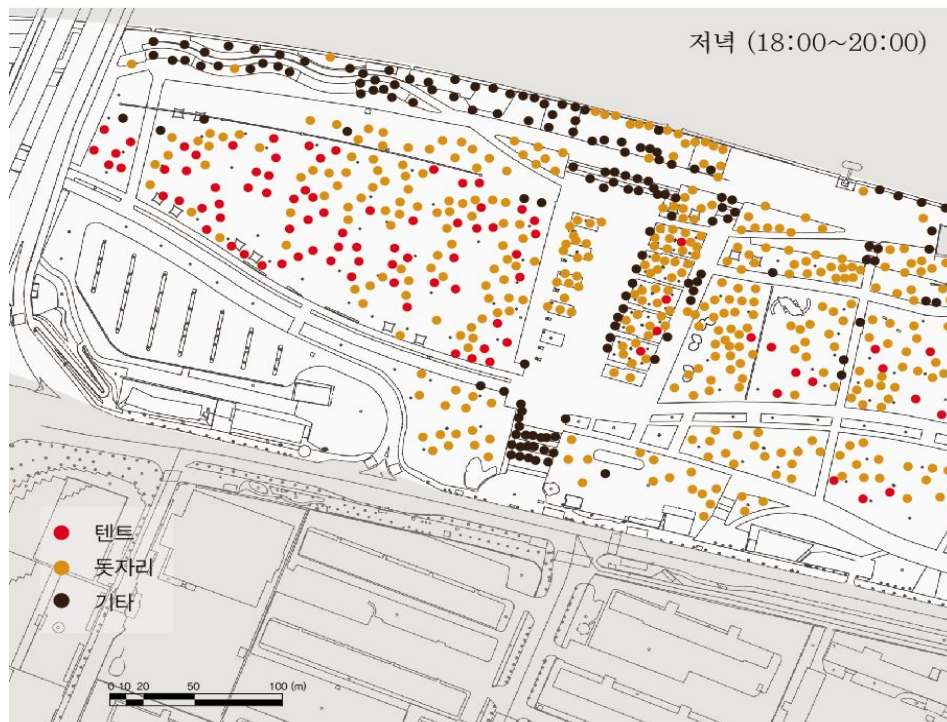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121	16	577	130	286	88	635	39	29	515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99	248	9	572	112	178	269	636	313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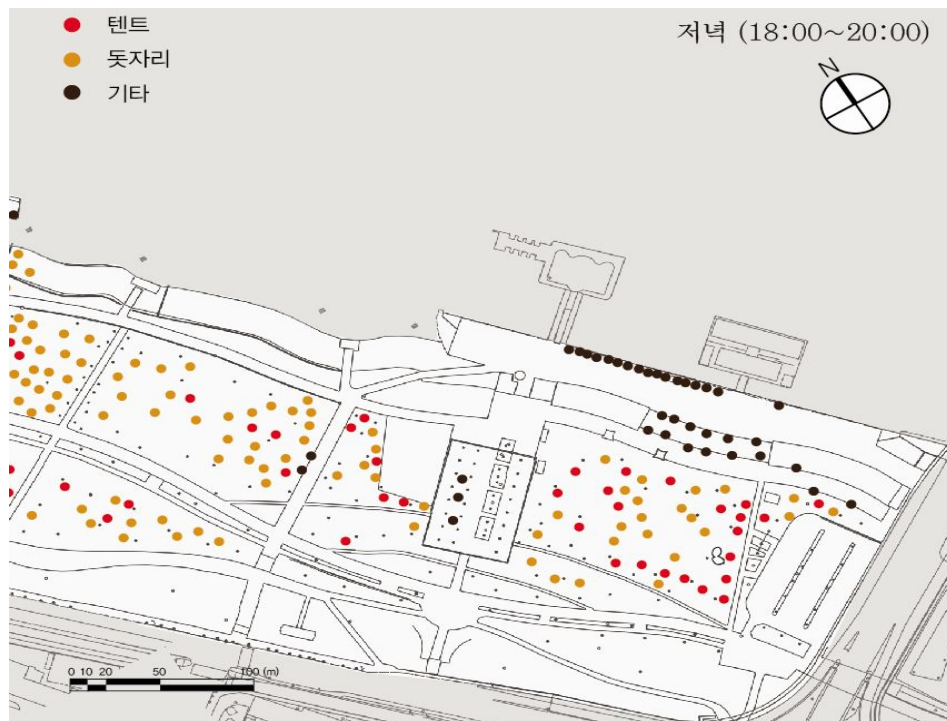
<그림 4-8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8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8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그림 4-8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저녁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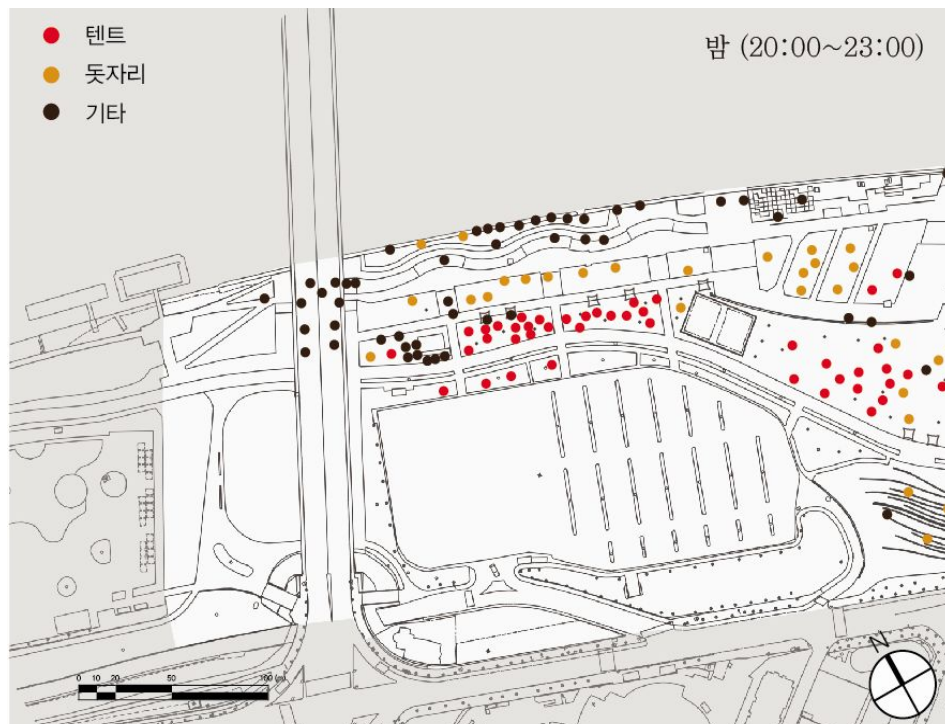
6) 주말 밤의 피크닉 이용행태

주중 밤 시간대는 주중 시간대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았던 반면, 주말 밤에는 다소 이용객 수가 감소하였다. 수변 시설 인접공간에 있던 이용객들은 대부분 귀가하였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중심녹지 공간과 한강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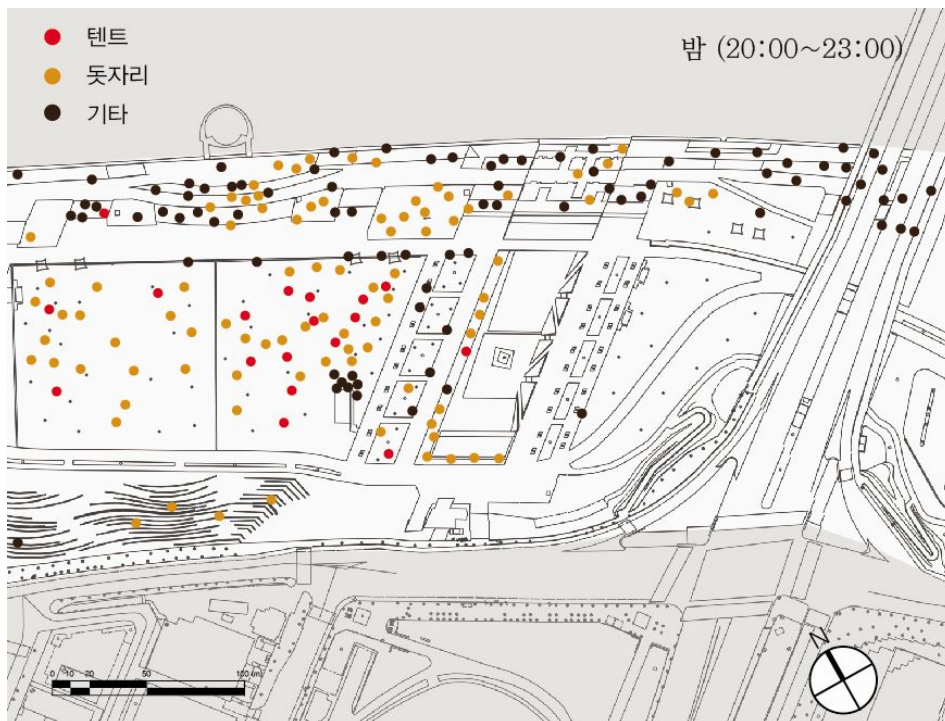
저녁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먹는 행태를 보이는 이용객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하절기 주말 밤 시간대의 피크닉 행태지도에 나타난 이용자 그룹 수는 다음 <표 4-22>와 같다.

<표 4-22> 하절기 주말 밤 시간대의 행태지도에 표시된 피크닉 이용자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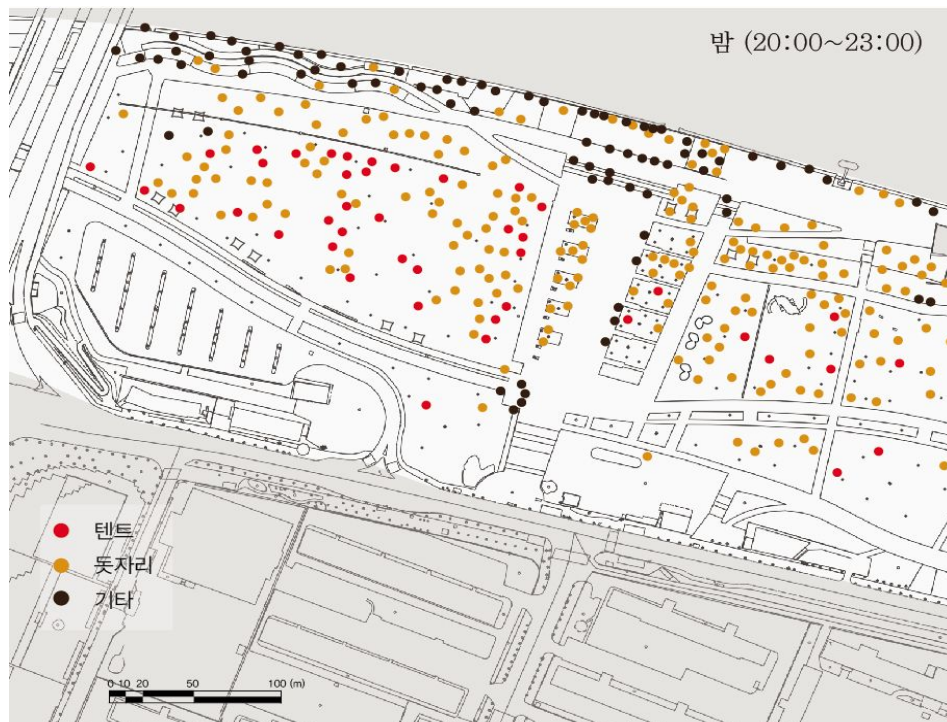
공간 별 점유						그늘 유무			
진입 공간	놀이터	중심 녹지	수변 시설	한강변	무대	나무밑	그늘막	다리밑	없음
29	5	369	31	227	77	378	33	19	308
피크닉 행태						피크닉 용품			계
놀이	대화	읽기	먹기	보기	휴식	텐트	돛자리	없음	
15	385	0	288	17	133	122	371	245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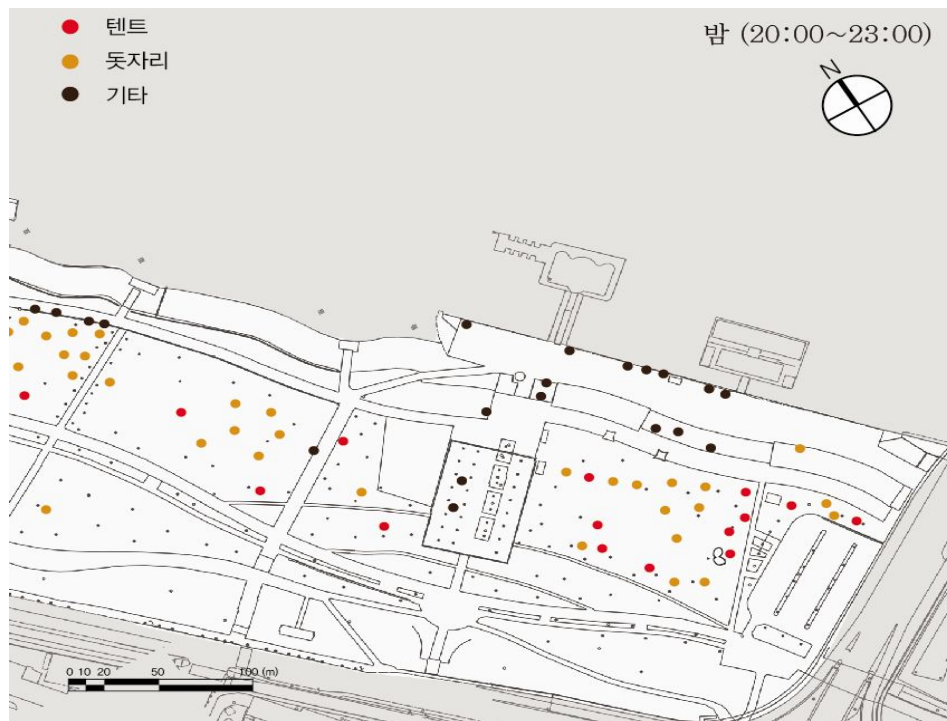
<그림 4-8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Ⅰ)



<그림 4-8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밤 피크닉 행태지도(서강~마포대교 구간Ⅱ)



<그림 4-8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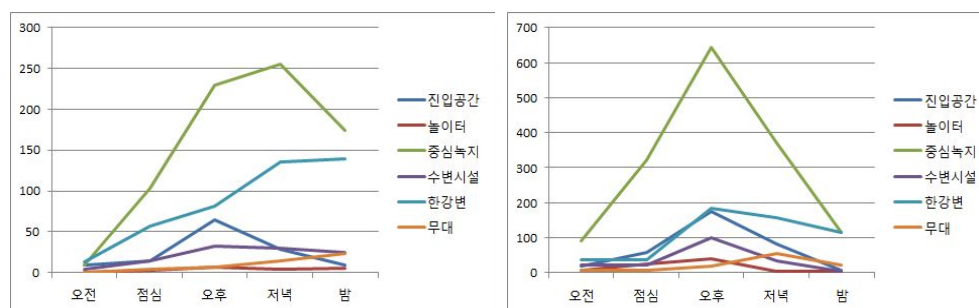
<그림 4-8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밤 피크닉 행태지도(마포~원효대교 구간Ⅱ)

3. 여의도 한강공원 행태지도 종합 분석

앞서 춘절기와 하절기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피크닉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앞의 피크닉 행태지도를 토대로 두 계절 별 주중과 주말의 피크닉 이용행태의 차이점과 전체적인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이용행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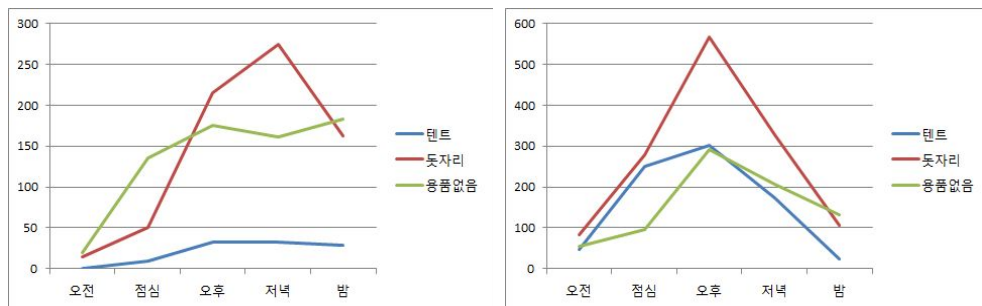
(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행태지도 종합 분석

공간 별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중심녹지공간에 가장 많은 피크닉 이용자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다음으로 한강변 공간과 진입 공간 순으로 많이 점유하였다. 또한 주중과 주말 모두 해가 지고 난 저녁과 밤 시간대에 한강변과 무대 인접공간의 점유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해가 지고 나면 중심 녹지공간이나 진입로는 조명이 거의 없고 어두운 데 비해 한강과 가까운 곳은 조명이 있고 한강에 반사되는 빛이 있어 상대적으로 밝아 한강변으로 이용자들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의 한강변에는 커플 단위로 온 이용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강변과 주변의 조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 낮은 비율을 보였던 무대 인접공간 피크닉 이용자들이 저녁과 밤 시간대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변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야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된다. 물론 야간에도 중심녹지의 점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심녹지의 중앙부분보다는 오히려 보행로에 근접한 공간을 주로 점유하였다. 이는 중심녹지에 부족한 조명을 보행로에 있는 가로등의 불빛으로나마 해결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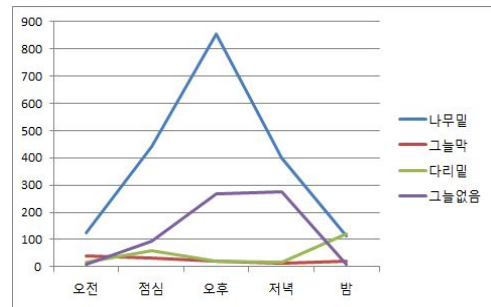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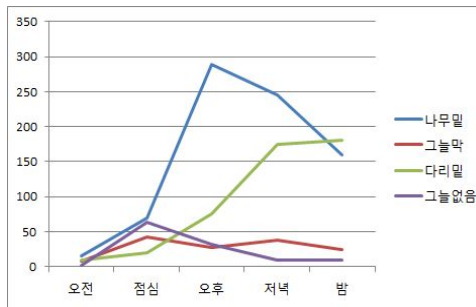
<그림 4-89>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 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단위: 그룹) <그림 4-90>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 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단위: 그룹)

피크닉 용품의 유무를 살펴보면 주중에는 저녁 시간대에 가장 많은 돛자리 이용자가 관찰되었다. 이는 주중에는 직장이나 학교를 가기 때문에 퇴근이나 하교 후에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녁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말에는 주중과 달리 텐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말에 주로 피크닉을 하러 오는 이용객들이 가족 단위의 그룹이 많기 때문에 돛자리에 비해 비싼 텐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일몰 이후에는 텐트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이후에 텐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일몰 후 텐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91>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 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단위: 그룹) <그림 4-92>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 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단위: 그룹)

그들의 유무에 따른 장소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 모두 그들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늘막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나무 밑의 장소에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자리를 잡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말에 더 나무 밑의 이용객 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중과 주말 모두 저녁 시간 이후에는 그 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점은 주중과 주말 모두 일정수의 이용객들이 한강다리 밑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야간 시간대에 더 많은 이용자가 다리 밑에 집중되었다. 이는 아무래도 한강 다리 밑의 조명이 다른 공간보다 밝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9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간대별 이용자의 그늘 선호도 (단위: 그룹)

<그림 4-94>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간대별 이용자의 그늘 선호도 (단위: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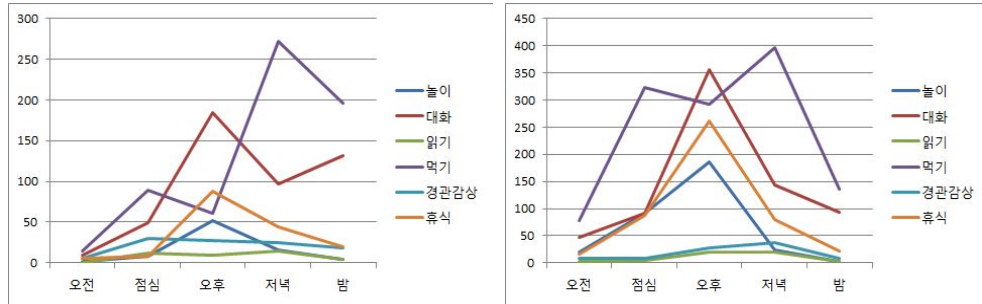


<그림 4-95> 진입공간의 그늘 밑에 자리 잡은 피크닉 이용자들 (사진: 연구자)

<그림 4-96> 한강변 인접 공간의 그늘막 밑의 피크닉 이용자들 (사진: 연구자)

피크닉 행태를 보면 주중과 주말 모두 먹는 행위와 대화를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 물놀이를 하거나 공놀이 혹은 연날리기 등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젊은 층의 학생들 모임에서는 게임을 하는 등 가벼운 놀이를 즐기는 경우도 종종 관찰되었다. 책을 읽거나 한강의 경관과 다른 사람들의 이용 행태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중 점심 시간대에는 주변의 직장인들이 와서 돛자리를 펼치고 직장동료끼리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오후시간대에는 먹기보다는 대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이용객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중에는 저녁과 밤 시간대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렸고, 이때는 먹는 행태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아무래도 피크닉을 하는 데에 먹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주중과 주말 모두 야간시간대의 여의도 한강공원이 가볍게 식사도 하고 음료와 술을

마시기에 선호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4-9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중 시 <그림 4-98>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주말 시
 간대별 피크닉 이용자의 이용행태 (단위: 그룹) 간대별 피크닉 이용자의 이용행태 (단위: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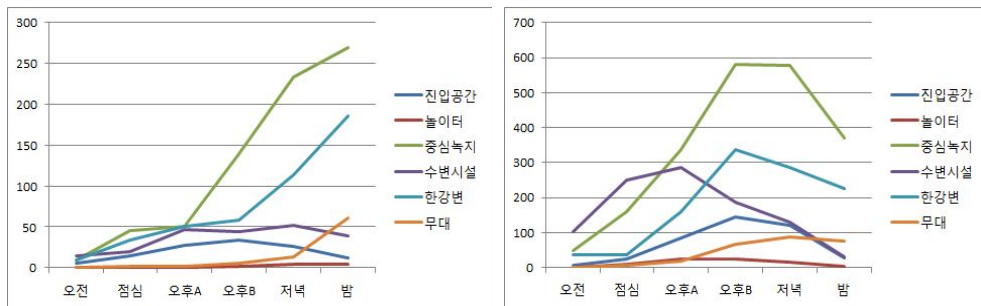
(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행태지도 종합 분석

하절기의 여의도 한강공원 내 공간 별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주중과 주말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중심녹지공간에 가장 많은 피크닉 이용자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저녁과 밤 시간대에 한강변 인접 공간에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하절기 주중의 공간 별 점유 행태 중 춘절기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춘절기에는 저녁 시간대가 가장 많은 이용객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한 반면, 하절기에는 밤 시간대(20:00시~23:00시)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절기에는 밤 시간대가 되어도 춘절기만큼 많이 쌀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추위에 대한 부담이 없이 늦은 시간에도 공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중 밤 시간대에는 한강변 공간 뿐 만 아니라 수변무대 인접 공간에도 많은 이용객이 자리하였다. 또한 춘절기와 달리 캐스케이드나 피아노 물길같은 수변 시설 인접공간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점유하였다. 특히 주말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수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한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이 몰려 높은 밀도의 점유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중심녹지공간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말 오전부터 점심 시간대까지 수변시설 인접 공간의 이용자수가 다른 공간의 이용자 수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주말 오전: 104명, 주말 점심: 251명)



<그림 4-99> 캐스케이드 주변에 밀집한 텐트 <그림 4-100> 마포대교 밑의 공간에 밀집한 텐트 이용자들 (사진: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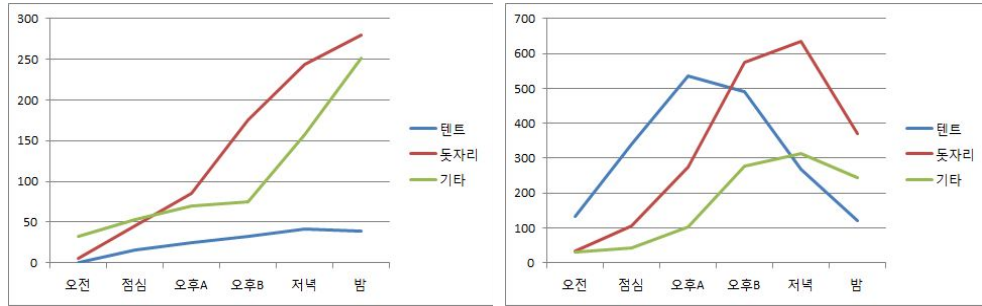
주말의 이용자 수가 거의 모든 시간대에 걸쳐 주중의 이용자 수보다 많지만, 주말의 저녁시간대에서 밤 시간대로 넘어가면서 한강과 가까운 공간을 제외하면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중은 공간 별 이용자수가 저녁시간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진입공간은 늦은 오후, 놀이터 인접 공간은 오후, 중심녹지와 한강변 공간은 늦은 오후, 수변시설은 점심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 무대 인접공간은 저녁 시간대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였다.



<그림 4-101>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간대 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단위:그룹) <그림 4-102>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간대 별 이용자 공간 점유 빈도 (단위: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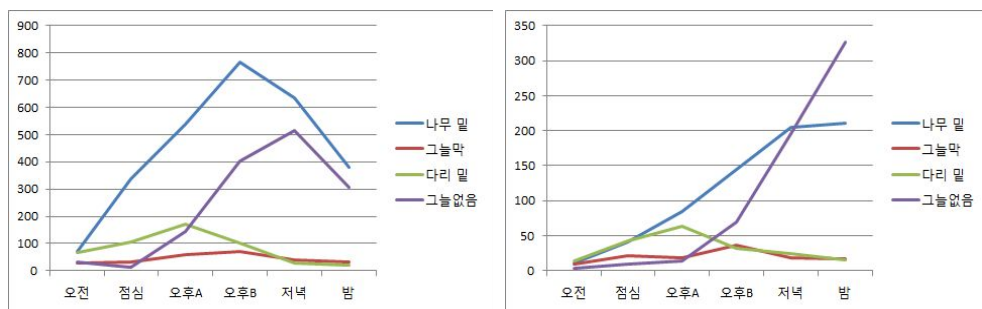
하절기의 피크닉 이용자의 피크닉 용품 유무를 살펴보면, 텐트는 저녁 시간대, 돛자리 이용자는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텐트 이용자 수는 춘절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말에는 오전 시간대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전체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춘절기와 다른 텐트 이용자의 높은 비율을 관찰하였다. 이는 하절기에 수변시설을 이용하려는 가족 단

위의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다른 유형의 이용자들보다 장시간 공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텐트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텐트와 달리 별도의 그늘 역할을 못하는 돛자리나 용품이 없는 이용자들은 늦은 오후 시간대부터 햇빛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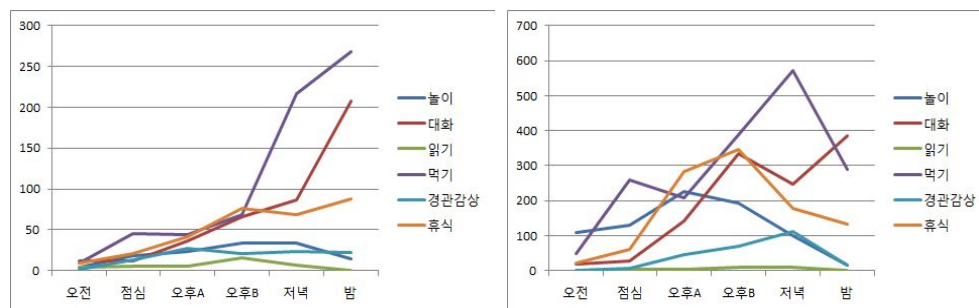
<그림 4-103>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 <그림 4-10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
간대 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단위:그룹) 간대 별 피크닉 용품 사용 빈도 (단위:그룹)

하절기 그늘의 유무에 따른 이용자의 장소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춘절기 주중에는 저녁과 밤에 다리 밑의 가장 많은 사람이 피크닉을 즐긴 반면에, 하절기에는 가장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다리 밑의 공간을 선호하였고 그 이후로는 나무 밑 공간을 선호하였다. 그늘막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시간대 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말에도 다리 밑의 공간은 점심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였지만, 저녁 이후로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나무 밑의 공간은 늦은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찾았고, 시간대 별로 항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4-105>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 <그림 4-10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
간대 별 이용자 그늘 선호도 (단위:그룹) 간대 별 이용자 그늘 선호도 (단위:그룹)

하절기의 피크닉 행태를 살펴보면,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춘절기에는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 반면, 하절기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시간대까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주중 점심시간대에는 춘절기보다 많지 않았고 저녁부터 밤은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많이 관찰되었다. 점심 시간대에는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크닉 이용객과 인근의 직장인들이 춘절기만큼 점심을 먹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하절기 주말에는 점심 시간대부터 밤 시간대까지 꾸준히 먹는 행위가 많이 관찰되었고, 경관을 감상하는 행위도 저녁 시간대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인하여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행위가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 이용자의 대부분은 물놀이나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림 4-107>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중 시간대 별 피크닉 이용행태 (단위:그룹)

<그림 4-10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주말 시간대 별 피크닉 이용행태 (단위:그룹)

2절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기초통계 분석

1.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와 이용자의 이용행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지, 그리고 리커트 척도를 적용한 피크닉 동기와 피크닉 만족도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행태지도와 마찬가지로 춘절기와 하절기에 진행하였는데, 춘절기에는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 어린

이날 연휴기간, 5월 3일부터 5월 5일 3일간 진행되었으며, 하절기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가 지면 설문지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설문 시간대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잡고, 점심부터 저녁시간까지 진행되었다. 사전에 연구 주제와 설문지 문항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은 서강대학교 학부생 1명과 연구자가 함께 총 2명이 수행하였다. 먼저, 2절에서 설명할 피크닉 이용자 특성의 설문지는 분류된 각 여섯 가지 공간마다 각 30부씩 춘절기와 하절기 각각 총 180부를 돌렸고, 무성의한 답변이 기록된 응답지 10부를 제외, 총 350부(춘절기 179부, 하절기 171부)의 유효부수를 회수하였다.

2.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 구성

(1) 응답자 특성

1) 춘절기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69명(38.5%), 여성 110명(61.5%)으로 여성 응답자 수가 많았다. 이는 여의도 한강공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에서 남성 이용자수가 여성보다 많다고 한 연구 결과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²³⁾. 이는 남성 이용자들은 자전거 타기나 운동 같은 동적인 행태에 더 집중되어 있고 여성 이용자들은 주로 피크닉 같은 정적인 행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 피크닉이라는 여가 활동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친숙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10대 38명(21.2%), 20대 61명(34.1%), 30대 45명(25.1%), 40대 25명(13.9%), 50대 9명(5.0%)과 60대 이상 1명(0.5%) 이었다. 이로 인해 피크닉 행태가 주로 10대~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직업군으로는 학생(80명, 44.7%)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36명, 20.1%), 전문직(24명, 13.4%), 판매/서비스직(13명, 7.3%), 가정주부(8명, 4.5%), 생산직/노동직(7명, 3.9%), 자영업(6명, 3.4%), 기타(5명, 2.8%)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10~20대 연령층의 피크닉 이용객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학생 신분인 이용자가 가

23)송지연,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 및 만족도 분석_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 1차 완료 대상지를 중심으로, 2013.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하절기 응답자 특성

하절기에 행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63명(36.8%), 여성 108명(63.2%)으로 춘절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50.9%)가 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21.6%), 10대(9.4%), 40대(7.0%), 50대(6.4%) 순으로 나타났다. 봄에 비해 여름에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더 많아 그만큼 30대 이상의 비율이 춘절기 설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절기 설문 응답자의 직업군은 학생(47.4%)이 거의 반을 차지하였고, 사무원(15.2%), 전문직(9.9%), 판매/서비스직(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거주지 분석

1) 춘절기 거주지 분석

설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한 서울시 영등포구를 포함한 반경 5km 이내 인접 구인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양천구(40명, 22.3%)보다 반경 5km 이상 거리에 있는 기타 서울지역(81명, 45.3%)과 서울 외곽지역 및 타 도시(58명, 32.4%)에서 온 이용자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은 인접 지역의 근린생활권 오픈스페이스가 아닌 광역적 차원에서의 여가 목적지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여의도 한강공원을 다룬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2) 하절기 거주지 분석

하절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거주지 분석 결과, 대상지 인접지역(18.1%), 5km 이상 떨어져 있는 기타 서울지역(36.3%), 10km 이상 떨어진 서울 외곽지역(45.6%)으로,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향을 보였다. 춘절기보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4-23>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이용자 구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9	38.5
	여자	110	61.5
	합계	179	100
연령	10대	38	21.2
	20대	61	34.1
	30대	45	25.1
	40대	25	13.9
	50대	9	5.0
	60대 이상	1	0.5
	합계	179	100
직업	자영업	6	3.4
	생산직/노동직	7	7.3
	판매/서비스직	13	4.2
	사무원	36	20.1
	전문직	24	13.4
	가정주부	8	4.5
	학생	80	44.7
	기타	5	2.8
	합계	179	100
거주지	인접지역	40	22.3
	기타 서울지역 (반경 5km 이상)	81	45.3
	서울 외곽지역	58	32.4
	합계	179	100

<표 4-24>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이용자 구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3	36.8
	여자	108	63.2
	합계	171	100
연령	10대	16	9.4
	20대	87	50.9
	30대	37	21.6
	40대	12	7.0
	50대	11	6.4
	합계	171	100
직업	자영업	11	6.4
	생산직/노동직	9	5.3
	판매/서비스직	14	8.2
	사무원	26	15.2
	전문직	17	9.9
	가정주부	12	7.0
	학생	81	47.4
	기타	1	0.6
	합계	171	100
거주지	인접지역	31	18.1
	기타 서울지역 (반경 5km 이상)	62	36.3
	서울 외곽지역	78	45.6
	합계	171	100

(3)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행태 특성

1) 춘절기 피크닉 이용행태 특성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자들의 이동수단의 경우, 도보(15명, 8.4%)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가용(43명, 24.0%)을 타고 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버스(32명, 17.9%)나 지하철(89명, 49.7%)등의 대중교

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입구와 연결되는 지하철 여의나루역과 근처의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한강공원 방문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2~3번(6명, 3.4%), 한 달에 3~4번(10명, 5.6%)를 제외하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1년에 2~3번(69명, 38.5%)과 한 달에 1~2번(42명, 23.5%) 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년에 1번(27명, 15.1%)오는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고, 처음 방문(25명, 14.0%)한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누구와 피크닉을 즐기러 왔는지를 보면, 친구(71명, 39.7%)와 온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40명, 22.3%), 애인·이성친구(38명, 21.2%), 기타 직장동료 및 선후배(30명, 16.8%) 순이었다.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5시간 이상(31명, 17.3%)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1~3시간(97명, 54.2%), 3~5시간(51명, 28.5%)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피크닉 이용자들은 1~5시간 사이에 피크닉을 즐기고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크닉 활동 시, 지참하는 이용용품으로 텐트나 돛자리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텐트(47명, 26.3%)나 돛자리(91명, 50.8%)를 준비하는 이용자가 준비하지 않는 이용자(41명, 22.9%)보다 더 많았다.

2) 하절기 이용행태 특성

하절기 피크닉 이용객들의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지하철(77명, 45.0%), 버스(37명, 21.6%)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은 주로 자가용(46명, 26.9%)을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도보(11명, 6.4%)로 대상지를 방문하였다.

방문빈도를 살펴보면, 봄의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 달에 1번(31명, 18.1%), 1년에 3~4번(30명, 17.5%), 한 달에 2~3번(27명, 15.8%), 1년에 1~2번(24명, 14.0%)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14명, 8.2%), 일주일에 2~3번(10명, 5.8%) 온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4-25>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이용자 행태

분류		여의도 한강공원 (n=179)	분류		여의도 한강공원 (n=179)
교통수단	버스	17.9	동반자	가족	22.3
	지하철	49.7		친구	39.7
	자가용	24.0		애인·이성친 구	21.2
	도보	8.4		기타 (직장동료 및 선후배)	16.8
	합계	100.0		합계	100.0
방문빈도	일주일에 2~3번	3.4	피크닉 이용시간	1~3시간	54.2
	한 달에 3~4번	5.6		3~5시간	28.5
	한 달에 1~2번	23.5		5시간 이상	17.3
	1년에 2~3번	38.5		합계	100.0
	1년에 1번	15.1			
	처음 방문	14.0			
	합계	100.0			

피크닉 동반자 유형을 살펴보면, 친구(58명, 33.9%)가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봄에 비해 가족(42명, 24.6%), 배우자·이성친구(40명, 23.4%)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4시간(56명, 32.7%)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2~3시간(48명, 28.1%), 4시간 이상(32명, 18.7%), 1~2시간(22명, 12.9%) 순으로 많았다. 1시간 미만(13명, 7.6%)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4-26>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이용자 행태

분류		여의도 한강공원 (n=171)	분류		여의도 한강공원 (n=171)
교통수단	버스	21.6	동반자	가족	24.6
	지하철	45.0		친구	33.9
	자가용	26.9		배우자·이성 친구	23.4
	도보	6.4		기타 (직장동료 및 선후배)	18.1
	합계	100.0		합계	100.0
방문빈도	일주일에 2~3번	5.8	피크닉 이용시간	1시간 미만	7.6
	일주일에 1 번	8.2		1~2시간	12.9
	한 달에 2~3번	15.8		2~3시간	28.1
	한 달에 1번	18.1		3~4시간	32.7
	1년에 3~4번	17.5		4시간 이상	18.7
	1년에 1~2번	14.0		합계	100.0
	2~3년에 1번	9.9			
	처음 방문	10.5			
	합계	100.0			

3절 측정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의 피크닉 동기 측정변수는 변수의 개수가 많아 차원의 축소 과정을 통해서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여기서 변수들 사이의 관련 정도를 보아 이들의 선형결합을 이용한 새로운 변수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하여 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들을 통해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 기법이다. 요인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100개 이상이 바람직하다

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춘절기와 하절기 모두 170 이상이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측정변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²⁴⁾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며, 각 변수들은 요인 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eigen value)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으로,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량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검사(Measure of sample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하였다. 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일반적으로 KMO값이 0.9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며,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유의확률로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해석을 한다.

춘절기 피크닉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2개 문항(물놀이 시설 이용, 한강공원 시설 이용)을 요인 적재량 기준에 미달하여 제거하였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1개 문항(운동)을 제거하여 10개 문항으로 재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Kaiser-Meyer-Olkin)검정 결과에서도 0.669의 값을 보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개별 요인명은 요인별 구성항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성”, “커뮤니티성”, “문화향유성”, “일상탈출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0.6이상으로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4-27>과 같다.

24)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변수들의 상관행렬 또는 공분산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한 스펙트럴 분해(spectral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주성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박성현 외, SPSS 17.0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2009.

<표 4-27> 여의도 한강공원 춘절기 피크닉 이용자 방문동기 요인분석

피크닉 동기	요인				신뢰도
	자연성	커뮤니티성	문화향유성	일상탈출성	Cronbach α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0.868				0.825
한강경관을 감상	0.844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0.809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0.852			0.653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0.740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0.711			
특별 이벤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0.898		0.724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0.855		
휴식				0.868	0.676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0.826	
고유값	2.767	1.893	1.547	1.061	-

춘절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하절기 피크닉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2개 문항(휴식, 스트레스 해소)을 요인 적재량 기준에 미달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1개 문항(운동)을 제거하여 10개 문항으로 재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Kaiser-Meyer-Olkin)검정 결과에서도 0.617의 값을 보였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개별 요인명은 요인별 구성항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성”, “커뮤니티성”, “놀이성”, “문화향유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0.6이상으로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절기 요인분석 결과는 <표 4-4>과 같다. 춘절기에 요인 적재량에 미달했던 “놀이성” 관련 동기 요인이 “일상탈출성”을 대신하여 분석이 되었다. 여름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춘절기에 분석되지 않았던 “놀이성”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28> 여의도 한강공원 하절기 피크닉 이용자 방문동기 요인분석

피크닉 동기	요인				신뢰도
	자연성	놀이성	커뮤니티성	문화향유성	Cronbach α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0.839				0.702
한강경관을 감상	0.790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0.729				
한강공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0.880			0.760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0.865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0.881		0.661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0.752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0.602		
특별 이벤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0.889	0.804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0.885	
고유값	2.449	2.126	1.545	1.140	-

4절 가설 검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의 차이 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가설 설정은 아래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H1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 성별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2 : 연령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3 : 직업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4 : 거주지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χ^2)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한 검정은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기대빈도와 관측빈도간의 카이제곱(χ^2)의 유의확률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경우 F통계량과 유의확률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을 경우 Scheffe 값을 사용하였고,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경우 Dunnett의 T3값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1) 춘절기 이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 차이 검정

먼저 가설 1-1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4-5>과 같이 나타났다.

검정 결과를 보면, 연령과 거주지는 집단 간 차이에 있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공간 유형 별 연령대를 살펴보면, 진입공간을 보면 10대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20대~40대 이상이 골고루 분포되어있고, 놀이터 인접공간은 3~40대 이상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이는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많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녹지공간에는 10대와 20대가 많으며 30대 이용객도 적지 않게 이용하고 있었으나, 40대 이상의 점유 비율은 낮았다. 수변시설과 한강변 공간은 전체적으로 고른 연령분포를 보여주었으며, 무대 인접공간은 40대 이상을 제외하고 고른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에 따른 공간 점유의 차이를 보면, 공원 진입공간에는 서울 외곽지역에서 온 사람이 적었으며 놀이터 인접공간과 중심녹지공간은 대상지와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수변시설, 한강변, 무대 인접공간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대개 기타 서울지역, 서울외곽지역, 인접지역 순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었다.

<표 4-29> 춘절기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독립변수	변수 코딩	Pearson χ^2	기대빈도 5 이하
성별	1=남자 2=여자	8.559	-
연령	1=10대 2=20대 3=30대 4=40대 이상	25.519**	-
직업	1=자영업 2=생산직/노동직 3=판매/서비스직 4=사무직 5=전문직 6=가정주부 7=학생 8=기타	49.673*	36(75%)
거주지	1=인접지역 2=기타 서울지역 3=서울 외곽지역	18.897**	-

* $P < 0.10$, ** $P < 0.05$, *** $P < 0.0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정결과는 비록 기대빈도가 모두 5.0 미만을 나타냈으나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따른 차이 검정결과는 기대빈도가 5.0 이상으로 두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크닉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공간 선정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가설 중 H1-2와 H1-4는 채택되었고, H1-1과 H1-3는 기각되었다.

(2) 하절기 이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 차이 검정

하절기 역시 가설 1-1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4-5>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0> 하절기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독립변수	변수 코딩	Pearson χ^2	기대빈도 5 이하
성별	1=남자 2=여자	5.705	-
연령	1=10대 2=20대 3=30대 4=40대 이상	32.694*	6(25.0%)
직업	1=자영업 2=생산직/노동직 3=판매/서비스직 4=사무직 5=전문직 6=가정주부 7=학생 8=기타	49.673*	42(87.5%)
거주지	1=인접지역 2=기타 서울지역 3=서울 외곽지역	16.061*	-

* P < 0.10, ** P < 0.05, *** P < 0.01

하절기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검정결과를 보면, 오직 거주지만이 공간 별 점유 형태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춘절기에 거주지와 함께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던 연령은 하절기 분석에서는 기대빈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유의하다고 판단이 불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가설 검정은 H1-4만이 채택되었고 H1-1, H1-2, H1-3은 기각되었다.

2.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연구 가설 검정

연구 가설 H2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H2 : 피크닉 이용자 행태특성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 피크닉 이용자가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2 : 피크닉 이용자의 동반자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3 : 피크닉 이용자의 공원 방문빈도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4 : 피크닉 이용자의 공원 이용시간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5 : 피크닉 이용자의 피크닉 이용용품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 차이 검정

검정 결과는 <표 4-6>과 같다. 검정 결과, 이용자 행태 특성 요인 중에서 피크닉 동반자, 이용시간, 피크닉 이용용품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수단과 방문빈도는 모두 기대빈도가 5이상인 셀이 20%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낼 수 없었다.

피크닉 동반자에 따른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친구와 함께 온 사람은 어느 공간에나 골고루 분포하였으나, 가족단위의 피크닉 이용객은 놀이터와 수변시설 인접 공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애인과 함께 온 이용객은 한강변과 무대 인접 공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을 제외한 직장동료나 선후배 등 기타 관계의 그룹은 주로 진입공간 근처에 많이 집중된 결과를 보였다.

피크닉 이용시간이 1시간~3시간일 시에는 골고루 분포하였고, 5시간 이상 장시간 피크닉을 즐길 시에 중심녹지나 수변시설에 인접하여 자리를 잡는 경향을 보였다. 그 대신 나머지 공간은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크닉을 텐트를 치고 하는 사람은 골고루 분포하였으나 중심녹지에 가장 많이 있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놀이터 인접공간과 중심 녹지를 기피하고 한강

변과 무대 인접공간에 더 집중되는 성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피크닉 이용행태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 관련 연구가설 중에서는 H2-2, H2-4, H2-5 는 채택되어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고, H2-1과 H2-3은 기각되었다.

<표 4-31> 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독립변수	변수 코딩	Pearson χ^2	기대빈도 5 이하
교통수단	1=버스 2=지하철 3=자가용 4=도보	31.983*	6(25.0%)
동반자	1=가족 2=친구 3=애인·이성친구 4=기타 (동료, 선후배 등)	62.651***	1(4.2%)
방문빈도	1=일주일에 2~3번 2=한 달에 3~4번 3=한 달에 1~2번 4=1년에 2~3번 5=1년에 1번 6=처음 방문	27.931	24(66.7%)
피크닉 이용시간	1=1~3시간 2=3~5시간 3=5시간 이상	19.443**	-
피크닉 이용용품	1=텐트 2=돛자리 3=없음	20.949**	-

* P < 0.10, ** P < 0.05, *** P < 0.01

(2) 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 차이 검정

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검정 결과는 <표 4-7>과 같다. 검정 결과, 이용자 행태 특성 요인 중에서 피크닉 동반자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수단과 방문빈도, 그리고 이용시간은 모두 유의확률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기대빈도가 5이상인 셀이 20%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낼 수 없었다.

피크닉 동반자에 따른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친구와 함께 온 사람은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골고루 분포하였으나, 놀이터와 수변시설은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도를 보였다. 가족단위의 피크닉 이용객은 역시 놀이터와 수변시설 인접 공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배우자 및 이성친구와 함께 온 이용객은 놀이터, 한강변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들을 제외한 직장 동료나 선후배 등 기타 관계의 그룹은 주로 중심녹지나 한강변, 진입공간같은 넓은 장소에 많이 집중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하절기의 피크닉 이용행태 특성에 따른 피크닉 장소 선정 관련 연구가설 중에서는 H2-2만 채택되어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고, H2-1, H2-3, H2-4는 기각되었다.

<표 4-32> 하절기 이용자 행태 특성 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요약

독립변수	변수 코딩	Pearson χ^2	기대빈도 5 이하
교통수단	1=버스 2=지하철 3=자가용 4=도보	29.162	6(25.0%)
동반자	1=가족 2=친구 3=애인·이성친구 4=기타 (직장동료, 선후배 등)	34.779**	-
방문빈도	1=일주일에 2~3번 2=한 달에 3~4번 3=한 달에 1~2번 4=1년에 2~3번 5=1년에 1번 6=처음 방문	39.731	41(85.4%)
피크닉 이용시간	1=1~3시간 2=3~5시간 3=5시간 이상	14.030	12(40.0%)

* P < 0.10, ** P < 0.05, *** P < 0.01

3.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동기 관련 연구 가설 검정

연구가설 H3 은 피크닉 장소 선정과 피크닉 방문동기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정하는 단계이다. 피크닉 방문동기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형 자료, 피크닉 장소 공간 분류는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여 검정한다.

<표 4-33>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춘절기 피크닉 동기 요인 차이 분석

요인	공간분류	평균	표준편차	F/Sig.	Scheffe
자연성	진입공간(a)	3.59	0.55834	19.201/0.000*	e>a,c,f>b,d
	놀이터(b)	3.05	0.63175		
	중심녹지(c)	3.90	0.63818		
	수변시설(d)	3.05	0.65556		
	한강변(e)	4.37	0.47424		
	무대(f)	3.84	0.84337		
커뮤니티성	진입공간(a)	2.64	0.90521	0.285/0.921	-
	놀이터(b)	2.79	0.99610		
	중심녹지(c)	2.73	0.90295		
	수변시설(d)	2.69	0.92613		
	한강변(e)	2.62	0.90437		
	무대(f)	2.52	0.91512		
문화향유성	진입공간(a)	1.90	0.64860	11.132/0.000*	f>b,c,d,e,>a
	놀이터(b)	2.03	0.66867		
	중심녹지(c)	2.18	0.70078		
	수변시설(d)	2.01	0.79311		
	한강변(e)	2.37	0.65566		
	무대(f)	3.16	0.96458		
일상탈출성	진입공간(a)	4.40	0.48066	1.216/0.303	-
	놀이터(b)	4.18	0.54903		
	중심녹지(c)	4.43	0.52083		
	수변시설(d)	4.23	0.62606		
	한강변(e)	4.43	0.46856		
	무대(f)	4.36	0.53279		

* p<0.05

(1) 춘절기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동기 차이 검정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피크닉 동기 요인 가운데 자연성과 문화향유성은 대상지간 피크닉 이용객들의 방문동기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자연성과 문화향유성의 유의확률은 각각 0.000의 수치를 보여

연구가설 H3는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성은 한강변 공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문화향유성은 무대 인접공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크닉 이용객들의 장소 선정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성에서는 한강변 공간이 그 외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입공간, 중심녹지, 무대 인접공간도 놀이터와 수변시설 인접공간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문화향유성에서는 무대 인접공간이 다른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공간 중에서 진입공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크닉을 할 시,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에 가야만 하는 공간적 제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너른 녹지를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지만, 자연환경을 더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심과 바로 접한 진입공간보다는 강바람을 쐬고, 한강의 수변경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한강변이나 무대 인접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향유성이 무대 인접공간에서 높은 이유는 수상무대에서 일주일에 세 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공연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공간에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이 간간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진입공간에서는 그런 공연이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하절기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동기 차이 검정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절기 4개의 피크닉 동기 요인 가운데 자연성과 놀이성, 문화향유성은 대상지간 피크닉 이용객들의 방문동기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자연성과 놀이성, 문화향유성의 유의확률은 각각 0.000의 수치를 보여 연구가설 H3는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성은 중심 녹지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문화향유성은 무대 인접공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절기에는 도출되지 않았던 동기 요인인 놀이성은 수변시설 인접공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피크닉 이용객들의 장소 선정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성에서는 중심녹지 공간, 무대 인접공간이 놀이터 인접공간과 수변

시설 인접공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향유성에서는 무대 인접공간이 다른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공간 중에서 놀이터 인접공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이하게도 춘절기에 분석했을 때, 진입공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던 반면, 하절기 분석에서는 무대 인접 공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놀이성에서는 수변시설이 가장 높은 평균 수치를 보였고, 놀이터 인접공간과 무대 인접공간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공간들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봄과는 달리 여름에 자연환경을 더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은 넓은 잔디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변과 인접한 무대 인접공간도 여름에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향유성은 봄과 마찬가지로 무대 인접공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진입공간이 문화향유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광장과 이어지는 진입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이 봄보다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이 되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캐스케이드나 피아노물길 근처의 공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주말에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수변시설 인접공간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놀이 목적으로 온 이용객들은 수변시설 인접공간이나 놀이터 인접공간을 봄에 비해 더 많이 찾는다.

<표 4-34>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하절기 피크닉 동기 요인 차이 분석

요인	공간분류	평균	표준편차	F/Sig.	Scheffe
자연성	진입공간(a)	3.38	0.65868	8.919/0.000*	c,f>b,d
	놀이터(b)	3.05	0.38183		
	중심녹지(c)	3.89	0.54474		
	수변시설(d)	3.22	0.53324		
	한강변(e)	3.47	0.78792		
	무대(f)	3.88	0.69811		
커뮤니티성	진입공간(a)	2.37	0.86704	0.836/0.394	-
	놀이터(b)	2.56	0.88450		
	중심녹지(c)	2.53	0.79266		
	수변시설(d)	2.70	0.88341		
	한강변(e)	2.33	1.02238		
	무대(f)	2.76	0.90657		
놀이성	진입공간(a)	1.87	0.68887	15.752/0.000*	d>b,f>a,c,e
	놀이터(b)	2.93	1.14434		
	중심녹지(c)	2.32	0.80754		
	수변시설(d)	3.64	0.85823		
	한강변(e)	2.51	0.67333		
	무대(f)	2.82	0.66964		
문화향유성	진입공간(a)	2.51	0.97641	6.299/0.000*	f>a>b,c,d,e
	놀이터(b)	1.94	0.73710		
	중심녹지(c)	2.26	0.76355		
	수변시설(d)	2.01	0.76902		
	한강변(e)	2.19	0.76181		
	무대(f)	3.05	1.10838		

* p<0.05

4.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만족도 관련 연구 가설 검정

연구가설 H4는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라서 피크닉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피크닉 만족도 설문 문항 역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하게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통해 연구 가설을 검정하도록 한다. 먼저

춘절기에 조사한 공간 특성에 따른 춘절기 만족도 차이는 <표 4-35>와 같다.

<표 4-35>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춘절기 피크닉 만족도 차이 분석

요인	공간분류	평균	표준편차	F/Sig.	Scheffe
만족도	진입공간(a)	3.57	0.50401	4.528/0.001*	e>a, b
	놀이터(b)	3.67	0.88409		
	중심녹지(c)	4.03	0.55605		
	수변시설(d)	3.83	0.59209		
	한강변(e)	3.70	0.65126		
	무대(f)	4.24	0.63556		

* $p<0.05$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피크닉 만족도는 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만족도의 유의확률이 0.001의 수치를 보여 연구가설 H4는 채택되었다. 피크닉 만족도 차이는 무대 인접공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중심녹지, 수변시설 순이었다. 특히,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대 인접공간이 공원입구, 놀이터 공간의 피크닉 이용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진입공간은 도심과 접해있어 차 소리, 매연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놀이터 인접공간은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으나 함께 온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 무대 인접공간, 중심녹지, 수변시설, 한강변 공간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입공간과 놀이터 공간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라 이용객들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H4는 연구 대상지에서 검증되었다.

이어서 하절기 조사를 통해 공간 특성에 따른 피크닉 만족도 차이는 <표 4-36>과 같다.

<표 4-36> 피크닉 장소별 공간 특성에 따른 하절기 피크닉 만족도 차이 분석

요인	공간분류	평균	표준편차	F/Sig.	Scheffe
만족도	진입공간(a)	3.57	0.57300	1.148/0.337	-
	놀이터(b)	3.79	0.49900		
	중심녹지(c)	3.64	0.78000		
	수변시설(d)	3.55	0.67500		
	한강변(e)	3.57	0.63400		
	무대(f)	3.86	0.65100		

* $p<0.05$

봄과는 달리, 여름에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피크닉 이용객들은 공간 특성에 따라 피크닉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입공간이나 놀이터 인접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춘절기와 마찬가지로 수변무대 인접공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춘절기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중심녹지와 수변시설은 의외로 만족도가 예상과 달리 낮게 나왔다. 특히 춘절기에 비해 이용자 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던 수변시설 인접공간은 하절기에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전체 공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캐스케이드와 다리 밑 피아노 물길 인접 공간에 몰리면서 어수선했음과 피곤함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된다. 수변 시설을 이용한 물놀이는 주로 10대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였지만, 오히려 그 복잡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피크닉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절기의 피크닉 장소 선정에 따른 이용객들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H4는 기각되었다.

제 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피크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에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어떠한 피크닉 이용행태가 이루어지는지를 현장 관찰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피크닉 이용자들 별로 어떠한 성격의 공간을 피크닉 장소로 선호하는지를 각 분류된 공간 별로 SPSS ver 21.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춘절기와 하절기의 주중과 주말 시간대 별로 현장 관찰하여 행태지도를 작성하여 분석하였고,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행태 특성에 따른 문항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행태와 피크닉 할 때의 장소 선정과 연관된 요인을 통계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피크닉 장소 결정요인을 밝혀냈다.

행태지도 분석을 통하여 주중과 주말의 피크닉 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춘절기 주중 오전은 이용자가 적은 편이라 특징적인 피크닉 행태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중 점심시간대에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의 직장인들이 돛자리와 점심거리를 싸서 먹고 쉬다가는 행태가 많았다. 주중 오후부터 이용자가 더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녁 이후의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피크닉을 즐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퇴근한 직장인과 하교한 학생들이 대상지를 많이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춘절기의 주말에는 오전부터 많은 이용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특히 가족단위의 오전 방문객들은 캐스케이드(물빛광장) 근처의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자리를 먼저 선점하였다. 점심 시간대부터 피크닉 이용객이 급증하였고, 먹고 대화하는 피크닉 이용객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말 오후 시간대에는 100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한강공원을 점유하였는데, 이때에도 역시 먹고 대화하는 행태가 많이 발견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운동 및 놀이를 하는 이용객들도 많았다. 주말 저녁과 밤 시간대에도 여전히 음식과 술을 마시며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절기의 주중 피크닉 행태를 살펴보면, 춘절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오전부터 기온이 높은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춘절기보다 이용자 수가 적었다. 이는 덥고 햇빛이 강해 주중 낮 시간대의 피크닉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절기 주말의 특징적인 행태로는 주말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밀집하는 이용자들을 꼽을 수 있다. 텐트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캐스케이드 근처와 마포대교 밑 피아노물길 근처에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춘절기와 하절기의 주중과 주말 공통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나무가 가까워 그들이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점유하였고, 그들이 있는 장소가 없을 시 그늘 없는 공간 중 경관을 보기 좋은 곳과 사람들이 덜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점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저녁과 밤 시간대, 즉 일몰 이후의 시간대에 텐트를 치면 야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후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이용객들이 늦은 밤까지 텐트를 치고 이용하는 것을 보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은 이용객들이 많아 녹지 곳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진 곳도 종종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초통계에 의하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성 이용자들이 남성 이용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대~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이용자가 많아 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사무직이 뒤를 이었다. 피크닉 이용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여의도 한강공원의 인접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반경 5km 이상 떨어진 서울지역과 서울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은 근린공원적 성격보다는 여가 목적지형 공원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단은 주로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방문 빈도는 1년에 2~3번 오는 사람들과 한 달에 1~2번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피크닉 동반자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가족단위와 커플단위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로 분석한 피크닉 장소 선정과 연관이 있는 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추기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피크닉 장소 선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성별과 직업과의 연관성은 없었으나,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서 선정하는 피크닉 장소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연령층은 중심녹지공간을 선호하였고 진입공간과 놀이터 공간에 30대와 40대 이상 연령층이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에 따른 공간 선정 차이는 서울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로 한강변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 인접지역에 사는 사람은 놀이터 인접공간과 중심녹지공간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절기는 거주지만이 피크닉 공간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서울 외곽지역에서 방문한 이용자들은 주로 놀이터, 수변시설 등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했고, 한강변 공간도 선호하였다.

이용자 행태 특성에 따른 가설 검정을 보면, 피크닉 동반자가 친구일 경우 골고루 모든 공간에 분포하였으며, 커플단위의 피크닉 이용객은 한강변과 가까운 쪽에 많이 자리를 잡았고, 가족단위 이용객들은 놀이터와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이용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피크닉을 할 시에는 주로 중심녹지와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절기에는 피크닉 동반자만이 피크닉 공간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은 수변시설을 선호하였고, 친구끼리 온 이용자들은 진입공간과 무대 인접공간을 선호하였다. 배우자나 이성친구와 함께 온 이용자들은 한강변 공간을 선호하였다.

춘절기와 하절기 모두 연구가설 H3가 채택되었는데, 피크닉 동기에 따라 피크닉 장소 선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연성과 관련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한강변과 무대 인접공간에 가있고, 문화향유성과 관련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무대 인접공간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절기에는 자연성, 놀이성, 문화향유성 이상 세 가지 동기요인이 피크닉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녹지와 무대 인접공간이 자연성 요인 수치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수변시설 인접공간이 놀이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무대 인접공간은 하절기에도 높은 문화향유성 요인 수치를 나타냈는데 춘절기와 달리 진입공간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진입공간에서 많은 아마추어 공연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춘절기에서는 피크닉 장소에 따라서 이용 만족도가 차이가 났는데, 진입공간의 이용자보다 한강변과 무대 인접공간 등 한강과 가까운 곳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강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진입공간이나 놀이터 인접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절기에는 공간 선정에 따라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H4는 춘절기에만 채택되었고 하절기 분석에서는 기각되었다.

2절 연구의 의의

근래 공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태 중 하나인 피크닉에 대한 연구가 근래에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동적 행태의 이용을 배제한 피크닉 이용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피크닉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행태 관찰과 설문 분석을 병행했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또한 시간적 범위를 봄과 여름, 한강공원 이용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로 설정하였기에 계절 별로 다른 행태와 피크닉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간대 별로 알 수 있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이용행태와 피크닉 장소 결정요인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의도 한강공원에 피크닉 이용자들이 올 때에 방문동기에 따라 다른 공간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가족단위의 피크닉 이용객은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부모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인데 그 때문에 놀이터 인접공간과 캐스케이드(물빛광장), 피아노물길과 인접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점유하는 경향이 있었고, 커플 단위의 이용객은 특히 야간에 한강변과 무대 인접공간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자연환경 체험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보통 한강과 가까운 곳을 찾았다. 이를 고려하여 놀이터나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은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나 넉넉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한강변과 가까운 곳은 커플단위의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야간에 한강공원 조

명이 대체로 보행로 위주에만 켜져 있는데, 야간에 한강변에 몰리는 이용객들을 위해 한강변 쪽 조명을 더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의나루역에서 가까운 공간을 선호하였다. 이용자들은 주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여 여의나루역과 인접한 녹지부터 점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공원 조성 시 접근성,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 공원 내 피크닉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크닉이란 행태를 주로 10대~20대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여가행태이기 때문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도시공원에 피크닉 이용을 유치할 시에는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역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의도 한강공원 내 녹지면적은 타 한강공원들보다도 넓어서 많은 피크닉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피크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들이 면적에 비해 적기에,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 그늘 없는 곳에서 피크닉을 하는 이용객들이 많다. 현장 조사로 파악한 결과로는 그늘막이 현저히 부족하고 나무도 주로 보행로와 인접한 녹지에 심어져 있는데, 중심녹지 공간에서도 나무와 그늘의 분포를 더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피크닉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강공원의 시설에 대해서 큰 영향은 받지 않으나, 수변시설이나 무대 인접공간에 자리를 잡는 이유는 물놀이나 공연관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하절기에는 물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수변시설 인접공간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수변시설의 수질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피크닉 이용에 있어 시설과 연계한 공연 프로그램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특화시설인 수변 무대 인접공간에서 피크닉을 즐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봄과 여름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수변 무대에 더 많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많은 이용객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강공원의 발전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공원의 넓은 면적과 많은 피크닉 이용자들에 비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이라 공원 관리방안의 재고가 필요하다. 여의도 한

강공원의 피크닉 행태는 주간에도 활발하지만 야간 늦은 시간에도 이어진다. 특히 야간에는 먹는 행태가 많은데 큰 쓰레기통을 곳곳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녹지에서 쓰레기를 다량 발견하거나 금지된 야간의 텐트 이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욱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 먹는 행태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주중 저녁 이후 시간대나 주말의 점심, 저녁, 밤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한강의 환경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공원에 조명이 부족한 편인데, 특히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한강변 공간에 조명을 설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시 수변공원인 여의도 한강공원이 피크닉 장소로서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피크닉 이용객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결정과 다른 요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여의도 한강공원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조성 및 정비는 물론 운영·관리 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수변공원 계획 및 설계가 입장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피크닉 이용객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한 시설배치와 공간프로그램 구상을 통해 조성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구 시간의 한계이다. 사계절이 아닌 봄과 여름에만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있다. 물론 봄과 가을은 비슷한 기온으로 유사한 행태가 나올 것이라 예상은 가능하지만, 피크닉은 겨울 이외의 봄에서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봄과 여름 뿐 만 아니라 가을까지 시간적 범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대상의 한계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피크닉 이용자가 많은 곳임에는 틀림없으나, 피크닉 이용자 말고도 많은 이용자들이 한강르네상스 이전부터 찾았던 곳이며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접

근이 용이한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피크닉장이나 피크닉 활동이 가능한 공원을 조성할 시에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원에서 피크닉 행태 연구가 더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를 공간분류한 후 각 공간별로 30명씩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각 공간 별 점유하고 있는 빈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빈도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를 다른 공원까지 확장시키고, 공간 성격에 따른 다양한 피크닉 행태를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서울특별시(2007),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 우낙기(1975), 『관광시설계획 경영론』 서울: 한국관광지역발전연구소.
- 임승빈(1999), 『환경심리행태론』 서울: 보성문화사.
-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서울: 보문당.
- 편집부(2012), 『공원에 가기』 서울: 호박.
- 홍석기(2007),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강 역사문화유산 회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학위논문

- 강나연(2010), 도시 하천공원의 시설물과 공간 구성별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중(2004), 이용자 행태 관찰법에 의한 공용공간의 디자인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운(2011), 도시민의 공원이용행태가 공원만족도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장(2010), 수변형 공원녹지에 대한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조사, 계명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2013). 사회계층 간의 여가활동 다양화에 대한 인식 차이,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경(2010). 서울숲의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정적, 동적 행태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0).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이용자와 도보산책자의 레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원(2009). 한강시민공원으로의 보행 친화적 접근 가로 환경 설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애(1995), 국민학교 소풍장소의 확대방향에 관한 연구: 한강시민공원 소풍장소 활성화 방안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준욱(2013), 하천생태공원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른 공원시설물 이용패턴과 추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승우(2012).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구간의 식생 구조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섭(2008). 한강의 waterfront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연(2013).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 및 만족도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상덕(1985). 서울시민의 피크닉 행태와 피크닉 환경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호일(1988), 환경심리·인간행태 디자인 사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지선(2009), 안산시 호수공원 이용특성 및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2006). 서울특별시 청계천 조경 이용후평가,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리(2011). 한강시민공원 여가참여자 간 여가갈등인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현(2013). 한강공원특화사업 프로그램의 이용후 평가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선(2013).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희(2002). 경관의 계절별 시각적 선호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해천(2007). 교량의 입지경관유형에 따른 시각적 선호도 분석 :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및 기타 간행논문

강영애, 이지윤, 이수(2013). “수변공원에서의 회복환경지각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8(3): 353-373.

김민선, 김현수, 민현석, 이제선(2010). “수변공간재생을 위한 도시설계요소 및 가중치 분석: 한강르네상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26(2): 87-105.

김민형, 오동하, 황영현(2012). “도시공원 방문객의 체류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6(6): 275-289.

김우혁, 김윤학, 문동일(2010). “도시공원의 이용과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2(1): 115-122.

김유일, 김정규, 안진성, 최아현(2010). “도시공원·녹지의 시민만족도 모형”, 『한국조경학회지』, 38(3): 62-74.

김정호, 이선영, 윤용한(2013). “도시지역 내 하천경관이 대학생의 기분개선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청계천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169-182.

김종구(2001). “가로경관의 선호도 분석”, 『국토계획』, 36(6): 251-257.

손수진, 이혁진(2008). “여가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수변공간이 서울시티투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2(3): 157-172.

송대호, 윤종국(2006). “도시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경관선호 유형 및 영향요인 추출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9): 243-250.

송지연, 박진아(2013).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활동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4(4): 43-54.

안창모(2010).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여의도의 소외와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5): 53-68.

양동천 외(2012).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의 수변공간의식 조사”, 『한국 향해향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3): 35-36.

- 양병이(1984). “레크리에이션장소의 분석을 위한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피크닉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8(-): 56-72.
- 오상훈, 이유라(2012). “도시 관광 동기와 만족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 방문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6(4): 207-228
- 윤형호, 박종구, 박미숙(2007). “수도권 주제공원 방문빈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8(1): 55-67.
- 이양주, 박나영, 서정영(2007). “피크닉장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7(11): 1-133.
- 이양주, 서정영(2009). “경기도 농촌 저수지의 피크닉장 조성방안”,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7: 213-224.
- 이혁기, 구희곤, 임수원(2010).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원의 가치와 장소정체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1): 69-82.
- 조경진, 김용국, 김영현(2014). “도시 오픈스페이스 방문동기 및 만족도 연구: 서울시 하천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2(1): 27-40.
- 조흥정, 박춘균(2004). “중소도시 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9): 233-244.
- 채진해, 김용국, 김영현, 손용훈, 조경진(2013), “도시 엔터테인먼트 목적지(UED)로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선택 속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4): 56-67
- 최열, 박현정, 임하경(2011). “여가행태 및 여가공간에 관한 선호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6(4): 271-82.
- 최정우(2008). “한강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도시연구』, 9(4): 53-70.

정기간행물

- 노주석, “[노주석 선임기자의 서울택리지] 14 한강<상>”, 『서울신문』, (2013년 10월 11일, p. 23)
- 신재은, “깨끗은 아이들과 샤워하는 여인, 왜 여기에서?”, 『오마이뉴스』,

(2010년 4월 7일)

이정현, “한강공원 쓰레기로 '몸살'... 두달새 892t 수거”, 『연합뉴스』, (2013년 8월 15일)

이환규, “금강시민공원 ‘캠핑족 마음을 흠쳐라’ ”, 『군산신문』, (2013년 6월 12일)

기타

“한강공원 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http://opengov.seoul.go.kr/>

“웹진 문화관광” <http://www.kcti.re.kr/webzine2/>

두산백과, 두산백과, “캠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소풍”

한강사업본부(2011), 2011년 주요업무계획, 한강사업본부

Wikipedia 온라인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

해외문헌

단행본

Gehl, Jan., *Life between Buildings*, 김진우 외 2명(공역)(2003).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 서울: 푸른솔.

Gehl, Jan and Birgitte Svarre. *How to Study Public Life*. (Washington: Island Press, 2013)

Uysal, M. and L. A. Rl, Hagan, Motivation of Pleasure Travel and Tourism in VNR's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 (New York: Var Nostrand Reinhold, 1993), pp. 798-810.

학술지 및 기타 간행논문

Chiesura, A.(2004), "The Role of Urban Parks for The Sustainable C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8: 129-138

Craik, K. H. (1973), "Environment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4: 402-422.

Mill, A. S. and A. M. Morrison(1985), "The Tourism System: An impact related to tourism development. *Proffessional Geographe*, 44: 377-392.

Ulrich, R. S. (1981), "Natural versus Urban Scenes: Some Psychophysiological Effects." *Environment and Behavior*. 13(5): 523-556.

Weber, Delene and Dorothy Anderson(2011), "Contact with Nature: Revreation experience preferences in Australian parks," *Annals of Leisure Research*, 13(1-2): p. 46-69.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이정섭 입니다.

본 설문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어나는 이용자들의 피크닉 행태를 조사하고 피크닉 장소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의 결과는 '피크닉 행태를 고려한 한강공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논문' 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무기명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의 소요 시간은 약 1분 정도이며,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한강공원의 피크닉을 통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 전공

이 정 섭 드림

Tel. 010-8976-9840

E-mail. pennyljs@hanmail.net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활동 조사]

1. 여의도 한강공원에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①버스 ②지하철 ③자가용 ④도보

2. 여의도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하러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일주일에 2~3번 ②일주일에 1번 ③한 달에 2~3번 ④한 달에 1번

⑤1년에 3~4번 ⑥1년에 1~2번 ⑦ 2~3년에 1번 ⑧ 처음 방문

3. 누구와 함께 피크닉을 오셨습니까?

①가족 ②친구 ③배우자·이성친구 ④기타()

4. 피크닉 이용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1시간 미만 ②1~2시간 ③2~3시간 ④3~4시간 ⑤4시간 이상

5. 여의도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오게 된 방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방문동기의 해당정도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방문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한강 경관을 즐기기 위해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문화 공연을 보기 위해					
특별 이벤트·축제 참여를 위해					
물놀이(수변)시설을 이용하려고					
한강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휴식을 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하기 위해					

6.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기본 인적사항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①농업/임업/어업 ②자영업 ③생산직/노동직 ④판매/서비스직

⑤사무원(회사/교사/공무원 포함) ⑥전문직(의/약사, 교수/변호사 등) ⑦가정주부

⑧학생 ⑨기타()

4. 귀하의 거주지는?

() 시 | () 구 () 동

Abstract

The Behavior of Users and Their Decision Factors for Picnic Spots in Yeoeuido Hangang Park

Jeongseup Le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parks have not only provided green space which city does not have enough for citizen, but it also plays an pivotal role as a leisure space through various park facilities and program. In recent years, leisure function of urban parks has become more important, so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nearby urban parks has increased. The Hangang parks are especially famous as picnic spots. After 'Hangang Renaissance' project, the parks are changed to suitable place for picnic because there are diverse facilities and spacious green space. In addition, many people have tent nowadays because of recent camping boom, so the picnickers who are able to enjoy picnic for a long hours have visited Hangang parks.

Although picnic is the most popular activity in Hangang parks, there is no study about the activity and some managers appealed for difficulty of managing Hangang parks. That is why this study grasps characteristics of picnic behavior in Yeoeuido Hangang park and decision factors for picnic

spots.

To analyze picnic behavior in the parks, 'Behavior mapping' is used. it is performed for observing users' behavior, happening frequency, the number of group participated, happening space on weekends and during weekdays. Also, questionnaire is used for understanding picnickers' characteristics, picnic motivation and picnic satisfaction. This analysis process is done twice for the spring season and the summer season to figure out different picnic behavior between two seasons.

The site is divided to 6 space depending on spatial characteristics (Entrance area, Playground, Main green space, Water facilities, Riverside, Waterside stage). Picnic behaviors found are divided to 6, playing, talking, reading, eating, sightseeing, and relaxing. The behavior mapping also contains whether shade is or not near picnic spots and picnickers has picnic goods. This study also verifies correlation between picnickers and picnic spots by analyzing data gotten through questionnaire.

Many officers eating lunch are found at lunchtime in midweek, and many people visit the park in the evening and night more than the day. On weekends in spring, there are many people who preoccupy the place near water facilities from morning and enjoy having dinner or drinking in the evening and night.

In summer, less people visit the park in the daytime until 4 p.m. in midweek,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occupies the area near water facilities. there is also more picnickers pitching their tents than picnickers in spring. Picnickers prefer the shaded area in the daytime and the riverside in the evening.

Age, residence, picnic companion and length of picnic time are the meaningful factors for deciding picnic spots in spring, but residence and

picnic companion are meaningful in summer. Picnic motivation always influence which place picnickers select for enjoying picnic. The motivation factors about naturality and culture are influential in spring and that about naturality, play, culture are meaningful in summer. There is difference on picnic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spots people choose in spring, people who enjoy picnic nearby waterside stage satisfied more than others.

The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ding picnic spots in Yeoeuido Hangang park and other factors by observing and analyzing how picnickers use the park for picnic while the park is being famous for picnic space. This helps managers to manage Yeoeuido Hangang park for continuous use. Also, it is reference data for planning or designing parks including picnic space.

- Keywords : Usage Behavior, Open Space, Spatial Characteristic, Leisure Motivation, Leisure Satisfaction
- Student Number : 2012-22077